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10월 22일 수요일 (주간) 제 444 호

대림산업이 짓고 합천 해인사가 운영하는 고품격 추모관
영가천도 · 재 전문사찰
海印寺 미타원
02)737-7159

노인복지 불교계가 이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탑골자원봉사센터 16일 개소

노인 실업과 자살 등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불교계가 발 벗고 나섰다.

조계사가 운영하는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완)는 10월 16일 노인전문자원봉사센터인 '탑골(Top Goal) 자원봉사센터'를 열었다. 노인전문자원봉사센터 개설은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개신교, 천주교 등에 비해 후발주자로 분류되던 불교복지는 노인복지 분야에 새 모델을 제시하면서 노인복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노인전문자원봉사센터가 문을 열었다. 10월 16일 서울노인복지센터가 마련한 '탑골 자원봉사센터' 개소식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될 노인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인력순환 시스템 구축 · 지역단체와 연계

"파생 경제적 이익 연간 1조원 창출 예상"

탑골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와 자원봉사 전문학교 운영, 문화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 환경호보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자원봉사 전문학교는 문화애호단, 탑골사랑봉사단, 전문강사 양성 등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체험 중심의 체계적인 자원봉사 교육으로 연간 5백여 명의 노인자원봉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육, 파견, 재교육, 보상 등 노인자원봉사자 인력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동기부여에도 한 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탑골 자원봉사센터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 새서울 자원봉사센터, 종로구 자원봉사센터 등과 협의체를 조직해 연계회의를 정례화 하는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자원봉사센터 개소로 노인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경우 파생되는 경제적 이익도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최성재 교수(사회복지학과)는 15일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주최한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50세 이상 인구 20%(2000년 기준 약 191만 명)가 1주일에 4시간(시급 2,510원) 자원봉사활동을 할 경우 연간 1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탑골 자원봉사센터 소장 지완 스님은 "국내 최초 노인전문자원봉사센터 개설로 불교복지는 사회통합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련인터뷰 4면

이동혁 기자 tonylee7@buddhapia.com

북한산도로 공론조사 늦춰질 듯

조계종, 문광부에 회신

대통령 재신임 정국으로 정부가 혼란을 겪으면서 북한산 관통도로 공론조사 실시 여부 결론이 늦춰질 전망이다.

조계종은 16일 공론조사 정부 창구인 문화관광부 종무실로 발송한 중간회신에서 "재신임 문제로 공론조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정리가 안 된 만큼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을 확인한 뒤 종단도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다.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사무처장도 "재신임 문제가 국정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공론조사 논의가 늦춰질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라며 "총선이 내년 4월에 있는 만큼 정부가 불교계의 동의 없이 쉽게 강행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관광부 종무1실 김진곤 사무관은 "재신임 문제가 공론조사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면서도 "불교계를 계속 설득해나간다는 기본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종무실 당분간 유지

통폐합 논의 보류돼

문화관광부가 조직개편안을 만들면서 종교계와 갈등을 빚었던 종무실 통폐합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종무실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문광부 종무실의 한 관계자는 최근 "현재 종무실 통폐합 논의는 보류된 상태며, 당분간은 (통폐합) 논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관계자는 "문예진흥원을 문예진흥위원회로 개정하는 직제개편안을 행자부에 제출해놓은 상태인데 국회의 반대로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이 문제로 인해 전체적인 직제개편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따라서 종무실 통폐합 문제도 자연히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종교시설 30곳 문화시설로 이용

문광부, 빠르면 내년부터 … 자발참여 유도

조계종, 준비작업 착수

빠르면 내년부터 매년 불교와 천주교 등 7개 종교 시설 30여 곳이 각종 공연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내의 상설 공연장이 늘어나게 돼 문화공연 활성화에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 종무 2과 이안진씨는 "올해 시범적으로 경기 안양시 중앙성당 강당과 용인시 신갈성당 주차장의 경우 공연 관련시설을 갖추는데 5천만원의 소요 비용을 후원했다"며 "문화부는 11월중 종교시설의 문화공연화 사업방안의 연구 보고서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종교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 씨는 "현재 상설공연장 부족으로 공연 관계자들이 공연장 잡기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면 종교계, 공연계, 정부의 '윈 · 윈 게임'이 성사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연극협회의 '종교단체 시설 공연장화 계획안'에 따르면 종교시설의 문화공연장화는 △순회공연에 따른 극단운영 개선 △각 종교단체 전도활동의 활성화 △문화향유 계층의 수혜 폭 증대 등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각 사찰마다 산사음악회를 많이 열고 있는데, 사찰에 문화공연장이 만들어지면 일회성이 아닌 장기 공연도 가능해 질 것"이라며 관련 준비작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막사이사이상 수상자 23~25일 부산서 회의

2003 막사이사이상 역대 수상자 회의가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 등 역대 수상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3~25일 3일간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다.

막사이사이상 재단이 주관하고 록펠러 재단에서 지원하는 '2003 막사이사이상 역대 수상자 회의'에서는 '평화의 길 건설'을 주제로 △지역사회 평화건설노력에 대한 논의 △수상자들 간의 공동체의식 강화 △아시아인들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정신 확인 △아시아에서의 재건과 화해를 증진하기 위한 의제들을 다룬다.

남동우 기자

한편 조계종 공대위(위원장 성타)는 17일 국무조정실이 발송한 노선재검토위원회 후속조치 이행촉구 공문에 대해 "올 4월 14일 노선재검토위원회 합의사항 및 노선재검토위 운영세칙 규정과 정신에 위배되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부산지역 스님들!
무료로 인터넷 배우세요
11월 3일부터 인터넷 · 한글 97 등

불교정보화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후원으로 실시하는 '스님들을 위한 무료 컴퓨터 교육 사업' 제 7차 교육이 부산 지역 스님과 종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교육일정: 2003년 11월 3일부터 4주간(매주 월~금 오후1시30분~3시30분)
- 교육과정: 윈도우 98, 인터넷 초급과정
- 교육장소: 부산우체국 정보화 교육실(051-466-0021)
- 수강료: 무료(교재비 본인부담)
- 신청 접수: 현대불교신문사 부산지사
  지사장 김종열 051-632-0064, 011-219-5066
- 모집 인원: 8명

불교정보화협의회 ·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02)737-0090 부산:(051)632-0064 대구:(053)768-8008 광주 전남:(062)375-9986 전북:(063)255-2274 대전:(042)489-9390 충북:(043)258-3282 강릉:(033)643-5599 영주:(054)634-3429 경남 동부:(055)353-1196 제천:(043)644-4366 경남 서부:(055)547-3469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시각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안보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손끝으로 읽고,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혜광맹인불자회가 최근 '의미 있는' 불사를 시작했다. 점자 · 음성경전 발간 불사 기금 마련을 위해 침술 · 안마봉사단 '자비손'을 발족한 것. 중증 시각장애인 불자 회원 15명이 뭉쳤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내놓았다. 첫 봉사는 오는 11월 2일 강남 봉은사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무료 침술 · 안마 활동을 벌이고, 매월 한 차례씩 전국의 사찰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점자 · 음성경전' 불사의 의미

특히 눈여겨 볼 대목은 시각장애인 불자들의 이 같은 활동은 그간 열악한 장애인 불자들의 신행여건을 스스로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지난 89년 창립이후 종로 태일빌딩, 청량리 한국불교교화원 등 월세법당을 전전하던 혜광맹인불자회가 '자비손' 봉사단을 결성한 것은 장애인 신행의 적극성을 알리고, '점자 · 음성 경전' 발간 기금 조성에 있다.

혜광맹인불자회 유정종 회장은 "시각장애인 불자들이 정상인 못지않게 열심히 신행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줘 조금이나마 불교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한다.

사실 불교계의 장애인 포교는 말 그대로 '불모지'다. 장애인 불자 수는 점점 줄어 들고 자연히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혜광맹인불자회의 '자비손' 봉사단 발족은 소극적인 신행에 머무는 일반불자들에게 귀감이 될 만하다. 몸은 불편하지만, 스스로 신행환경을 바꾸려는 이들 시각장애인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김철우(취재1부 기자)



치악산 구룡사 대웅전 원형 복원 신축 기공 대법회

치악산 구룡사 는 신라시대 문무왕 6년(AD 666년)의 의상대사께서 창건하신 140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강원영서 제일의 호국명찰로서 도선국사, 무학대사, 서산사명대사 등이 수행한 전통사찰이며 호국안보, 조국통일, 국태민안을 발원하며 중창불사 만일기도를 정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난달 30일 전기누전 발화로 대웅전이 전소되어 금번 실측보고서에 의한 원형복원 신축기공대법회와 천일기도 및 만등불사를 다음과 같이 봉행코저 하오니 무루 동참하여 선근인연을 맺으시길 기원드립니다.

- 일 시 : 양 10월 24일(금) 10시
- 장 소 : 치악산 구룡사
- 법 어 : 현해큰스님(월정사 회주)

불기 2547년 10월 일

- 만 등 : 1인 1등 : 1만원정
- 성 금 : 십시일반
- 도 편 수 : 신응수 (경북궁 신축)
- 설계감리 : 안정환 (삼풍 설계주)
- 불 상 : 정영호 (문화재위원)
- 온라인계좌
  농 협 307011-51-036037 예금주 : 구룡사
  우 체 국 201327-01-001841 예금주 : 구룡사
  국민은행 303-01-0579-463 예금주 : 구룡사
- 접 수 처 : 치악산 구룡사 종무소
  Tel. 033-732-4800~3
  Fax. 033-732-1211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공리 1029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치악산 구 룡 사 주 지 (자광) 이 원 행

사 설

원불교 女교정원장의 선출

원불교 교정원장이면 전통불교 각 종단의 총무원장에 해당된다. 창종 88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원불교에서 이번 그 교정원장에 처음으로 여성교무를 선임, 국내 종교계 전체에 참신한 본보기 하나를 보여주고 있다.

오랜 역사적 · 사회적 환경들이 만들어 온 불교 전통 중에는 부처님 법에 어긋나는 관행과 계율이 있어 오래전부터 이의 혁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대표적 예가 비구, 비구니스님의 차별이다.

비구니스님이 폄하되고 있는 대표적 계율인 비구니 팔경계 역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아닌 경전 성립 당시의 사회현실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전통이 갖기 쉬운 경직되고 잘못된 관행과 계율은 하루빨리 고쳐야 함에도 전통 불교종단에서의 개선 움직임은 왜 그리 느리기만 한가.

대표종단인 조계종의 경우만 해도 상징성이나 영향력을 지닌 교단 내 최고위 행정직에 비구니스님의 진출은 전적으로 배제돼 있다. 이는 남녀평등이 구현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도 한참 뒤떨어진다.

평등사상의 부처님 가르침은 물론 불교가 미래를 이끌 종교임을 자임한다면 가장 먼저 비구 비구니스님의 차별부터 없애야 할 것이다.

학문적 성취도나 수행의 깊이 등 그 성과로 세계적 인지도를 얻고 있는 한국의 비구니 스님들이다. 한국불교의 세계적 위상은 이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 활용함으로써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성림문화재 연구원에 거는 기대

불국사에서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를 개원했다. 불교문화유적을 조사, 발굴할 뿐만 아니라 불교문화에 관한 연구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 한다. 이사장으로 추대된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은 "선조들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되찾아 영원히 후대에 물려줄 의무가 있다"고 연구원의 설립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다.

70년대 이후 불교계 내부에서도 불교문화에 대한 보호와 전승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조계종단에서는 자체 불교문화재연구소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 통도사는 성보박물관을 설립하여 불교문화재의 수집과 보호에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이에 뒤질세라 불국사에서 발굴과 현장조사, 그리고 불교문화의 대내외적 확산과 홍보에 주력할 전문연구기관을 수립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불교문화의 비중과 역량에 비교하면 불교계가 기울이는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은 미미한 수준이다.

문화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환경과의 대립과 갈등, 극복과 조화의 과정 속에서 이룩된 것이란 점이다. 그렇기에 문화는 집단과 민족에 따라 각각 시 · 공간적인 특수성을 지니게 된다. 마침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도 한다. 문화의 이해와 활용을 통해 21세기의 정보화 사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의 다양성이 인간의 창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세계의 조류에 발맞추어 불교문화를 통해 인류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하고자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마우스 클릭 한번으로 한국불교와 관련된 논문과 저서의 목록을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됐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는 10월 20일 '한국 불교관계 논저 종합목록'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개시했다. 서비스는 고려대장경연구소 사이트(www.sutra.re.kr)의 주요사업 콘텐츠에 연결된 '불교학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된다.

한국불교관련 서적·논문 등

인터넷검색시대 열렸다

고려대장경연 | 서지·경전등 20여종 7만3,269편 불교계 사이트와 링크서비스도 계획

이 곳에는 1892년부터 2002년까지 110년 사이에 국내에서 출판되거나 발표된 불교관계 단행본, 논문, 학위논문 등의 논저가 집대성돼, 제목과 편 · 저자명, 출판사, 발행년도, 출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지 경전 교리 역사 인물 사찰 의식 종파는 물론 문학 예술 교육 사회복지 원불교 종교학일반 인도학 티베트학 다도 등 20여 종류 7만3천269편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번 검색서비스는 이미 출간된 바 있는 책의 주제별 분류체계를 그대로 상세 검색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편의를 도왔다. 78가지 상세 주제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기존 연구 성과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점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검색서비스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불교의 주요 개념어와 키워드를 추출해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헌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가 포함된 목록에 대해 주제어 연결을 미리 준비하는 형식을 채택함으로써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시간을 단축한 것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향후 2002년 이후 간행된 논저에 대한 목록도 지속적으로 추가하는 한편, 불교계 인터넷 사이트와의 링크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종림 스님은 "책이 출간된 후 주변에서 CD로 제작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며 "그보다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불교에 관심 있는 일반인과 학자들이 자료에 손쉽게 접근해 불교학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이번 서비스 개시의 의미를 설명했다. 실제로 불교학자들은 지난해 불교관련 논저의 목록이 집대성된 것만으로도 자료수집과정의 수고를 한결 덜어준다고 평가했다.

한편 고려대장경연구소는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는 통합대장경 목록과 디지털 불교문화지도의 일부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등 불교문헌 · 문화재의 디지털화 작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장윤·영담·종상스님 새이사 선임

동국학원, 이사회 열고 후속임원인사

동국학원 임원진 16명(이사 13명, 감사 3명) 중 6명의 얼굴이 새로 바뀌었다.

학교법인 동국학원(이사장 정대)은 10월 14일 제194차 이사회를 열고 이사 9명과 감사 1명에 대한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

오는 11월 22일로 4년 임기가 끝나는 녹원, 고산, 법장 스님의 후임으로는 각각 장윤(동국학원 법인 사무처장), 영담(부천 석왕사 주지), 종상(경주 불국사 주지) 스님이 새로 이사에 뽑혔다. 현성 스님(청소년교화연합회장)과 성오 스님(부산 범어사 주지)은 유임됐다.

역시 임기 만료되는 서돈각(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이사 후임으로는 정상영 금강고려화학 명예회장이 선임됐고, 홍기삼 동국대 총장과 류주형 동국대 총동창회장은 유임됐다.

사퇴로 공석 중이던 권노갑 이사의 후임으로는 황창규 동국대 명예교수가, 감사 지명 스님을 대신해서는 범여 스님(고창 선운사 주지)이 각각 새로 선임됐다.

새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정식 임명된다.

한편, 지난 8월 사무부처장 서리로 임명됐던 성국 스님은 이날 정식 승인을 받았다.

권형진 기자

몽월대종사 16일 열반

태고종 승정(조계종의 원로회의 의원에 해당) 몽월 대종사가 10월 16일 오후 5시 55분 서울 동작구 본동 극락정사에서 열반했다. 법랍 77세, 세수 83세.

영결식은 20일 극락정사에서 한국불교태고종 승정원장으로 엄수됐다. 박봉영 기자

해인사선덕 운범스님 입적

해인총림 선덕 운범스님이 10월 15일 해인사 극락전에서 법랍 46세, 세수 73세를 일기로 입적했다. 영결식은 18일 해인사 보경당에서 산중장(山中葬)으로 엄수됐다.

운범스님은 1967년부터 해인사 장경각 장주 소임을 맡은 후 15년간 팔만대장경을 지켜왔으며, 1983년부터는 해인총림 선덕으로 극락전에 주석해왔다.

한명우 기자

해외한국사찰 신도100명 미만 70%
주 포교대상도 84%가 동포들 위주

조계종 조사, 교재·교육프로그램 개발시급

해외의 한국사찰 수가 150여 개에 달하지만 대부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각심을 주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해외 148개 사찰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포교 현황조사에 따르면 100명 미만으로 운영되는 사찰이 전체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4%의 사찰이 교포들을 주 포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이들 사찰의 활동이 '한국불교의 세계화'라는 국내의 기대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회신을 받은 50여 개 사찰의 응답을 중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과반수가 신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부족(30%)과 교육 및 활동지도인력 부족(20%)을 어려움으로 들고 있어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불교입문자의 수준과 단계에 따른 교육과 프로그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76%의 사찰에 신도회가 구성돼 있지만 대부분 법회를 바탕으로 한 법문과 기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지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52%가 한국불교를 알리는 외국어 자료의 부족과 프로그램의 빈약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들었다.

반면 76%가 앞으로도 해외에서 활동하겠다고 응답해 해외 진출 스님들의 원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형진 기자

수재민돕기성금 2억4천만원 모금

조계종 총무원과 본지를 비롯한 교계 언론사들이 1달여 동안 공동으로 진행한 '태풍 매미 수재민 돕기 캠페인'이 모두 2억3천9백54만원을 모금하고 마무리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구룡사 1억원, 조계사 1천3백만원, 조계종 중앙종회 1천80만원, 봉은사 · 도선사 · 16교구본사 고운사 각 1천만원, 한마음선원 7백만원, 충남비구니회 남부지부 5백만원 등 사찰과 신행단체, 불자들의 동참이 잇따랐다.

조계종은 모금액 중 1억원을 이미 정부에 기탁하는 한편, 조만간 수해 피해 규모가 컸던 10여개 사찰을 중심으로 모금된 수재의연금을 피해사찰에 지급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고침 443호 2면 사설 '창간 9주년의 다짐' 마지막 문장이 전산 착오로 일부 빠졌습니다. 4면 '명상과 과학' 기사 중 "지난 9월 13~14일…따라붙는다"는 문장은 중복돼 나갔습니다.

'현대'만평 심 민 섭



봉행

중국임제종 칠탑사파 한국불교 임제선학원

宗丈 추대식 及 전수국제금강보살대계 수계법회

慧泰堂 竹山 대종사 宗丈 추대식

한국불교 임제선학원은 오는 11월 2일 慧泰堂 竹山 대종사 종장 추대식을 봉행합니다

추대위원장 석혜변 **봉행위원장 석마정**

대만 임제종 본산 방장	**석정심**	**중국 임제종 본산 방장**	**석가상**
국제정공상인법자연의회장	석심무	홍콩법자연의회장	석혜인
한국법자연의회장	석혜변	말레이시아 법자연의회장	석혜선
중국법자연의회장	석혜통	인도법자연의회장	석혜생
싱가폴법자연의회장	석혜적	자카르타법자연의회장	석혜원
인도네시아법자연의회장	석혜행	오스트레일리아법자연의회장	석혜해

▶ **일 시** : 11월 2일 11시~12시 ▶ **장 소** : 서광사

전수국제금강보살대계 수계법회

삼화상

전계아사리 도성 대장로(한국) 득계아사리 정심 대장로(대만)
갈마아사리 우각 대장로(한국) 교수아사리 죽산 대장로(한국)

존증사

수경아사리 혜암 대화상(한국) 수경아사리 동춘 대화상(한국) 의지아사리 보광 대화상(한국)
수경아사리 상봉 대화상(한국) 수경아사리 가상 대화상(중국) 의지아사리 심무 대화상(대만)
의지아사리 혜천 대화상(한국) 의지아사리 성혜 대화상(한국) 의지아사리 우향 대화상(한국)
의지아사리 보암 대화상(한국) 의지아사리 지암 대화상(한국) 의지아사리 해각 대화상(한국)

대 회 장 **진공 대화상**
부대회장 **마허 대화상** 부대회장 **유공 대법사** 개당화상 **성혜 대화상** 배당화상 **도윤 대법사**
유 나 **진공 대법사 벽암 대법사 혜성 대법사 견성 대법사 자광 대법사 법장 대법사**
인 례 **석마조 석마웅 석종일 석도운 석혜감**

▶ **일 시** : 11월 2일 13시~16시 국제보살대계 호계위원회 위원장 석마정

■ 종무행정원 : 서울 광진구 중곡 2동 124-7 Tel. 02)444-3918 Fax. 02)447-5291

미래지향 종단으로 탈바꿈 모색

조계종

종무·예산 등 체계개선·인력 효율화
전문 컨설팅업체와 조직진단 계약

조계종이 조직진단을 통한 종무체계 개선 및 인력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10월14일 총무원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리적이고 비전 있는 종단운영을 위해 종단 조직진단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지난 주 전문 컨설팅업체인 '글로벌경영컨설팅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진단 작업에 돌입했다. 97년과 2000년 적정인력 산정을 위한 컨설팅을 받은 적은 있으나 종합적 컨설팅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부분의 종교단체가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하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세간의 인식을 고려할 때 이번 조직진단은 발전적 시도로 평가된다. 특히, 조직, 인력, 예산 체계를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종단을 쇄신하고 경영마인드 제고를 통해 시대흐름에 맞는 행정기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조계종이 조직진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다. 우선 94년 종단 개혁이후 현재의 3원10부 체제가 구축됐지만 각종 사업 및 종단 운영 필요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는 등 임시방편적 운영을 해오면서 비효율적 측면이 상당부분 드러났기 때문이다.

둘째는 분담금에 의존하는 현재의 예산 구조로는 늘어나는 종도들의 요구와 확장일로에 있는 종단 규모와 사업을 뒤따라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조계종 예산은 95년 66억에서 올해 162억으로 3배 가량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절박감도 내포돼 있다. 인력이 필요하면 과연 어느 정도 필요한지, 어떻게 인력을 양성해야 할지 현재로서는 아무런 기준도 판단도 없기 때문이다.

이번 조직진단은 바로 조직·예산·인력 3박자가 유기적으로 기능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목적을 띠고 있다.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이를 통해 종단 운영철학과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지향적 종무수행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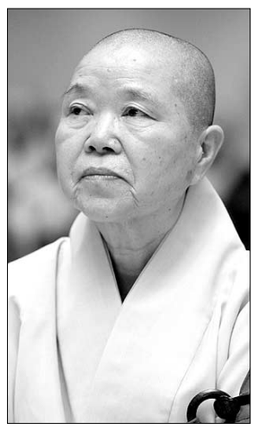
진단작업은 조계종 자체팀과 컨설팅 업체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총무원은 조만간 각 부서별 과·계장급 실무자들로 '조직진단 추진사무국'을 구성한다. 작업진행은 제로베이스(백지상태)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검토하는 방식을 띠게 된다. 한때 논란이 됐던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 통합 문제 등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다룬다. 결과에 따라서는 종단의 구조와 인력이 대폭 개편될 수도 있으며, 이를 위해 종헌종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

조계종은 조만간 중앙종무기관의 전 종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진단 작업에 들어간다. 진단 작업은 내년 1월초까지 4개월여 동안 진행되며, 이후 진단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놓고 종도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교육·수행 체계화 가속 될 듯

명성 스님 회장 취임, 전국 비구니회 전망



명성 스님이 10월 22일 오전 11시 비구니회관에서 전국비구니회 제 7대 회장에 취임함에 따라 비구니 교육 및 수행이 더욱 체계적으로 진작될 전망이다.

한국 비구니 교육의 틀을 갖추는데 심혈을 쏟아온 명성 스님의 경험은 앞으로 전국비구니회를 이끌어 가는데도 영향을 미쳐, 비구니 교육 및 수행의 발전에 집중하게 될 거라는 것이 주변의 예측이다.

지난 8월 선방 스님 등 비구니 스님 600여명이 모인 선수행 특강을 개최한 바 있는 전국비구니 선원 '선문회'도 명성 스님의 취임과 더불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선문회는 한국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전통을 확립하는데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어 선풍 진작이 기대된다. 이밖에도 비구니 스님들의 '총본산'인 전국비구니회관의 수행, 교육, 문화 프로그램도 명성 스님의 지도아래 출·재가 여성불자들을 대상으로 활발히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명성 스님은

명성 스님(호 法界)은 1931년 11월 경북 상주에서 태어났다. 스님은 강릉여고를 졸업한 후 강릉 강동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기도 했으나, 속세와의 인연을 접고 선행(善行) 스님을 은사로 입산했다. 이후 관응, 경봉, 운허, 만우, 탄허 스님 아래에서 공부하다 출가한지 5년 만에 성능 스님 지도아래 대교를 마치고 전강을 받게 된다.

30년간 … 운문사서 후학 양성에 전념
승가대학원 개설, 서예·미술 깊은 조예

전강 후 스님은 선암사 강원에서 3년, 청룡사 강원에서 10년 동안 후학교육에 매진한다.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받고, 1970년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를, 1974년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30년간 운문사에서 후학 양성에 전념해 왔다.

스님은 조계종 3대 중앙종회의원을 시작으로 4, 5, 6, 7, 8, 9대 종회의원과 전국비구니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운문사 회주, 운문승가대학장, 운문승가대학원장의 소임을 맡고 있다. 운문사에서 스님은 승가대학의 교육시설을 새롭게 건립하고, 비구니 강원 최초로 승가대학원을 개설하는 등 비구니 교육 전반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스님은 또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서예부문에서 입상할 만큼 서예와 미술에도 조예가 깊다.

한상희 기자

"원효는 앎과 삶이 하나된 인물 인생에 대한 성찰 언어로 표현"

원효전서 영역작업중인 박성배 교수

현재 <원효전서> 영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박성배(스토니 브룩 뉴욕주립대) 교수. 10월 10일 아주대에서 열린 '21세기 한국학 국제학술세미나' 참석차 일시 귀국한 박 교수는 "흔히 말하는 고희를 넘겼지만, 부처님께서 일을 시키기 위해 건강도 주셨나보다"며 밝게 웃었다. 박 교수에게 현재 진행중인 <원효전서> 영역작업 진행상황과 원효 연구를 통해 박교수가 느낀 점, 향후 계획을 들었다.



▲<원효전서> 영역작업이 한창이라고 알고 있다. 맡은 부분은 무엇이고,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나?

— 원효 스님의 현존 저술 23종을 영어로 번역하는 <원효전서> 총 5권은 2006년 동국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완간할 예정이다. 나는 이 가운데 <대승기신론소>를 맡고 있으며, 현재 초역을 마치고 서론을 작성하고 있다.

▲<원효전서> 영역작업이 꽤 오랜 시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작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

— <원효전서>를 영역하면서 번역자 각자의 시각차이로 인한 번역상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단은 출간할 예정이다. 출간 후 이에 대한 지적이 제2의 논의, 논문 발표로 이어진다면 그것 역시 학문 발전 과정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동양 고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논문을 통해 오늘날 고전 읽기의 오독과 그에 따른 왜곡 사례를 발표했다.

▲그동안 원효 연구를 해 오면서 원효 스님에 대해 교수님이 느낀 점이 있다면.

— 원효 스님은 학문적 소질이 대단하다. 당시 학문은 지금처럼 '지식'에 국한되지 않는다. 삶이 주인된, 인생 자체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 인생에 대한 성찰을 남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 내는 것이 바로 학문이라 할 때 원효 스님은 탁월한 학문적 소질을 보인, 앎과 삶이 하나된 인물이었다.

▲지금까지의 원효 연구에서 반성할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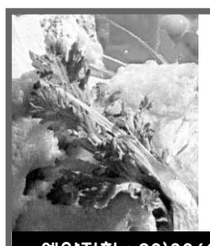
— 원효 스님을 신화화하는 연구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신화화' '전설화'의 베일을 벗겨 7세기에 생존했던 원효 스님의 인간적인 면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누군가에게 배우기 위해서는 '그도 나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전제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그는 나와는 다른 성인(聖人)이다'라는 인식은 배우는 이의 게으름이나 현실안주를 합리화해 진정한 공부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원효전서> 영역 작업을 끝낸 후 강의 외에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 한국 불자들이 좋아하는 <금강경> 같은 불경들을 나의 이해에 근거해, 내가 쓰는 현대언어로 재구성해 책으로 엮어보고 싶다. 타 종교 서적 재구성에도 관심이 있는데 '불교인이 쓰는 <요한복음>' 같은 책을 통해 사상적 교통의 장을 마련해 보고 싶은 욕심도 있다.

신화화·전설화 하는 연구의 틀 벗어야
금강경 등 현대언어로 재구성하고 싶어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전통한정식 복 현
정갈하고 담백한 전통한식으로
스님과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예약전화 : 02)2269-7155(주차장완비)
5호선 동대문운동장역 6번출구 (인쇄정보센터빌딩 지하) 금강심 합장 배례

태풍 "매미" 피해사찰
하동군 여래사 대웅전 불사 권선문

권선안내문

소납은 곡성 성륜사 청화큰스님의 문중으로 불도에 입문하여 부족하나마 반듯이 수행정진하며 성륜사에서 지장기도6년, 경북 김룡사 지장천일기도, 김제금산사 보궁에서 아미타 3년기도를 회향하고 부처님을 의지하며 오직 부처님을 모시는 것을 소명으로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도했습니다.
또한 소납은 발심하여 경남하동군 북천면 소재 여래사에 부처님을 모실 대웅전 건립불사를 진행중에 뜻하지 않게 태풍 "매미"로 공사중이던 대웅전은 쓰러졌고 요사채 지붕도 날아가 버려 이 불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 해야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여 소납의 마음은 천근으로 부처님께 죄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 전국의 불자님, 여래사 대웅전불사가 진행되어 원만히 회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이권선이 원만하여 하루속히 대웅전에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할 날을 기다려 봅니다.

불기 2547년 10월
주지 정 수 합장


▲태풍"매미"로 무너진 대웅전


▲태풍"매미"로 지붕이 날아간 요사채

온라인계좌
농 협 833125-52-048739
우체국 611608-02-025357
예금주: 염경림

대한불교 조계종 여래사 경남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1064번지 TEL 055)883-5879 • HP 011-207-5789



산하시설 종사자 교육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법장 스님은 30~31일 충남 아산시 글로리콘도에서 '사회복지 조사방법론'을 주제로 연수를 실시한다.



서울교정청교정연합회장에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 현성 스님은 9월 30일 법무부 서울교정청교정연합회장으로 추대됐다.



동국대서 추계학술대회

한국선학회장 법산 스님은 18일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덕암세미나실에서 추계학술 논문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21~22일 군종법사 보수교육

조계종 군불교위원회 위원장 성광 스님은 21일부터 22일까지 국방부 군법당 호국원광사에서 육해공군 군종법사 보수 교육을 실시한다.





서운스님 탄생 100돌 세미나

강화 전등사 주지 계성 스님은 17일 서운스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대한불교조계종과 서운스님'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자아 찾기 특별강좌' 개강

서울 불이대학 학장 종신 스님은 16일 (구)중앙승가대학교 개운사 내 강당에서 '자아 찾기 특별강좌' 개강식을 봉행했다.



재해복구기금 마련 음악회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장 혜계 스님은 11월 8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재해복구 기금 마련을 위한 송언 합창단 음악회를 개최한다.



충청불교 창간기념 법회

충청불교 장인수 발행인은 22일 오후6시 30분 청주시 충북불교문화회관에서 창간 기념 법회를 봉행한다. (043)225-6123



'깨달음을 향하여' 주제 세미나

불교여성개발원 이인자 원장은 17일 서울 안국동 한국걸스카우트 연맹회관에서 '깨달음을 향하여'란 주제로 제2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緣불교문학' 창간 기념 법회

緣(연)불교문학작가회 김병식 회장은 14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뷔페에서 '緣불교문학' 창간호 발행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서불청 창립29주년 기념법회

서울불교청년회 한명옥 회장은 22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종로 대각사 대웅전에서 창립 29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한다.

최고 문화재 발굴 · 연구기관으로

성림문화재 연구원이사장 성타 스님



"지역에서 스님, 학계,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하는 문화재 연구기관이 설립돼 전문적으로 불교문화재를 발굴 조사할 수 있게 된 것은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러줄 의무가 있는 만큼 성보를 우리 손으로 조사 발굴해 후대에 기리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경주가 우리 불교문화의 중심이자 문화재의 보고임에도 경주지역에 전문발굴조사기관이 국가기관 1개소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며 "경주지역에 산재한 폐사지 등 불교성보를 발굴하고, 불교문화와의 연관성 연구 작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보 등 문화재 발굴과 동시에 학술연구를 병행하는 등 일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성림문화재연구원이 전국의 최고 문화재 발굴 · 조사 · 학술 연구기관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불교유적 · 해외 불교성지 발굴 계획

지난 22일 지역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불교문화재 전문 연구기관인 성림문화재연구원을 설립하고 개원식을 가진 성림문화재연구원 이사장 성타 스님(사진)은 "한국불교 근대화에 앞장선 월산대종사를 기리는 뜻에서 연구원의 명칭을 스님의 법호를 따른 성림이라 이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우리에게는 과거 선조들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되찾아 후대에게 영원토록 물

성림문화재연구원은 국내의 불교문화유적 조사 · 발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불교성지 발굴에도 나서는 한편, 해외에 한국불교수련원을 건립하여 한국의 불교문화를 세계 여러 나라에 알리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대구= 박원구 기자

"법동지와 협력 교단 재창립 자세로 최선"

첫 여성교정원장 된 이혜정 원불교 교무



"첫 여성 교정원장으로서 교단의 다양성과 화합을 강조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상하좌우 법동지들과 협력해 교단을 다시 창립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교 88년을 맞은 원불교 사상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교정원장(총무원장)에 선임된 이혜정(66 · 법호 관타원 · 사진)교무는 10월 14일 전북 익산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열린 133회 임시수위단회의(원불교 최고의결기구) 무기명 비밀투표 선거후 이같이 밝혔다.

이혜정 교무는 또 "여성의 특성을 살려 화합을 중시하는 등 교단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단조직과 법인을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화, 세분화 하겠다"고 말했다.

11월부터 교정원장 3년 임기에 들어가는 이 신임 교정원장은 전북 정읍출신으로 원광대 원불교학과를 나와 남부민, 정릉, 순천, 서면 교당 교무를 거쳐, 중앙총부 공익부장, 종로교당 교감, 서울교구장, 교정원 교화부원장, 대전교구장, 중앙훈련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센터 꾸려나갈 인력 부족해요"

탑골 자원봉사센터 소장 지완 스님



"노인은 사회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제공자 입니다."

10월 16일 국내 최초로 문을 연 노인전문자원봉사시설 '탑골(Top Goal)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맡은 지완 스님(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 사진)은 "노인들이 사회적 약자로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일반인들의 잘못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교복지가 노인복지의 중심에 서는데 스님은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

또 차별화 된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복지관의 모범이 되고 있다. 특히 2002년도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처음 연 노인취업박람회는 서울시가 올 10월 실버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계기가 됐다.

스님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 당면한 문제도 주저없이 털어놨다. "가장 큰 문제점은 센터를 꾸려나갈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파견 온 1명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지원하는 2명으로는 늘어나는 노인자원봉사자 수에 대처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향후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에 대해 스님은 "우선 자원봉사센터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계기를 마련해 궁극적인 사회통합을 이뤄나가고 노인들의 자아실현에도 이바지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동혁 기자 tonylee7@buddhapia.com

소아암환자돕기 음악회 개최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는 10월 11일 동국대학교 90주년기념 문화회관 예술극장에서 '소아암 환자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다. 소아암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재정적 · 심리적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음악회에는 250여 명이 참석했다.

대광맹인불자회 창립12주년



대구 대광맹인불자회(회장 박석규)는 10일 동화사 사회국장 덕현스님 등 사부대중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2주년 기념식을 남산동 법당에서 봉행했다. 대광맹인불자회 박석규 회장은 "기금을 마련해 시각장애인과 독거노인의 수행공동체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법사 성수스님 초청 개원법회



부산 신창농원 내 홍법사(주지 심산)는 10월 10일 성수스님 초청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1여 년 전부터 법당을 짓고 포교활동을 펼쳐온 홍법사는 이날 정식 개원법회를 열고 신창농원 내 자연 풍광을 활용한 법회활동과 포교활동을 펼쳐나가게 된다.

인권센터 건립 기금마련 선서화전



부산 여여선원장 정여스님의 부산불교여성인권센터(가칭) 건립 기금 마련 작품전시회가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국제신문 전시실에서 열렸다. 정여 스님의 선서화, 서각 등 3백여 점과 소장품이 선보인 이번 전시회의 수익금은 불교여성인권센터 건립에 쓰인다.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밤 10시 ~ 새벽 3시 대비주 철야기도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부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바램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주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Ⅲ-1030]기도봉행
<제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입재 : 2003년 11월 2일 회향 : 2006년 8월 27일
우리모두 원없이 기도합시다

고암대종사 104주년 탄신제
탄신제 : 2003년 10월 29일(10. 5) 10시

지장보살후불탱화 점안법회
2003년 10월 29일(10. 5) 10시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21세기 지도이념은 '공생'

미즈다니 고오쇼 日정토종 종무총장

정각원 · 한마음선원서 강연



◇한마음선원에서 강연중인 미즈다니스님.

"21세기 인류의 지도 이념은 바로 '공생(共生)'이 될 것입니다."

최근 방한해 10월 12~13일 경기도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과 동국대 정각원(원장 법산)에서 '공생(共生)'을 주제로 잇달아 특별 강연을 한 일본 정토종 미즈다니 고오쇼(水谷幸正, 76) 종무총장(우리나라의 총무원장에 해당)은 "20세기를 돌이켜 볼 때 21세기에 필요한 것은 불교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공생'이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남 살리는 것이 오히려 내가 사는 길

인연생기·상의상관이 현대의미 共生"

미즈다니 스님은 또 "일본 사회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자연과의 공생'을 시작으로 정치, 경제,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 사상으로 '공생'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불교에서 나온 용어인 줄 아무도 몰랐다"고 지적한 후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를 현대적인 용어로 해석한다면 곧 '공생'"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4대 종단 중 하나인 정토종 스님인 미즈다니 스님은 일본 불교대 총장을 3번이나 연임하면서 대학의 면모를 혁신한 교육자인 동시에 한·중·일 불교교류대회를 이끌어낸 산파 역할을 한 인물.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은데, 그것은 하늘로부터의 벌(천재)이 아니고 자연을 정복하려 했던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인재"라고 말문을 연 스님은 "바로 내가 사는 것이 곧 남을 살리는 것이고 남을 살리는 것이 오히려 내가 사는 것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일본에서 얘기되고 있는 '공생'이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한국에서는 '상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공생'이란 단순히 '함께 살아간다'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살게 되어져서 산다', 즉 '자기 혼자 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란 뜻이고, 그것은 곧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다"고 말했다.

"연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인연생기(因緣生起)와 상의상관(相依相關)이다. 나 혼자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내 존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상의상관이고, 전생으로부터의 인과 연이 합쳐져서 오늘의 내 존재, 혹은 타인의 존재가 있을 수 있다(인연생기)하는 것이 바로 현대의 의미에서는 공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지난 2000년에도 한마음선원을 방문해 선원장 대행 스님과 대담을 나누기도 했던 미즈다니 스님은 12일에도 강연 전 대행 스님과 잠시 시간을 가졌다. 미즈다니 스님은 "대행 큰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공생' 뿐 아니라 공심, 공용, 공체, 공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이날 강연에서 밝히기도 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부처님이 도리천에서 마야 부인을 위해 설법하러 내려온 인도 상카시아에서 10월11일 기념법회가 개최되고 있다. 사진제공=정토회

부처님이 도리천에서 마야 부인을 위해 설법하러 내려온 날인 10월 11일 인도 상카시아 지역에서 기념법회가 개최됐다.

부처님이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발자국이 있는 상카시아 지역에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탑이 세워지고 사원이 건립됐다. 그러나 인도에서 7백 년 동안 불교가 쇠퇴하자 힌두교가 그 탑을 관리해왔다. 하지만 지난 1백 년 전부터 불교성지로 사원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일었고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도 개최됐다. 최근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되자 중요한 수입원인 사원 운영권을 불교도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 힌두교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印 상카시아 聖地 평화적 복원을"

법륜스님, '부처님설법 하신날' 기념식서

5천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법륜스님(정토회 지도법사)은 부처님 당시 꼴리족과 물 분쟁을 예로 들어 "힌두사원으로 지금껏 유지되어 왔으므로 쉽게 돌려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싸우면서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부처님 발자국이 있는 탑이 최근 60년만에 발생한 큰 홍수로 군데군데 무너져 있는 것이 발견돼 복구가 시급함이 지적됐다.

이에 앞서 9일 법륜 스님은 우타프라데시주 강가푸르 마을을 방문해 법당 기공식에 참석했다. 또 같은 날 달레일푸르 점안식과 법당 개원식에도 참석해 200여명에게 계를 내렸다. 이 자리에서 법륜 스님은 "석가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며 이 공덕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부처님의 가피가 내려지기를 기원했다.

남동우 기자

불교여성개발원 세미나

"초기불교시대엔 남녀불자 동등 대우

아라한 21명중 우바새11, 우바이10명"

'기복불교만 뛰어넘는다면 여성재가불자의 수행생활도 남성재가불자 못지않다'

10월 17일 걸스카우트연맹 회관 10층에서 열린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인자) 제2회 정기세미나는 그 동안 논외에 있었던 여성재가불자들의 수행생활과 정체성을 집중 조명하는 가운데 '여성의 깨달음을 향한 가능성'을 짚어보는 자리였다.

'초기불교시대 여성재가불자의 수행생활' 발표자로 나선 백경임(동국대 경주캠퍼스 가정교육과) 교수는 "부처님 시대 인도 여성은 남성과 동물 중간정도로 인식됐지만 <증일아함경> '청신녀품'에서 뛰어난 우바이 30명을 자세히 거론하고 있듯, 당시 불교 교단의 여성불자는 남성불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았다"며 "그것은 그들의 수행내용과 목표가 같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조준호(동국대 강사)씨는 "<앙굿따라니까야> 경전에서는 남성과 함께 불사(不死)의 열반을 성취한 재가 아라한 21인 가운데 우바새와 우바이가 각각 11명과 10명으로 나타날 정도"라며 "경전에 나타난 초기불교시대 여성재가불자의 위상은 상상을 넘어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조는 '현대여성불자의 수행과 삶' 주제발표에서도 이어졌다. 발표자 김정희(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씨는 여성불자 8인 면접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 여성불자들은 전통적 참선 수행방법을 택하지 않더라도 기도와 108배 등의 '수련 생활화'로 심신안정의 수행효과를 누리는 동시에 보시를 일상화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강신재 기자

서운스님 열반 8주기 전등사, 추모법회 봉행

강화도 전등사(주지 계성)는 10월 17일 대웅전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전 종회의장 청하 스님, 종회의원 장윤 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목당 서운(1903~1995)대종사 열반 8주기 추모법회를 개최했다. 이어 강설당에서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조계종 원로의원을 역임한 서운스님은 60년 62년 83년등 세 차례에 걸쳐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내며, 1971년 최초의 종무행정 규정집인 <처무규정>을 발간하는등 종단발전에 노력했다.

김원우기자

줌마족 탄압 즉각 중단하라

8개 불교단체, 방글라 대사에 항의 서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아침을 여는 집 등 8개 단체가 지난 8월 26~27일 방글라데시 카그리차리 지역 마할차리에서 발생한 방글라데시 정부의 불자민족인 줌마인 탄압 사건을 엄중 항의하는 서한을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 전달했다.

단체들은 10월 15일 전달한 항의 서한에서 "방글라데시 정부는 인종, 언어, 종교,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줌마인을 폭행하고 가옥과 사찰을 방화하는 반인류적 범죄행각을 즉각 중단해야한다"며 △소수 민족 줌마인들에 대한 인권 보장 △줌마 민족이 그들의 언어와 종교, 문화를 지키며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허용할 것 △줌마인의 지역인 CHT(치타공 산악지대)에서 방글라데시 군대와 벵갈리 이주민 철수 등을 촉구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마할차리 탄압 사건은 지난 26, 27일 벵갈리 이주민과 방글라데시 군인들에 의해 줌마인 1명 피살되고 줌마여성 7명 강간, 가옥 348채와 사찰 4곳 방화, 불상 파괴 등이 자행된 사건이다.

남동우 기자

북한산 살리기 생명법회

27일, 먹이통달기등 행사

북한산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북한산 살리기 생명법회'가 개최된다.

10월 27일 오후 2시 북한산 회룡계곡에서 열리는 법회는 의정부지역 유아들이 참가한다. 또 발원문, 이기섭 선생님의 새 먹이통 달아주기 시현, 나무 이름표 달아주기 행사 등이 열릴 예정이다. 불교환경연대 조직실장 법현 스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북한산 살리기 저변 확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 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 택시
1588-5532

목탁소리

천도재? 산사음악회?



한상희 (취재2부 기자)

국민가수로 유명한 조용필 씨가 출연했던 10월 14일 울산시 울주군 용암사의 산사음악회에서 입장료 환불 소동이 일어났다.

조용필 씨의 측근은 "사찰 측에서 구명시식을 하는데 초청받아 부인 고(故) 안진현 씨의 천도재를 지낸 인연도 있어 수락했다"며 참석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막상 자리에 가보니 '조용필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라는 거창한 이름의 공연이 마련돼 있어 매우 당황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미 모인 천여 명의 관람객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 '친구여' 한곡만을 부르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미니콘서트 규모의 공연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항의가 빗발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용암사 측은 그와 다른 입장이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한 신도는 "가수를 초대하는 것은 당연히 노래를 해달라는 뜻 아니냐"고 말했다. 또 공연 입장료로 받았다고 알려진 연등비 3만원에 대해서는 "이 행사를 통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찰입구를 보수하고, 남은 수익금은 수재민들을 위해 기부할 계획이었지만 환불 소동으로 인해 한 푼도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신한 기획과 치밀한 준비 없는 산사음악회는 포교마당도, 문화마당도 될 수 없다. 산사음악회가 불교계만의 집안행사에서 그치지 않고, 일반 대중 모두에게 열린 포교의 장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용암사'가 가르치고 있다.

성불화 룸비니 신발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편안한 신발
스님! 승복 색상과 같이 신발도 품위있게 제작

남여공용 성불화

과학적인 개발기간 2년
세상에서 이렇게 가볍고 편안한 신발이 있을까? 성불화룸비니를 신는 순간 누구나 이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세계적인 전문성 신발메카인 (주)룸비니 신발공학센타에서 2년의 연구기간과 수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해 만든 성불화룸비니가 출시 1년만에 국내시장을 석권하며 젊은층은 물론 골퍼들까지도 감탄과 찬사를 하고 있다. 서울에 사는 공무원 K씨는 광고를 믿지도 않지만 어디니가 10년이상 관절염으로 활동도 못하고 고생하는것이 안타까워 가볍고 편안한 신발이라도 사드리려고 하던 중 성불화룸비니신발이란 신문기사를 읽고 속는셈치고 구입해 드린것이 지금은 1km이상 가볍게 걸음수 있으며 활동도 한다고 한다.
또한 서울 서초구에 사는 70대 노인은 신발이 너무 가볍고 편해 1족을 구입했으나 혹시 생산이 중단되면 어떻게 할까해서 평생 신으려고 3족을 더 구입했다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고급 천연방수 가죽 뉴벅사용
천연방수가죽 뉴벅은 천연가죽중 최고급가죽으로 대단히 가볍고 보온성이 뛰어나 미국, 일본, 유럽에서 최고급신발에만 사용하는 가죽으로 상류층에서 최고급신발로 통한다. 눈, 비올때에 미끄럼방지를 위해 밑창을 초경량 골프그립을 개발하여 완벽한 미끄럼방지 기능과 접지력과 착지력을 강화했으며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하체의 힘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발에서 감력한 음이온과 원적외선을 탄산하게 만든 것이 돋보인다.
성불화룸비니는 남여공용으로 225mm~285mm까지 싸이즈별로 제조됐으며 전화로 싸이즈와 주소를 알려주면 전국 어디나 우체국택배로 정성껏 보내고 있다. 가격88,000원
문의전화 : (02)722-2890
농협: 360-12-046446 최능우

살이 빠져요
스타필드 국내 첫 시판
한국특허 제 0239854호
미국특허 제 5974699호
일본특허 제 3027143호


▲착지시 착굽이 15°
공중에 떠있는 과학적인 신발
1시간 걷거나 뛰어도
3시간 운동효과
월2kg 감량 OK!
평지걸어도 등산하는 효과
지금까지 독일, 미국, 일본에만 수출하던 신발과학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스타필드 운동화가 국내시판에 들어가 시판 3개월도 안되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비만의료신발로 우리돈 27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미국은 다이어트 조깅화로, 일본에서는 다이어트신발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신발이다. 한국체육대학교 「유종만」교수는 스타필드 신발은 뒤축이 15°공중에 떠있는 상태이므로 평지를 걸어도 산에 등산하는 것과 같이 운동량이 배가 효과가 있으며 짧은 착용기간에도 종조 지구력 트레닝과 근력트레닝의 탁월한 운동효과를 나타내 운동할 시간이 없는분은 물론 일반인과 운동선수들에게도 필요한 제품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스트레칭 효과 각선미 살려
스타필드는 다이어트 보행자세로 알려진 밥중심-밥앞꿈 보행이 가능하도록 뒤축을 15°정도 높게 설계해 몸의 균형과 허리를 반듯하게 잡는 효과가 있으며 신는 순간부터 운동효과를 배가시켜 다이어트는 물론, Z-선미를 살리는데 효과가 있다. 또, 발앞끝 착지 때에는 발바닥의 용천을 지압해 장시간 보행에도 피곤치 않고 회상의 컨디션과 뒤축에 심리는 체중을 분산시켜 뇌까지 전달되는 충격을 일간화를 착용했을때 보다 35%까지 감소시켜 준다.
운동역학적 설계로 세계시장 석권
스타필드를 신어본 이들은 한결같이 스타필드의 운동효과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스타필드는 운동부족과 영양과잉 섭취 등으로 비간증상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희소식일 수 밖에 없다.
뒤축15° 없어 3cm 커보여
또한 뒤축이 3cm가 떠있어 키가 작아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3cm 키가 커보여 키작은 고민도 해소된다.
세계적인 전문성 신발제조회사인 삼덕봉삼(주)에서 제작된 스타필드는 국내판매는 (주)헬러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있으며 225mm~300mm까지 제작되어 전화로 싸이즈와 주소를 알려주면 전국어디나 우체국택배로 보내고 있다. 가격135,000원
문의전화 : (02)2271-1441
농협: 360-12-046446 최능우



◇천태종을 창종한 지자대사의 탄신 1465주년을 맞아 한 · 중 · 일 삼국의 천태종은 지난 10월11일 중국 저장성 천태산 국청사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지자대사 탄신 1465주년·중국불교협 창립50돌

한·중·일 '천태 제자' 한자리에

대사 육신탑 봉안, 진각사·설법대 참배

불교음악제서 영산재 시연…눈길 끌어

천태종을 창종한 지자대사(538~597)의 탄신 1465주년과 중국불교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한 · 중 · 일 삼국의 천태종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0월 11일 천태종의 본산인 중국 저장성(浙江城) 천태산(天台山) 국청사(國淸寺)에서 열린 '지자대사 탄신 1465주년 및 중국불교협회 창립 50주년 기념법회'에는 한국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과 총무원장 운덕 스님, 국청사 방장 커밍(可明) 스님, 일본 천태종 종무총장 니시오까 스님, 중국불교협회부회장 청후이(成輝)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3천여 명이 참석했다.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가운데)과 총무원장 운덕스님(왼쪽)은 기념법회에 앞서 국청사 방장 커밍스님을 예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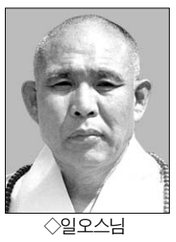
국청사 감원 윈관(允觀)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커밍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자 대사 탄신과 중국불교협회 5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에 참석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중국 천태종과 중국불교협회는 애국 · 애교의 전통을 이어가고, 사회안정과 불교 현대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운덕 스님은 축사에서 "천태종의 본산인 국청사에 한중일 세 나라의 천태종도들이 모여 지자대사의 가르침을 되새기게 되어 큰 영광"이라며 "이 자리를 빌어 중국 불교의 발전과 천태종의 흥성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법회 후 지자 대사에게 향과 차를 올리는 추모의식을 마친 도용스님과 운덕 스님 등 천태종 스님 70여 명은 국청사에서 버스로 20여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지자대사육신탑이 봉안된 진각사(眞覺寺)와 지자대사가 대중에게 법을 설했던 설법대를 참배했다. 또한 같은 날 저녁 7시 30분 천태현 시내에 위치한 천태영극원(天台影劇院)에서 열린 '지자스님 탄신기념 불교음악제'에서는 천태종 스님들의 영산재 시연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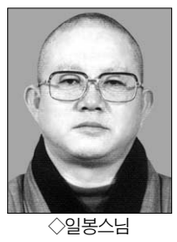
한편 이날 오전 도용 스님과 운덕 스님은 천태종 창시자 지자대사와 한국 천태종 개창조인 대각국사 의천 스님, 천태종 중창조 상월 스님을 모신 '중한천태조사기념당'을 참배하고, 국청사 방장 커밍 스님을 만나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커밍 스님은 "중 · 한 · 일 삼국의 천태종은 한 뿌리에 뻗어 나온 가지와 같다"며 "중국과 한국, 일본의 천태종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해서 천태종을 세계적인 불교로 발전시키자"고 말했다.

중국 저장성=여수령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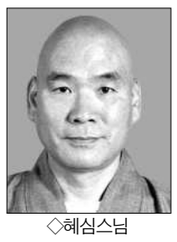
대승종, 중앙종무기관 인사



◇일오스님



◇일봉스님



◇혜심스님

총무원장 일오스님

지난달 중앙종무기관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던 대승종이 중앙종무기관을 재구성하고 종단 정상화에 적극 나섰다.

대승종은 10월 16일 총무원장에 전임 일오스님(안양 만장사)을 재임명하는 한편, 감찰원장에 일봉스님(이천 원경사), 중앙종회 의장에 혜심스님(홍천 실상사)을 새로 선임했다. 또 원로원장에 천광(영천 약왕사), 고시원장에 정산(안성 백마사), 교육원장에 영인(성남 성보사), 포교원장에 기현(서울 흥도사)을, 연수원장에 법신(양평 대성사), 감찰원 부원장에 송정(안양 만장사), 종회 부의장에 법호(창원 미타암)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이와 함께 부장급 인사도 단행했다. 새로 임명된 부장들은 사회부장 혜심 △조사부장 일봉 △교육부장 정륵 △연구부장 혜경 △포교부장 도일 △교화부장 원혜 △연수부장 대성 스님 등이다. 박봉영 기자

태고종, 사찰법 제정 추진

11월 중순 종회상정, 소유권 분쟁 사전 방지

태고종이 사찰재산의 소유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찰법을 제정한다.

태고종 종단 내에서는 사찰의 소유권 문제로 소송에 휘말리는 등 크고 작은 시비가 지속되자 사찰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돼 왔다. 총무원에서도 사찰법을 제정해 소유권 분쟁과 사찰재산의 망실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해 왔다.

이에 따라 총무원은 9월 열린 연수교육에서 여론을 수렴한데 이어 이달부터 법안 작성에 들어갔다. 법안은 11월 중순 열리는 중앙종회에 상정된다.

새로 제정될 사찰법에는 사찰구분, 종단의 주지 임명, 재산처분 허가 절차 및 방법, 사찰의 의무와 책임 분담, 본 · 말사 제도 도입 등이 명시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게시판

행사

▲서울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10월 23일 오전 10시30분~오후 1시 복지관 강당에서 무의탁 어르신 칠순잔치를 연다. 어르신 예술단 축하공연과 칠순어르신 장기자랑, 마술쇼, 기념품 증정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02)385-1351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0월 30~31일 충남 아산 도고글로리아 콘도에서 직원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총무원 사회부장 미산 스님이 불교사회복지인의 자세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참가비 2만원. (02)723-5101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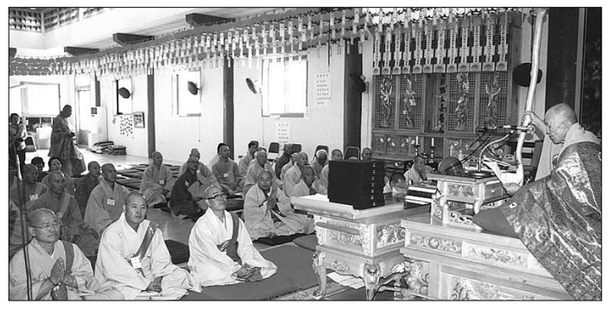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가 주최하는 취업박람회에 참가할 구인업체를 모집한다. 만 55세 이상 고령자 취업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02)804-4058

▲동산불교대학은 아미타춤 단원을 모집한다. 11월 5일 개강하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강의가 시작된다. 최승희 무용가 전수자 한순옥 여사가 지도를 맡는다. (02)732-1206

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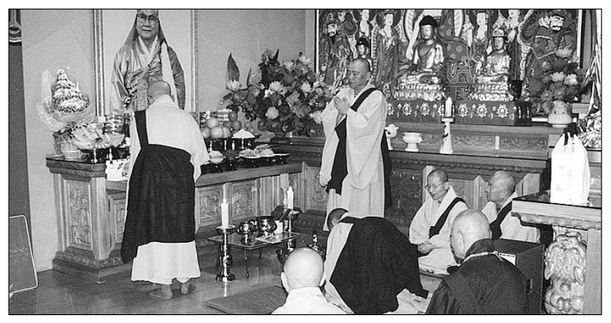
▲원주 소쩍새마을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한다.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에 한하며 모집인원은 1명이다. (033)762-9870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수진사서 종도연수·법계고시

총화종(총무원장 남정)은 10월 8~9일 남양주 수진사에서 제20회 중앙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연수교육은 총무원장 남정스님의 '종단의 미래 비전', 중앙종회 의장 화담스님의 '육바라밀', 교육원장 청해스님의 '애종심과 종단관' 강의 등으로 진행됐다. 9일에는 승덕(선덕) · 중덕 · 대덕 · 종사 법계자를 대상으로 법계고시도 치러졌다. 종정 동광스님은 "종단을 바로 세우는 개혁불사에 적극 가담할 것"을 당부했다.



석천스님 열반 8주기 추모법회

본원종(총무원장 대화)은 초대 총무원장을 지낸 석천스님의 열반 8주기를 맞아 10월 5일 서울 본원정사에서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대화스님, 감찰원장 관곤스님, 교육원장 동광스님, 석천문도회 회장 대운스님 등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대화스님은 "창종을 주도하고 종단 기틀 확립에 공헌한 석천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모든 종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는 종단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종단소식

논산시와 교류협약 체결

천태종 금강대(총장 박봉식)는 10월 9일 논산시와 지역대학 특성화와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관 · 학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금강대는 이번 협약으로 학술정보, 교육 교류는 물론 연수프로그램 상호 지원, 각종 봉사활동 참여, 논산시 시설 공동이용 등의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100시간 릴레이 정진법회

진각종 서울 행원심인당(주교 혜인) 소속의 갈마회(회장 총지)는 10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100시간 릴레이 정진법회를 봉행했다. 100시간 릴레이 정진법회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 없이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실시한 불공시간을 모두 합쳐 100시간을 채우는 방식으로, 법당 신축을 위한 신교도의 의지를 모으고 회원간 유대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부종정 범해스님 추대

조동종(총무원장 심월)은 10월 6일 서울 용천사에서 부종정 범해스님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1964년 법륜사에서 대륜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부종정 범해스님은 75년 묵담스님을 계사로 보살계를 수지했으며, 동국대 사학과, 보덕사 사집과, 법륜사 대교과를 수료한 이래 16안거를 성만했다. 이후 조동종 사무총장, 국제불교문화원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장, 조동종 교육원장, 중앙종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대한불교대승종 全 종무기관 임원개편 공고

종 정 도암 성도
사서실장 **법 명**

총무원장 법도 일오

고시원장 **법성 정산**
연수원장 **법신**

포교원장 **법운 기현**
감찰부원장 **효각 송정**

교육원장 **효담 영인**
중앙종회부의장 **법호**

원로위원 **법상. 청암. 도림**

총무원
사회부장 효산 혜심
교무국장 원도
신행국장 도우
사회국장 태덕
사업국장 법현

감찰원
조사부장 효암 일봉
감찰서기 무상

교육원
교육부장 정륵
연구부장 혜경

포교원
포교부장 도일
교화부장 원해

종의회 의원
서봉 덕원 법종
혜심 혜경 덕일
원공 태덕 법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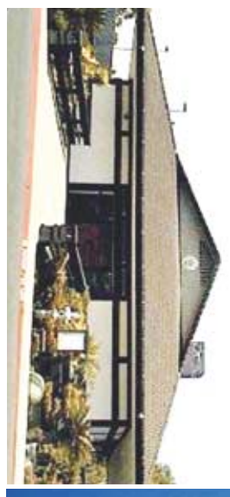
연수원
연수부장 대성
원무국장 법경

전국교구 종무원
서울 종무원장 덕문
경기 종무원장 지법
부산 종무원장 청화
대구 종무원장 법웅
경남 종무원장 법종
강원 종무원장 해동
충북 종무원장 백암
충남 종무원장 혜능
전남 종무원장 제천

2003년 10월 16일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도 일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 1동 산186-19 Tel. 031)448-8811 Fax. 031)448-8006

BBS 대구불교방송 www.dgbbs.co.kr FM 94.5 MHz
포항·안동 중계소 오는 11월 개국
중계소 설립 후원전화 060-701-0408 (한 통화당 2,000원)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한명우 기자의
미국 불교 답사기

한국 절은 있는데 한국 불교는 없다



◇캘리포니아주 테하차피 사막에 위치한 태고사. 미국내 한국사찰중 전통양식으로 건립된 곳은 태고사를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하다.





◇세로사진은 미국내 일본사찰과 중국사찰 .

■ 한국불교 활성화 위해서는

종단과 연계한 해외 포교프로그램 구축 시급

'한국 사찰은 있는데, 한국 불교는 없다'

미국의 한국 불교 실정이다. 사찰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한국불교는 다른 나라 불교와 비교하면 왜소하기 그지없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체계적인 포교시스템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종단차원이 아닌 전적으로 개인의 원력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재원확보와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종단과 연계한 해외포교 시스템 구축은 실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단적인 예로 뉴욕 불광선원 신도인 임상규씨(44)는 한글교육을 위해 아이들을 교회에 보낸다. 한글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찰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 사찰들 대부분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다보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영어에 능통한 스님들과 영역된 경전 및 한국불교 소개책자가 없는 것도 큰 이유다. 6박8일간의 미국불교 취재에서 만난 스님들과 신도들, 그리고 불교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한국불교를 알리고 싶어도 현지인들을 이해시킬 사람과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전통양식의 사찰이 없는 것도 한 이유다. 미국의 한국사찰들이 일반 건물에 입주해 있다보니 전통미를 살릴 수 없어 시각적·심리적인 흡인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큰스님 부재도 원인으로 꼽힌다. 달라이 라마나 숭산스님이 그랬듯이, 지명도 있는 스님들이 미국 법회를 자주 열어 한국불교와 간화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온통 바위산으로 뒤덮인 사막 한복판. 미국 LA에서 북쪽으로 꼬박 두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캘리포니아주 중부 테하차피(Tehachapi)에 위치한 한국전통사찰 태고사. 사찰이 그렇게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다. 다행히도 돌산을 비집고 자란 나무들이 태고사 주변을 감싸고 있어 그런대로 절 분위기가 느껴진다.

숭산스님 제자인 태고사 주지 무량스님은 미국인이다. 작업복 차림으로 온 종일 대웅전 불사에 매달리면서도 좌선정진을 거르지 않는다. 거리상으로 보면 찾는 이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매주 10여명 가량이 이곳에서 2박3일간 정진을 한다. 태고사는 미국의 한국 사찰 중에서도 한국불교의 전통 수행법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태고사 방문 이틀 전인 10월5일(한국시간 10월6일) 조계종 출입기자단으로 구성된 미국불교 취재단이 미국에 발을 디디면서 맨 처음 방문한 곳은 미국 내 한국 사찰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LA 관음사다. 이곳에서 포교를 시작한지 올해로 30년이 됐으니 짧지 않은 세월이다.

이날 열린 관음사 일요법회에는 120여명의 신도들이 참

한국 사찰 100여곳, LA 가장 많아
일부 미국식(교회)으로 법회 진행
불교 열풍속 인지도 낮고 재정 빈곤



◇LA 관음사 법당에서 좌선 하고 있는 신도들 .

석했다. 100여개쯤 되는 미국 내 한국사찰 중에서 법회에 이 정도 인원이 참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법회는 찬불가, 신입회원 소개, 공지사항, 헌금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식보다는 '미국식'(교회식)에 가까웠다.

법회 참석자들 가운데 현지인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거의 예외 없이 교포들만을 대상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 사찰들의 현실이 그렇듯이, 관음사도 현지인 포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LA가 미국 서부의 한국 불교 중심지라면 뉴욕은 미국 동부에서 한국 사찰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이다. 많다고 해야 불과 15곳 정도지만 미국 내 한국 사찰 수로만 보면 LA 다음이다.

미국 내 한국 사찰 수는 현재 100여 곳. 캘리포니아 LA를 중심으로 한 남가주 지역에 27곳의 사찰이 있고, 그 다음으로 뉴욕 지역에 한국 사찰이 많다. 물론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한 북가주 지역과 워싱턴 DC, 시카고 지역, 시애틀-타코마 지역, 그리고 하와이 지역 등 한국 사찰은 전 미주에 분포돼 있지만 LA와 뉴욕이 차지하는 비중은 40%가 넘는다.

뉴욕은 다른 지역보다 사원연합회 활동이 가장 왕성한 곳이다. 조그만 규모지만 사원연합회 사무실까지 마련해



◇태고사 대웅전 불사현장 앞에서 조계종 기획실장 현고스님(왼쪽)과 태고사 주지 무량스님(가운데)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놓고 <뉴욕 불교>라는 잡지도 발행하면서 한국불교 포교에 나서고 있다.

취재단이 8~9일 이틀간 방문한 뉴욕 소재 한국 사찰은 불광선원과 원적사. 불광선원은 호젓한 숲 속에 자리잡고 있지만 전통사찰 면모를 갖추지는 못했다.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양주 보살마저 쓸 수 없는 형편이니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짐작할 만하다. 사실 미국 내 한국 사찰들은 거의 대부분 불광선원과 같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한국불교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따라서 신도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도네이션(기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국 사찰들로서는 당연히 일이다.

뉴저지에 위치한 원적사에서는 비교적 미국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 불고 있는 명상열풍이 위빠사나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원적사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근래 들어 고등학교에서도 명상 동아리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7일 취재단과 만났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LA) 불교학연구소장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정신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고 기독교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불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미국의 명상열풍을 전했다.

LA 고려사 회주 현호스님도 "최근에 젠(선)센터가 400여개나 늘어날 정도로 미국에는 불교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 맨하튼 번화가에 위치한 샴발라센터는 티베트의 명상법을 가르치는 곳이다. 10일 샴발라센터를 방문한 취재단은 이곳의 수행 지도자 데보라씨에게서도 명상이 미국 사회에 급속히 파고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데보라씨는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만도 350명이 넘는다. 유태인들이 자기 종교활동을 하면서도 명상을 배우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추세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데보라씨는 "한국의 간화선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답했다. 사실 미국불교를 취재하면서 어느 누구로부터도 '미국인들이 간화선에 대해 알고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1900년대 초부터 미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불교는 현재 한국을 비롯해 티베트, 일본,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대만, 베트남 등 세계의 모든 불교가 들어와 있다. 가히 '불교백화점'이라 불릴 만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사찰들은 고군분투하며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한국불교의 전통과 색채를 띠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 한국불교가 진출한 지 40년. 짧지 않은 세월이지만 한국불교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을 뿐이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 (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자! 이제 중간고사는 끝났고…"

몸과 마음을 가꾸자

청소년수련 다양한 행사

야호! 중간고사가 끝났다. 그 동안 수학문제를 풀고 영어단어 외우기에 바빠 친구들과 함께 들판을 거닐거나 웃음을 나눌 겨를이 없었다면, 이제 잠시 숨을 돌리고 가을의 정취와 함께 삶의 활력과 여유를 찾아보자. 몸과 마음이 튼튼해야 공부에도 능률이 오르는 법.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청소년단체들이 만화축제와 문화유산답사 등 다양한 행사들을 마련해놓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문화유산답사

불교문화를 빼놓고는 우리 역사를 알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디지털 청소년 열린상담실이 11월 2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유산답사'를 마련했다.

승보사찰인 송광사와 관음기도처로 유명한 향일암, 불교문화재의 보물창고인 선암사를 중심으로 진행될 유적답사는 청소년들에게 사찰문화를 중심으로 불교문화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참가비 무료. (043)257-0807

▶▶청소년 나혜석 예술제

시화전, 미술공모전, 연극제, 추모음악회, 사생대회…. 골라 참가하는 재미가 있다. 수원포교당은 여성서화가인 나혜석의 삶을 조명하고 청소년들에게 순수예술의 멋과 맛을 일깨워주기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마련했다. 수상자들에게는 문화관광부장관상과 경기도지사상 등 권위 있는 상과 함께 다양한 상품들이 주어진다. 행사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031)253-0108

▶▶청소년만화축제

텔레비전과 만화책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꽃보다 남자'의 F4도 '용비불패'의 용비와 소소도 되고 싶고 직접 그린 만화작품들도 선보이고 싶다? 그렇다면 양정청소년수련관이 마련한 청소년만화축제에 참가해보자. 만화작품 공모와 청소년 만화동아리부스전, 만화체험관, 코스튬 플레이, 마술공연, 댄스공연, 그래피티, 걸개그림제작…. 헥헥. 그러나 미리 걱정하지 말 것.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니 다 참가할 수 있다. (051) 868-0760

▶▶장기자랑 콘테스트

내 장기를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잡아라. 목동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과 함께 개최하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2003 끼 콘테스트'는 춤, 노래, 성대모사, 무공 등 장르에 상관없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자리이다.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도 지급될 예정. 행사는 10월 31일 목동청소년수련관 내 청소년극장 유스텍에서 진행된다.(02)2646-0183

송광사·향일암·선암사 등 전통사찰 답사
스님과의 만남·생태환경체험·들풀기행

▶▶사찰생태문화기행

도시생활과 공부, 경쟁 등으로 삭막해진 청소년들에게 삶의 활력과 함께 불교의 생명사상을 가르쳐줄 프로그램. 11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2일간 진행될 사찰생태문화기행은 스님과의 만남, 문화재 안내, 생태환경체험활동, 분과별 들풀기행 등 참여학생 스스로가 직접 체험하고 생태환경에 대해 생각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파라미타 청소년협회로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02)723-6165

▶▶청소년자원봉사한마당

보람찬 일을 해보고 싶다면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가 개최하는 '2003 청소년자원봉사한마당'에 참가해보자.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이번 행사는 탑골공원과 종묘 및 종묘공원 일대 환경정화운동을 통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우리문화재의 아름다움과 우수성,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자리이다. (02)735-8165

▶▶자연체험교실

갯벌 속에는 어떤 생물이 살까? 바닷가의 식물들은 육지랑 뭐가 다르지?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연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주는 자연체험교실을 매주 진행한다. 그 동안은 사천대례마을과 진주수목원, 창녕 우포늪, 고성공룡발자국 탐사를 다녀왔다. 매 체험은 전문강사들의 상세설명과 함께 짚풀체험, 숲의 퀴즈왕 선발대회 등 흥미진진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된다. (055)266-8155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대불련 40년, 동문 찾기 캠페인 | 강원지부 동문회

공동주관: 대불련 총동문회·대불련·현대불교신문사

조직력 탄탄…막강 '강불공동체'

'작지만 야무지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강원지부 동문회를 일컫는 말이다. 조직력도 남다르다. 240여명의 동문회원과 재학생이 '거미줄'처럼 구축한 연락망, 활발한 참여를 통한 행사 추진 등이 '막강 강불 공동체'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지부 동문회의 이 같은 특징은 지역별 동문모임에서도 확인된다. 서울 강남·강북과 경인 지역으로 구성된 수도권 모임, 춘천, 원주, 영동 등의 모임은 1995년 동문회 결성이후, 줄곧 동문회 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다. 이는 창립 38년차에 접어든 강원지부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 선후배간 긴밀한 유대관계를 조성케 한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강원지부 회원들이 올 4월 춘천시 명동에서 열린 '연꽃제'에서 연등을 나눠주고 있다.

선후배간 친목의 장 '보련제'에 주력
내달부터 60~70년대 동문찾기 운동

이처럼 강원지부 동문들이 뭉친 이유는 재학 시절의 구도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우기 위해서였다. 또 한국불교의 장래를 이끌 후배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이를 위해 강원지부 동문회가 가장 공들이고 있는 것은 바로 '보련제'. 이 날은 강원대, 한림대, 춘천교육대, 한림정보산업대 등 지회별 동문들이 일제히 참석해 창립기념 법회를 봉행하고, 재학생들의 고민들을 듣기 위해서 후배들과 대화 시간을 갖는다. 또 재학생들은 새내기 글 자랑, 강원지부 문화원의 사물놀이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 선배들과 친목을 도모한다.

강원지부 동문회 현병근 회장(강원대 82학번)은 "가장 시급한 것이 재학생 불교학생회 활성화에 있다"며 "내년 초부터 4개 지회 재학생 간부 장학금 지원, 졸업생 취업알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지부 동문회는 앞으로 '지부 졸업생 환송회'를 재학생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한편, 이원화된 동문회·재학생간 홈페이지를 통합해 기존의 사이버 강불공동체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 동문모임의 사회봉사 활동 확대하고, 오는 11월부터 60·70년대 선배동문 찾기 운동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자랑스런 동문들

500여 동문 배출 각계서 활약



◇김풍기 동문



◇현병근 동문



◇정수동 동문

지난 66년 창립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강원지부는 현재 4개 지회로 구성돼 있다. 67년 춘천교육대학교, 70년 (구)춘천간호전문대인 한림정보산업대학, 82년 한림대학교 등이 지회에 등록했고, 그간 배출한 동문은 5백여 명에 달한다. 이들 동문들은 학계·재계 등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우선 학계에서는 유재수(강원대, 73학번, 강원대 교수), 김풍기(강원대, 80학번, 강원대 교수·사진) 등이 있다. 재계에서 김명선(강원대, 73학번, 알리안츠생명 충청호남지역본부장), 김영헌(강원대, 75학번, 포스코센터 인사총무팀장), 최문경(강원대, 77학번,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이사), 김종대(강원대, 79학번, 오성OSC 대표이사), 이택용(강원대, 81학번, 농협 춘천중앙로 지점장), 현병근(강원대, 82학번, 강원지부 동문회장·사진) 등이 있다. 이밖에 권남순(구 간호전문대, 74학번, 춘천시 보건소장), 정수동(한림대, 82학번, 한림대 교무과장·춘천불교청년회장·사진) 등이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 396-2736 · HP 016) 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 bokbat@kornet.net

■ 대불련 후원회원 됩시다

불자학생들을 돕고, 대학생 포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자 및 동문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참여방법:** 일시 후원- 1구좌(1만원 이상) / 정기 후원- 월1구좌 자동이체

▶**문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02)732-0239, 739-0913

▶**계좌번호:** 국민은행 023-01-0565993, 농협 053-01-252868, 조흥은행 390-01-071917 (예금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 후원금 내신 분

▲차차석(현대불교신문사 상임논설위원) 10구좌 ▲위영란(〃 부국장), 이경숙(〃 출판부장), 임연태(〃 편집부장), 김원우(원광대 87) 5구좌 ▲서정만(현대불교신문사 이사), 김태성(〃 실장), 조동규(책방 여시아문 부장), 강신재(이화여대 98), 한상희(숙명여대 99) 3구좌.

10월 17일 현재 총 2,809구좌

■ 총동문회로 연락주세요

밤을 지새우며 구도열정을 불태우고 전국을 누비며 수행현장을 찾았던 대불련 활동 당시의 소중한 법우나 소중한 가르침을 받았던 지도법사님. 세월의 간극을 넘어 그리운 동문과 은사를 찾고 싶으신 분은 간단한 사연과 연락처를 담아 본지나 대불련 총동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사연 중 채택된 원고는 본지에 소개될 예정이며, 본지와 총동문회가 갖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동원해 그리운 동문과 은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www.buddhanews.com
대불련 총동문회 www.daebul.or.kr



인도·네팔 佛敎聖地巡禮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 印度



삼보에 귀의 하옵니다!
인도를 순례할 수 있는 계절이 다가 왔습니다.
인도의 부처님 성지를 순례하기 위해선 여러가지 검토를 해야합니다. 우선 불교성지는 어떤일정으로 어느곳을 순례하며 인도에 대해 잘 아는 유능한 안내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곳 입니다.
실크로드여행사는 지난 16년간 수많은 경험속에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인도 델리에 실크로드 직영여행사를 설립하여 한국어를 하는 당사 직원이 안내하며 서울과 동일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고 불편없이 제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도 배낭여행시 안내는 물론, 인도에 대한 모든것을 인도 현지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도여행은 실크로드 여행사에 맡겨 주십시요.

대표이사 이상원 합장

인도 성지순례 및 한·인도 수교 30주년 기념 초대전

현재 현대불교신문사에 연재중인 인도그림기행의 이호신 화백님의 인도 초대전이 한 인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인도 델리에서 개최됨에 따라 개막식에 참석하여 인도에서 길이 5m에 달하는 장엄한 순례작품 등도 감상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됩니다. 성지순례는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일 자	지 역	일 정
12월 7일	인천 → 델리	인천출발 델리도착
12월 8일	델리 → 바라나시	한·인도수교 30주년 기념초대전 참관 및 국립박물관 방문후 델리 출발
12월 9일	바라나시	초전 법륜지 녹야원 박물관 갠지스강등 순례
12월10일	바라나시 → 보드가야	부처님 성도지 부다가야 대탑참배
12월11일	보드가야 → 파트나	법화경설법지 영축산, 죽림정사 나란다 대학등 순례
12월12일	파트나 → 쿠시나가르	유마경설법지 바이샬리 열반지쿠시나가르순례
12월13일	쿠시나가르 → 기원정사	탄생지 룸비니, 카필라성 순례
12월14일	기원정사 → 아그라	금강경 설법지 기원정사, 사위성등 순례
12월15일	아그라 → 델리	타지마할, 아그라성등 관광
12월16일	델리 → 인천	델리출발 인천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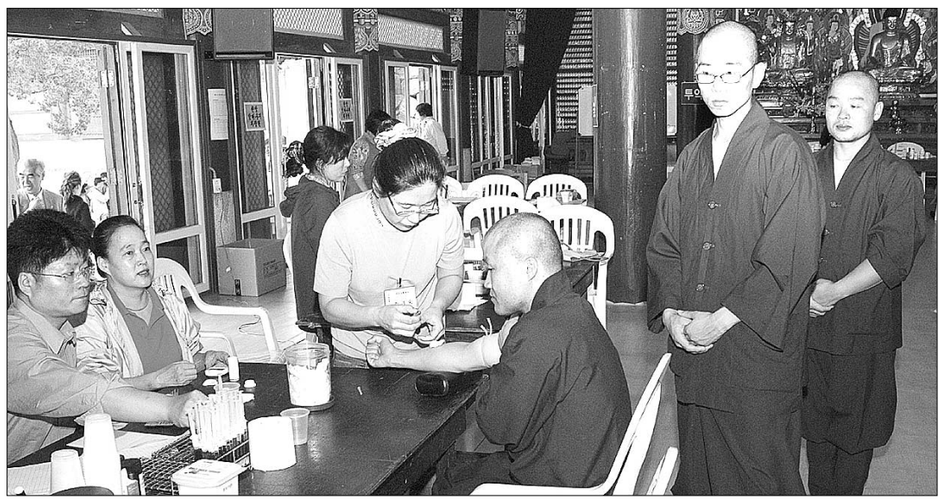
▶ 출발일 : 12월 7일 - 16일 (9박 10일) ▶여행경비 : 199만원
▶ 1월 7일 출발(9박 10일) 성지순례도 있습니다. ▶ 각지역 최고급 호텔사용

정통 인도성지순례 14일

	지 역	일 정
1	인천 → 뭄바이	인천출발 → 인도의 뭄바이 도착
2	뭄바이 → 오랑가바드	인도 3대종교 석굴이 모인 거대한 엘로라 석굴 사원 순례
3	오랑가바드 → 보팔	세계불교미술의 보고, 아잔타 석굴사원 순례
4	보팔 → 아그라	부처님 전생, 현생담이 새겨진 산치 대탑순례
5	아그라 → 바라나시	타지마할, 아그라성등 관광
6	바라나시	부처님 초전 법륜지 사르나트(녹야원), 박물관, 갠지스강등 순례
7	바라나시 → 보드가야	부처님 성도지, 보드가야 대탑 등 순례
8	보드가야 → 파트나	법화경 설법지 영축산 죽림정사 왕사성, 나란다 대학순례
9	파트나 → 쿠시나가르	유마경 설법지 바이샬리 열반지 쿠시나가르 순례
10	쿠시나가르 → 룸비니	금강경 설법지 기원정사, 사위성 부처님 고향 카필라성 순례
11	룸비니 → 포카라	룸비니동산의 마야부인당, 아쇼카석주등 순례
12	포카라 → 카투만두	안나푸르나, 마차푸차레등 히말라야 설산 조망
13	카투만두 → 방콕	스얌부나트 사원, 카투만두 왕궁 등 순례후 방콕도착
14	방콕 → 인천	방콕출발 → 인천도착

▶ 출발일자 : 12월 4일 ▶ 여행경비 : 265만원
▶ 각지역 최고급호텔사용

佛敎聖地巡禮 최상의여행은 (주) 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전국 병원불자연합회원들이 12일 합천 해인사 보경당에서 스님들을 진료하고 있다.

"스님들이 건강하셔야 중생들 이끌어 주시죠"

병불련, '해인사 무료진료' 하던 날

"스님들이 건강하셔야 열심히 수행정진을 할 수 있지요. 그래야 우리 중생들도 이끌어 줄 수 있으니까요."

지난 12일 합천 해인사 보경당. '특별한 호법신장'들이 나섰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이하 병불련)가 스님과 신도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봉사 활동을 펼치던 날. 이들이 청진기와 주사기를 집어든 이유는 간단했다. 산사에서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은 몸이 아프더라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어 작은 병도 크게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이날 무료진료에는 내과, 치과, 안과, 심전도, 초음파, 물리치료, 한방치료 등 대형 종합병원을 옮겨놓은 것과 같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이뤄졌다.

무료진료봉사에 동참한 병원불자회는 모두 13곳. 국립서울병원, 국립경찰병원, 경희의료원 등 병불련 산하 회원 불자회원 100여 명의 의사, 간호사, 약사들이 스님들의 건강상태를 세세하면서도 꼼꼼히 살폈다.

특히 33년간 경희의료원에서 재직하다 지난 8월 퇴직한 안과전문의 김재명 박사는 "눈에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스님들 진료결과 큰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며 "앞으로 그동안 하고 싶었던 불경공부도 하고 의료봉사도 마음껏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총 150여명의 스님들에게 의료봉사를 펼친 병불련 회원들은 스

국립 서울병원 불자회 등 13곳 참여

"대부분 위장·관절 이상…정기검진 필요"

송광사·통도사서도 봉사할 계획

님들 대부분이 큰 병이 없이 건강한 편이라고 말하면서도 오랜 수행생활에서 비롯된 스트레스성 위장병, 관절 등의 이상이 발견됐다며 스님들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불자약사보리회 김정순 약사는 스님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식위주의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제 등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영양제 복용도 필수라고 말했다.

이날 평소 걱정되었던 건강에 대해 검진 받은 해인사 오도암 용현 스님은 "산중 사찰에서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의사선생님들이 직접 찾아와 진료를 해주시니 너무 고맙다"고 감사를 표했다.

현재까지 7차에 걸쳐 의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며 무료진료를 펼쳐온 병원불자회가 스님들을 대상으로 봉사하기는 이번이 처음. 그러나 이들이 무료봉사를 펼치는 것이 그리 녹록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제대로 된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의료장비는 고사하고라도 기본적인 의료기기 마련은 필수. 하지만 현재는 회원들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를 직접 가지고와 진료를 하고, 운영경비는 회비도 각출해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 병불련 김주효 회장은 "앞으로 송광사나 통도사 같은 대규모 사찰에서 무료봉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천 해인사=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광주불교산악회(회장 오길수)는 지난 12일 충북 청원 보살사에서 창립7주년 기념 법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회원 1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회장에 오길수, 부회장 임병헌, 김묘숙, 감사에 황호준, 윤효순 씨가 선출됐다.

김철우 기자

창립 7주년 기념법회

광주불교산악회



우리 모임에선



직장불자 수행법 들어

한국언론사불자연합회(회장 김진평·사진)는 23일 서울 여의도 포교당에서 주지현진 스님에게 '직장불자의 수행법'에 대한 법문을 듣는다.



심곡암서 하반기 정기법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서울·경인지부(회장 임창홍·사진)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북한산 심곡암에서 하반기 정기 법회를 봉행한다.



창립2주년 기념법회 가져

전라남도청 불자회(회장 박재순·사진)는 16일 광주광역시 서구 향림사에서 창립 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조실 천운스님에게 법문을 들었다.



부석사서 합동법회 봉행

우리은행불자회(회장 정진호·사진)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영주 부석사에서 부산 우리은행불자회와 합동법회를 봉행한다.



'사랑 나눔 한마당' 봉사

철도청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회장 박우락·사진)는 12일 성남 자광원에서 노인의 달 맞이 국악인 초청 경로잔치 및 봉사활동을 펼쳤다.



풍경소리 부착 고불법회

서울도시철도공사 법우회(회장 이정환·사진)는 18일 수유 도선사에서 지하철 게시판 풍경소리 부착 고불법회를 봉행했다.

우리불자회는요

운불련 안양지역회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안양지역회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불교이념을 구현함을 물론,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로서의 참된 뜻을 가지고 1994년 7월 30여 명의 안양지역 거주 개인택시 사업자로 첫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안양지역회는 불교중흥에 앞장서기 위해 정기법회 신행생활을 통한 포교활동은 물론 콜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독거노인 무료 수송, 새생명 찾기 운동, 환경운동에도 적극 참여해 나름대로의 부처님 자비사상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운불련 안양지역회원들이 올 봄에 지역 거주 독거노인을 초청, 경로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

탑승 손님에게 불법 전하기는 '기본'

무료효도관광·교통안전캠페인 계획

안양지역회는 수도권에 인접한 신흥벤처도시로 각박한 도심생활에서 찌든 시민들의 안전한 출퇴근을 책임지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도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운불련 안양지역회 콜 택시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양지역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회장을 중심으로 한 임원, 회원간의 화합에서 비롯됩니다. 회원들 모두가 봉사하는 자세와 함께 친목을 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원들의 유대와 신행활동의 강화는 다른 단체와의 교류 폭을 넓혀나가는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안양지역회가 걸어온 길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불교 기초교리조차 모르는 회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불교에 '불'자도 모르는 초짜배기 불자들이었습니다. 우선은 불교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회는 스님들의 법문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지역 사찰을 돌며 법회를 꾸준히 봉행해 조금씩 불교를 알아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탑승하는 손님들에게 불교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됐습니다. 말 못할 어려움은 또 있었습니다. 지역회를 운영하다보면 재정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럴 때마다 안양지역 사찰의 전폭적인 지원과 회원들의 자발적인 특별기금 납부는 우리 지역회를 더욱 견실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안양지역회가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전국 22개 지역회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전국체육대회는 우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더욱 빛이 났습니다. 물론 회원 모두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안양지역회는 회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신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다 왕성한 활동을 장려할 생각입니다. 인근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효도관광이나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불자가 되도록 더욱 정진하려고 합니다.

■강동수 회장

불교신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8월의 태풍으로 아픔이
우리들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있습니다.
굳거니 희망과 용기를 갖고
일어서십시요.
내일은 행복한 시간들이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절은 가을을 향하고...
당신을 기다리는
인연의 사람과 현대에서...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 위치안내 ◁
1호선 소사역 하차
(북부 3번출구 150m지점)
전화상담 후 방문약속

■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영숙 (법명:無生子)
사무실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옥(玉) 불교용품



◆옥불상제작
- 삼존불, 만불전, 산신상
◆사찰시공전문
- 옥석탑 및 옥구조물 제작
◆설계조경시공 전문
- 옥·석 납골함, 황옥석재

HANA
하나무역(주) TEL : 053-962-3986
하나석재상사 H.D : 016-808-3986
대 표 : 배 재 현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

수신토종오가피 5개 신문 히트상품 선정!

소비자들이 먼저 확인한 우수한 품질, 다시한번 인정받았습니다.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 일간스포츠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한국일보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경향신문 2003 경향히트상품 선정
★ 서울경제신문 2003 서경벤처히트상품 선정
★ 스포츠 굿데이 2003 굿브랜드 대상 선정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는 다릅니다.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신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매주 수요일 오후2시에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농장견학회 및 재배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의 : 저희 수신토종오가피가 유명해지자 원료를 성광수씨로부터 구매해 만들었다고 판매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속지마십시오! 국내최대오가피 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토종오가피원료는 전량 수신토종오가피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5대 히트상품선정기념, 선착순 고객사은대행사!

지금 전화주세요. (02)447-2004

"수행 전통 살리며 사회발전 이끌어야"

미국에서 동아시아 불교를 강의하는 조지메이슨 대학 철학 · 종교학과 쿠웡 투 뉴엔(Cuong Tu Nguyen) 교수와 하버드 대학 언어 · 문명학과 로버트 지멜로(Robert Gimello) 교수가 10월 16~17일 이틀간 열린 성철스님 열반 10주기 추모 학술대회 "깨달음의 문화적 지평과 그 현대적 의미" 참석차 일시 입국했다. 쿠웡 교수는 베트남 출신으로 우연히 신라 원측 스님(613~696)의 <해심밀경소>를 읽고, 원측 스님의 위대성을 발견해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멜로 교수는 동아시아 불교 가운데에서도 중국 불교학 전문가로 최근에는 준제보살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 서양에서 명상에 대한 관심과 불교신자, 불교학전공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티베트 · 중국 불교에 비해 한국불교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불교를 전공한 두 교수에게서 한국불교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과 직접 경험한 후의 느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와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역할과 불교의 사회참여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쿠웡 교수



◇지멜로 교수

쿠웡 · 지멜로 교수가 말하는

한국불교의 '이미지'와 '충고'

국제적 대화의 장 마련 정체성 알려야

불교는 흔들리는 인간사회에 정신적 지주

▲동아시아 불교학 전공자로써 한국불교에 대해 평소 어떤 느낌,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 쿠웡 교수 : 미국에서 한국인 제자들을 가르칠 때 한국 불교에 대해 상상한 적이 있다. 한국인 제자 가운데 기독교신자들은 매우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이었던 반면, 불교신자들은 자신이 불교신자임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아시아적 가치를 언급하는 보고서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도대체 한국불교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당시 한국의 종교인구 수치 변동 조사 결과에 기독교 신자는 증가하는 반면, 불교 신자는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불교의 활약상이 적을 것이라는 상상을 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며칠밖에 안되었지만, 이곳에서 직접 본 한국불교의 모습은 상상과는 달랐다. 한국 불교는 활기찼고, 발전하고 있었다. 실제로 불자들은 자신감에 차있었고 비구 · 비구니의 활발한 활동이 눈에 보였다. 이 같은 상상과 실제의 차이는 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미국에 돌아가면 잡지나 신문에 이번에 느낀 점을 기고할 생각도 갖고 있다.

▲'아시아 불교'하면 티베트 · 중국 · 일본을 떠올리는 서양에서 동아시아 불교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에게는 과연 한국불교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 지멜로 교수 : 중국불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중국불교와 한국불교를 비교해 보게 되는데, 나는 한국불교에서 '살아있는' 불교의 전통을 찾을 수 있었다. 중국에는 사라진 전통이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어져,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 한국에서 지눌과 관련한 학술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날 돈오점수, 돈오돈수에 대한 격렬한 토론이 이뤄졌다. 수천 년 전 사상에 대한 해석 논쟁이 이처럼 활발하게 이뤄지는 현장은 내게 '살아 숨쉬는' 한국 불교를 보여주었다.

▲두 분 모두 한국불교를 외부에서 볼 때와 실제로 접할 때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점을 공통으로 지적했다. 이는 결국 한국 불교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그렇다면 한국 불교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내세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지멜로 교수 : 국제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한다. 몇 년 전 대만에 갔을 때 대만 스님들과 한국 스님들이 각자의 불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들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각 국의 불교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졌다.

▲향후 불교가 현대인의 삶에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쿠웡 교수 : 불교는 분명 미래사회에서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며칠 전 유럽에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 있다. 기독교가 교회에 반드시 와야 한다는 일정한 틀을 신자들에게 강요하는 반면, 불교는 교리는 있으나 틀 속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탈하는 기독교 신자들을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불교를 우연히 접한 이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가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불교가 정신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들에게 접근하고, 사람들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인간관계, 흔들리는 사회에서도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불교신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따라 가능성의 크기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불자들의 역할에 따라 불교의 사회적 위상은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불자, 불교가 현대사회의 문제에 개입, 사회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쿠웡 교수 : 불교가 사회활동과 반드시 연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불교의 사회활동이 불교를 알리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달라이 라마의 경우만 봐도 불교를 모르고 불자가 아닌 사람들도 달라이 라마를 인류의 스승으로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며, 동시에 불교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된다.

– 지멜로 교수 : 솔직히 말해, 서구 사회나 대만, 중국에서는 불교의 사회참여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다. 그러나 사회적 역할이 너무 강조되면 불교의 근본, 정수를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스님과 수행자가 스님과 수행자로 남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정토를 꿈꾼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정토로 가꿔나가는 것이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정토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 불교의 정수를 지키는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불 상(11)

불화인가 불상인가

솔거는 황룡사 벽에 노송도를 그렸다. 어찌나 사실적으로 그렸는지 까마귀, 소리개, 제비, 참새들이 떨리서 보고 날아들다가 앉을 곳이 없어 떨어졌다. 경덕왕 때에는 눈이 먼 희명이란 여자아이가 분황사의 북쪽 벽의 천수관음상에서 빌어 마침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다. 사천왕사 벽화에 그려진 개는 솔거의 노송도를 능가하는 사실성과 기적을 일으켰다. 918년 사천왕사 벽화의 개가 울어 3일 동안 부경을 강설 폴이하여 이것을 물리쳤으나, 반나절도 안되어 또다시 유일한 회화이자 불화인 '대방광불화엄경변상도'(호암미술관 소장)를 연상케 한다.

이 육존불은 바위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최대한 살려 얕은 선각이지만 결코 약하지 않게 표현하였다. 앞에서 가까이 보면 바위의 울퉁불퉁한 면을 다듬지 않고 그 면을 따라 선각으로 새겼다. 선각이 오랜 세월의 풍상 속에 주름진 바위결과 더불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 있다. 언뜻 보면 바위 면을 편편하게 다듬은 것 같지만, 실제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바위 면을 그대로 살린 것이다. 인공적인 것으로 억제하고 자연스러움을 살리는 신라인들의 미의식이 여지없이 드러나 있다.



◇경주남산 삼릉계 육존불은 8세기말~9세기초 사찰벽화의 면모를 간직한 불상이다.

왼쪽 바위에는 서 있는 불상을 중심으로 한 삼존이 배치되고, 오른쪽 뒤로 물러나 있는 바위에는 앉아 있는 불상을 중심으로 한 삼존이 배치되어 있어 대조를 이룬다. 서있는 불상을 보면 몸에 착 달라붙은 옷에 U자형의 주름이 대담하게 흘러 내려오고, 좌우의 보살상들은 한쪽 무릎은 꿇고 앉아 두 손에 연꽃을 받쳐 들고 불상을 향하여 공양하고 있다. 앉아 있는 불상은 석굴암 본존불을 연상케 하는 건장한 체구로 위엄을 갖추고 몸에 밀착된 옷을 입었다. 보살상들은 불상 좌우에 서서 불상 쪽을 향하고 있다. 보살상들은 웃옷을 벗은 채 목걸이와 팔지 정도의 간단한 장신구와 천의를 걸친 모습이다. 간략한 선각의 표현으로 긴장감이 넘치고 탄력적인 형상을 표현한 점에서 통일신라 절정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경주남산 삼릉계육존불은 현재 남아 있는 통일신라의 가장 큰 불화라 할 만큼 회화적인 성격이 강한 불상인 것이다.

거친 바위표면에 선각한 삼릉계 육존불
회화적 성격 짙은 통일신라 가장 큰 佛畵

■경주대 문화재학부

정각향 창시 53주년 맞이 명품!

"알갱이로 만들어진 향 인기 돌풍은 단순한 향기를 넘어 생활속으로 오고 있다."

스트레스 해소는 편백숲이 으뜸 정각향으로 출시

아파트를 숲속으로 정각향이 깨웁니다

- 방안이 지금 숲속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 집중력까지 생각한 향 알갱이입니다. 방안은 이제 집이아니다. 숲속이다 정각향이 깨웁니다.
- 밖에 있어도 안에 있어도 모든일이 잘 풀릴 것 같은 설레임, 정각향이 그 소중함을 찾아 드릴것입니다.

이젠 몸도 머리도 더 맑게 챙기십시오.



차량용 가정용



아로마 알갱이

체험기

경북 팔공산 "ㄱ"기도스님께서 전화를 주셨다.
몸에 피곤을 많이 느껴 쑥이며 참숫이며 좋다는 것을 방안에 나두어 보았으나 변화가 없었는데 정각향을 구입하여 방안에 둔 후 머리가 맑아지고 피곤이 훨씬 덜 하시다 하시면서 일부러 전화를 주셨다.

경기도 김포시
"H"아파트에 사시는 오모씨는 아들방에 두었더니 좋지않은 냄새가 없어졌다며 알갱이 몇알씩을 들고 모임에가서 자랑을 하신다고 하셨다.

사용법

컴퓨터옆이나 침실에 두시고
도자기 투각 뚜껑에 알갱이를 1/3정도 넣어주십시오.
하루 1회 2 ~ 3알을 보충하시고 향기를 취향에 맞춰 양을 조절 하십시오.
자동차 사용시에는 통속비닐을 제거 하신후 하트모양을 열고 닫으며 향 조절을 하십시오.
동봉된 받침반을 이용하셔서 뒷 좌석위 공간에 두시면 최상급자동차 이미지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사용후

100% 자연 알갱이를 버리지 마시고 배게속에 넣어 사용하시면 난초, 솔, 국화, 모과 및 박하등의 21가지 상큼함이 편안하고 아늑한 취침을 도와드립니다.

제조원 세계적인 정각향 알갱이를 만드는 법제력!

입금계좌 : 국민은행 107-21-0904-797 예금주 : 김도헌

KOREA Aroma 알갱이 www.Aromamall.org 고객센타 051)633-4070 / 향장인 직통 011-9384-4801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총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49재, 천도재, 생전 예수재, 바라춤, 나비춤 등 각종 행사에 임시로 스님 필요하신 곳은 연락주십시오
011-9209-5691
051-265-5692
범음범패, 제의식, 염불, 바라춤, 나비춤 배우실 스님 연락주십시오

비구니 스님 부전 구함
법랍 10년 전후 스님을 모십니다
하루 두번 기도 법사 소임입니다
조계종 사찰 서울 성북구 소재
02-943-0851

천도재, 점안식, 예수재
각종 행사에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387-0361
016-428-6665

기도하며 스님 공부하고 역학도 배우실 처사님과 공양주 보살님 구 합 니 다
041-857-8606

비구니 부전 스님을 모십니다
▷ 의상봉 북한산성 입구
02-387-3216

공 양 주 (급)모십니다
(50~60세 사이)
02-386-0926
011-286-0308

주지소임이나 부전소임을 찾습니다
승납 18년, 속납 43세 비구승입니다
포교에 자신있습니다
연락하여 주십시오
016-677-7971

유 명 침 구
♥ 저희 업체는 침구류 제조 업체로서 제 상품은 물론 사용하시던 제품을 보료, 방석, 이불, 요, 솜을 살균 소독 재생하여 맞춤, 제작하여 드립니다.
♥ 제품 하나 하나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02)998-1717. 011-702-2015
02)999-1717. 011-320-6296

참신한 공양주 모심
화정 광명사찰
(숙식, 출퇴근 가능)
031-978-9782

40대초반의 법납 18년 되는 스님(비구)입니다
운영이 어려운 사찰(암)이 있으시면 믿고 한번 맡겨 주십시오
연락바랍니다
016-677-7971

부전스님 모십니다
▷김해 대동
011-693-7742

비구니(40대)스님 모십니다
단, 사찰은 개인사찰로써 스님이 연로하셔(69세 비구)장래사찰을 양도해줄 건실하고 성실한 비구니 스님을 찾고 있습니다.
사찰 재정은 건실함
동양철학을 아시는 분이나 포교에 관심있는 분
041-337-6348

암자, 포교당 같이 운영할 스님, 법사, 보살님 모심
(단, 적립금 2천5백만원 보관 필요)
암자, 포교당은 서울과 의정부에 있음. 10억 들었음
02-3436-0797
019)9108-090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세이상, 청 주
女행자 모집
011-459-3282

조용한 암자에서
(37일, 100일, 1년) 개인 기도 하실 분
특히, 정신적 피로와 육체적 고통으로 문제가 있는 분
063-537-2448

時間易法
사주없이 시간만으로 간편하고 쉽게 인간의 모든 길흉화복을 점 할수 있는 時間易法을 개인지도합니다
016-366-9182

산사에서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5세이상
011-696-8500

조계종
비구니스님
대이을 스님 구함
017-260-6577

절 도량일을 돌보면서 봉고차 운행하실분
(숙식 제공)
051-542-463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인 천
032-765-8698
032-772-7029

진흥 단식원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산좋고 물좋은 곳 요양할 수 있음
사찰에서 운영하는 곳
054-874-4670
011-534-4670

체력보강제와 위장약을 불자님들께 원가에 드립니다
소화, 위장, 설사, 하복통, 구역질, 소화계통 일절, 오래된 위장병, 체력이약하신분 자신있음
1개월분 5만원 대도한의원
011-392-4984

각 의식 행사에 임시 스님 필요한곳(전화요망)
- 천도재, 49재, 각종 시식, 점안의식, 상가 염불, 각종 불공, 민속학 등
- 범음 범패, 바라춤, 나비춤, 각의식, 염불 배우실 스님 모집 中
02-939-3327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콕 !
찝어내는
오방철학관
☎ 02)763-5678

천도재 구병시식 수자령 영가천도
● 수시 접수 中
● 수자령 영가천도재는 9月예정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한새올 – 생활법복, 승복
생활법복과 승복전문 제조사 한새올에서 전국대리점 및 취급점을 모집합니다
www.hansaeol.com
051)644-6624
017-544-6020
※홈페이지 제작 및 쇼핑몰 제작

제 적 공 고

· 승려번호 : 10007 · 법명 : 법정(양재동)
상벌법 제 18조 8항과 11항에 의거
위 제적을 공고합니다
불기 2547년 10월 7일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장화사 · 법명 : 경 탑
·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장동2리 502-3
귀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과
맞지않아 탈종을 공고합니다
불기 2547년 10월 15일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대성정사 · 법명 : 월광(김영환)
· 주소 : 제주시 이도2동 412-11 2층
위 사찰은 대한불교일붕선교종의 종지 종풍과
맞지않아 탈종을 공고합니다
불기 2547년 10월 18일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수 인 작 법 사 주 팔 자

강의와 교육으로만 성취되었던 수인작법이 수수리 수인작법 책으로 발간되어 나왔습니다
■ 자신과 인연된 모든 수치에 대해 여러분들은 이 책 한권으로 인해 눈밝은 이로 다시 성장될 것입니다
■ 우주의 조화를 품고 있는 천리도수
■ 천기로만 묻혀있던 신비의 수치세계를 열어보입니다
※공부를 원하거나 책을 구입하실 분은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조계사 가까운 곳 [책방 여시아문]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금주 : 이광래 (국민 093-21-0592-051)
031)633-1517. 016-213-5451

매 화 역 수 강 좌

매화의 맑고 독특한 향처럼 오직 수리학(1~9)으로 운명을 관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매우 재미나고 쉽게 배울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 개강 일정 : 2003. 10 10 주1회 금요일 (주,야간반 . 1개월 완성)
▶ 강사 : 매화역수 명리학 교과서 저자 직강(교재무료)
▶ 장소 : 화암빌딩 402호 (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사암침술학회 011-307-2975. 02)355-8312

눈

안구 건조, 눈물, 충혈, 피로, 눈곱, 눈물
침침함, 눈부심, 희미함, 시력 강화
다른 질병관련 시력 저하된 분
경전을 많이 보시는 스님, 불자님



일본특허 : 2790212 식약청 HSK : 2106909099
미국특허 : 5382714 상표출원 : 2002-5278069-80
◆제조원 : 日本(주)MERCURY-MK(완제품 수입)
눈밝은세상 (02)2237-8004
전 국 지 사 대 리 점 모 집 – 홈쇼핑 홍보준비중
제품정보:http://eye88.hihome.com 한글주소 : 눈밝은세상

계룡산 정통좌경 법사 수강생 모집

◆ 지도 과목 ◆
① 청 ② 고장(장단) ③ 문서(경문) ④ 설경 ⑤ 선거리장단 ⑥ 대금(피리) ⑦ 아쟁 ⑧ 판소리 및 북장단
◆ 컴퓨터 국악인 선생 직접 지도 ◆
· 판소리 전국대회 일상(부산)
· 판소리 전국대회 금상(서울)
· 국악 지도자상 수상
· (사)한국 국악협회 공로상 수상
◆ 수련장 : 경남창원시 정병산(경남도청 뒤) · 국악신문 감사패 수상
지산국악예술학당 055)264-8269. 011-864-8269

행자님을 모십니다

도심 불교 포교의 대명사 능인선원, 국녕사, 등룡사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발 맞춰 함께 정진하실 행자님을 모십니다. 큰 뜻을 품고 자신을 갈고 닦아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행자님들을 모셔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참된 수행자와 전법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참수행에 큰 뜻을 품은 행자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행 자』 · 자격 : 고졸이상 40세 미만 · 신체 건강하고,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대한불교조계종 능인선원 | 능인불교대학
▶문의 : 577-5800 교 202 · e-mail : neungin@chollian.net
H·P : 011-9887-6351, 011-249-3378, 011-898-4680

정 통 풍 수 지 리

▶ 강좌 : 매주 수요일
주간반 : 오후 3~5시
야간반 : 오후 7~9시
[현장지리풍수] 저자 직강
▶ 관산 : 매월 1, 3째주 일요일
▶ 업무안내
전국 유명 명당(穴) 상담
풍수컨설팅및음,양택감정
저희 학회에 오시면 많은 혈처를 관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리풍수연구원 02)762-3330
www.poongsoo.net. www. jiripoongsoo.com

성 수 철 학 원 (학 인 모 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 수강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
(단체는 출장강의 가능)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 사주, 신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 (불교 교리로 푼다)
▶ 전국 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 임.
▶ 전화 감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 위치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시장 네거리 (명당약국 3층)
053)472-4784. 018-531-2237

역 리 학 개 인 지 도 (무 료)

강사 : 대주 스님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02)962-0867. 011-741-0867

2002년도 『현대불교 합본집』 발간!

02)737-0090,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2002년 이전 합본집은 50,000원(발송비무료) 한정 특가 판매

신 비 의 약 알 카 리 수

저희 정토사에서는 약수를 무상보시하고 있습니다
불자님께 가져다 드신후 여러분께서 건강이 좋아지거나 병이 나으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불자님께서 드시고
부처님의 가피로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찾아오시는 길은 홈피에 있습니다
myhome.naver.com/jto3390
www.정토사.com
031-775-3350

志晛易理學研究院

檀園門下生 韓 恩 炅
◆자연 오행과 사상체질 & 수지침 시술법 강의
-오장육부의 기맥혈과 장기 복진법. 맥진법의 자의관리
◆단원역리학강의(초급~연구반)
-이석영 선생 수제자 단원 이병열 선생의 정통 학문
◆생활상담 · 작명 · 택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0-18
현대기림 오피스텔 1004호 (강남역 3번출구)
www.지현역리학연구원.wo.to
(이달의 건강메모)
02)2243-9598. 018-470-63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김천 ● 법당 : 13평 ● 요사 : 30평 ● 부지 : 335평 ● 가액 : 1억7천
● 위치 : 강원 ● 법당 : 15평 ● 요사 : 20평 ● 부지 : 980평 ● 가액 : 1억8천
● 위치 : 충남논산 ● 법당 : 2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713평 ● 가액 : 3억5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위 치 : 서울 근교 ● 부 지 : 840평 ● 법 당 : 60평 ● 건 물 : 200평 ● 납골당 가능. 15억
● 위 치 : 경기 ● 대 지 : 100평 ● 법 당 : 30평 ● 요 사 : 46평 ● 가 액 : 1억8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 진 불 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내 ● 대지 : 80평 ● 법당 : 40평 ● 요사 : 80평 ● 양도가 : 6억 ※ 역사 깊은 도심 사찰임
● 위치 : 경북 청송 소재 ● 부지 : 2500평 ● 법당 : 35평 ● 요사 : 100평 ● 양도가 : 3억5천 ※ 산세 좋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 국 불 사 02) 508-5037/011) 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 치 : 밀양상동 ● 부 지 : 380평 ● 법 당 : 20평 (토굴인법당) ● 가 액 : 1억3천 ※산밑에 아담한 토굴
● 위 치 : 청송 보현산 ● 부 지 : 1500평 ● 법 당 : 20평 ● 요 사 : 30평 ● 가 액 : 10억 ※ 기가 막힌 계곡과 산세
● 위 치 : 논산 ● 대 지 : 600평 ● 법 당 : 45평 ● 요 사 : 60평 ● 가 액 : 7억 ※ 잘 지은 산중사찰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화상방지용 전통 氣항아리 부황

■ 실용실안출원등록 (03-21028) ■



⊙ 화상방지 부황단면도 ⊙



⊙ 부황관자 SET ⊙

⊙ 제품 특징 ⊙
▶ 본제품은 전통항아리 부항의 단점인 화상의 문제점을 보완, 화상방지용특수관자로제작 되어 부항시술시 화상을 입지않고 안전함
▶ 氣 제품으로 특수 제작되어 수맥 및 전자파를 차단하고 몸 안에 독소를 흡착시키는 효과가 뛰어나 혈액순환과 내장기능 운동을 활성화 시켜 진정 이완 · 반사 · 교정 · 효과를 극대화 시킴
▶ 현재 전국 유명 찜질방과 사우나 등에서 성황리 판매 영업중 으로 소자본 으로 창업하여 고수익을 올릴수 있는 유망직종으로 전문샵을 운영할 분 에게는 통증완화 알콜 숙성 방법등 부항요법 무료교육
카히로힐링아카데미 cdhk0514@hanmail.net
031)792-8444. 011-9954-9534

생 활 불 자 정 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사 찰 부 지 (급) 안 내

● 위 치 : 대구 근교 ● 대 지 : 170평 ● 신축(인법당) 20평 ● 요 사 : 30평 ● 특 징 : 주차장완비, 넓은 정원 ● 가 액 : 1억9천만원
● 위 치 : 경기도 광주 ● 가족납골당으로 적합 ● 임산배수형임.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이 뛰어난 곳 ● 총 2500평 ● 가 액 : 1억5천만원
대구 · 영남권 사찰및 부동산 전문 컨설팅
(양도 · 양수하실분 상담 환영합니다) 절대 비밀 보장
해인불사 011)245-5467 / 053)586-0423

사 찰 양 도 안 내

● 대지 : 57평 ● 건평 : 65평
● 1층-요사(거실, 큰방2개, 보통방2개). 반지하-방2개, 주방2개
2층-대웅전(인법당), 주지실
● 위치 : 관악구 신림동
● 가액 : 4억9천만원
● 특징 : ①산밑 청정 도량 ② 사찰앞에 재래식 대형시장을 두고 있어 포교 최적지임 ③ 인구 밀집지역 ④ 교통편리 지역
사찰정보센터 금 강 기 획
02)736-3578~9. 011-789-2255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사찰터 · 암자터 · 휴양지 · 별장터
- 장소 : 충북 단양 향산석탑 인근
- 임야 : 만평(준농림), 전 230평, 전래샘물 有
- 남한강 : 300m, 도로 : 150m 진입로 有
- 적송 : 만주이상(10년생), 낙엽송 : 5천주이상(37년생)
- 송이버섯 매년 입찰 들어옴
- 가액 : 5억 5천만원. 주인 직접.

032)553-8835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의정부시
- 대지 : 100평. 건물 36평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 전세 6500만원

011)671-0987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매여동 팔공산 근처
- 4만2천평. 절터 있음
- 소나무, 밤나무 울창. 계곡 물 좋음
- 대구시내에서 5분거리
- 가액 : 4억2천만원

017)513-6544
053)564-6375

사찰 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연일시장 상가건물 2층
- 평수 : 44평
- 아파트 밀집지역
- 가액 : 9천5백만원

016)522-9996

사찰과명산안내
- 35만평의 명산속에 있는 절경의 사찰! 명산대찰의 불사를 일으킬 곳
- 경북 영천시에 위치한 산 35만평속에 있는 사찰임
- 가액 : 5억원

016)849-598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동국대학교에서 10분거리임
- 대지 : 164평
- 건물 : 법당15평, 삼성각5평, 요사채 30평 (손볼것 없고 주차장 완비)
- 가액 : 9천만원(절충가능)

054)252-7749
017)803-7890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청옥산
- 부지 450평, 대지 100평
- 주위 1천여평 하천부지사용가능(방생법회)
- 요사 5평, 방3,주방,세탁실, 세면실
- 법당10평(비로자나,석가모니불,약사여래부처님)삼존, 최근 아미타삼존불 불사
- 지장 기도 도량
- 가액 : 1억 2천만원

011)9486-8133 / 054)674-8133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상계2동 시장 입구
- 2층 건물 중 2층 30평
- 삼존불, 탱화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 일체
- 가액 : 1천 5백만원

011)202-8288
02)938-3567

토굴대명당지
- 위치 : 여주 점동면
- 대지 603평
- 정남향. 조경완비. 민가없슴
- 최고 풍치. 도로, 개울 접
- 수행 불자 환영
- 가액 : 평당 29만원

018)315-9080

사찰터 안내
- 위치 :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리 687번지
- 평수 : 6천평(대지 120평 포함)
- 가액 : 1억 1천만원
- 교통편 : 중앙고속도로 이용 제천 IC 에서 30분거리
- 주위환경 : 태화산 줄기로 주변 자연 경관 산세가 좋고 양지바른 아늑한 준농림지역으로 사업개발의 저해요인이 전혀 없는 허가조건이 용이한 녹지지역임.
- 적합용도 : 사찰,기도원,납골당,공원묘지, 목장,양계장 등으로 적합함

011)492-6119 / 043)422-1993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두류네거리 부근 인구밀집지역. 위치좋음
- 평수 : 52평
- 방2(大1, 小1), 공양간, 실내 화장실
- 삼존불, 신중전, 영가단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답사후결정

018)747-0408

인가된 교육기관 안내
- 위치 : 서울에서 1시간 40분 거리
- 평수 : 약 375평
- 건물 : 강의실2, 사무실 1
- 특징 : 인가된3개학과 9개 전공설치
- 기타 :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인가. 92년도 불교대학원과정 교육기관
- 가액 : 매매 2억

011)412-8040

포교당 최적지 안내
- 위치 : 종로구 교북동 대로변 최고 요지
- 30평 3층 현재 법회중
- 삼존불, 후불, 신중, 관음 단군 탱화, 영가전
- 종무실1, 식당1, 화장실1, 방1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1백만원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02)385-6708 / 02)417-7625 (주지) 011-761-6231

사찰 안내
-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산수가 수려함
- 위치 : 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갈애바위 하단에 위치하고 국도 1호선 4차선 도로에서 500m 지점 호남고속도로 옆
- 면적 : 25,195평
- 용도 : 사찰, 종중납골당, 가족묘지, 사회복지시설, 실버타운, 정신요양병원, 연수원으로 적합
- 특징 : 계곡이흐름, 전설에 나오는 갈애바위 하단에 위치, 전면에 저수지가 있음, 정남향
- 가액 : 평당 11,000원

011)647-3500

임야(급)안내
- 자연 녹지 9,300평
- 위치 : 경주 위덕대학교(진각종)와 접하고 국도 7호선(우회도로)상에 위치
-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산 43번지)
- 가액 : 평당 20만원(절충 가능)

011)9366-0210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주 순흥면 소백산하. 소수서원 관광개발지 50m. 대로변 풍기에서 7~8분거리. 영주는 15분거리. 위치 좋음
- 대지 295평, 요사 24평(슬라브)
- 임법당 10평(기와). 산신각 2.5평
- 모텔이나 식당터로 아주 좋음
- 가액 : 2억 3천만원

054)632-8177
016)675-2323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여수시 돌산읍내 105번 종점바닷가옆
- 대지 : 507평
- 법당(2층), 28평(1층), 방2개
- 요사채 36평, 공양간 및 방
- 가액 : 1억8천만원

011)609-1106
011)9611-2717.062)529-2717

암자 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 김천, 상주에서 20분 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천3백만원 (집기 일체 포함)

011)462-5275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 인구밀집지역. 포교 적합
- 평수 : 50평. 오존불 봉안
- 법당, 종무소, 방3, 주방, 욕실
- 불구 및 주방 용품 일체 제공
-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3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 6천만원

011)9484-6333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창선
- 대지 : 500평
- 법당 1, 요사채 1
- 가액 : 7천만원

011)579-4166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의성 점곡면 명고리
- 대지 : 110평
- 사리3과, 상단, 중단, 칠성 탱화, 산신탱화
- 삼존불, 용왕, 산신 불상
- 매칸 총집(임법당)
- 가액 : 2천500만원

016)290-6699

암자 안내
- 위치 :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버스 종점
- 여름에 제일 시원한 암자
- 산신각, 약사전, 용왕각 각 별도 임법당
- 대지 : 83평 • 가액 : 8500만원

033)553-6860
011)9790-5515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 평수 : 85평(2층건물 2층)
- 방5개, 욕실2개, 주방大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 도심속의 포교 적지
- 지하철, 버스정류장 앞
- 주차장 완비

011)551-1719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황등면
- 법당 25평(주지실), 요사 50평
- 약사여래입불(조선시대 조성)
- 등기필 300여평, 시유지 1천평
- 시내 인접
- 가액 : 1억 3천만원
- 장난 전화 사절합니다

011)677-8525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 평수 : 2층 약30평(4층건물)
- 가액 : 23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 아주 깨끗함. 아파트 밀집지역
- 재래시장 근접

051)524-8108 / 011)597-6700
011)9531-687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화봉택지 지구(내) 아파트밀집지역(뒤)
- 면적 : 33평(공양간 별도)
- 전세 : 3천만원(월세없음)
- 시설비 : 2천만원(절충가능)
- 장엄 화려함. 즉시 법회 가능 (10년 포교지) 몸만 오시면됨
- 주지스님 전라도 암자로 가는 관계로 저렴하게 양도함

016)234-3184

산사의 포교당
- 위치 : 서울 구로구 오류동
- 법당 : 20평
- 삼존불,후불,신중,칠성, 산신탱화,산신동불
- 요사채 30평 1동, 20평 1동
- 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등산로에 위치. 법회 즉시 가능
- 시유지 500평 점유
- 가액 : 2억5천만원(절충가능) 전세 7천만원(전세도 가능)

011)327-5863

사찰 안내
- 위치 : 산청군 황매산 서편
- 부지 : 약 2천평 밖산 군유지 2만평
- 건물 : 단청한 법당 30평 요사채 2동 , 그외
- 특징 : 지리산 천왕동 안대 동양화같은 최고 명당 비구니선원 적합
- 가액 : 2억7천만원

011)531-1334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 평수 : 70평(최고시설 A급)
-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전세가능)
- 시설비 : 2천만원
- 도심속의 최고 포교 적지 (실제 들어간 비용 1억 5천)
- 대작불사 관계로 인연있는 스님께 보시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 집기류 일체 무상

011)9315-1200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북 중원
- 3층에 30평내에 법당, 상담실, 공양실, 화장실2개
- 보증금 200만원, 월 15만원 (절충가능)
- 시설비 : 800만원

043)857-6996
018)222-7939

사찰(급) 안내
- 위치 : 노원구 수락산
- 부지 : 260평
- 대웅전 24평, 지장전 5평, 산신각 2평, 용왕전 0.5평
- 주지방2, 종무실1, 공양실 大 1, 小 1, 기도방 1
- 가액 : 4억 5천만원(절충 가능)

011)9124-8489

양도 및 교환(급)안내
- 불교용품 백화점과 교환하실 분
- 암자, 사찰, 대지, 기도터
- 내부방4개-주방, 욕실
- 법당 조성 및 살림 가능
- 답사후 가격 절충

02)478-4334
011)9410-0031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 588-19(식물원 입구)
- 평수 : 39평
- 법당, 방2, 주방,욕실,화장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2300만원

011)9238-6626
011)9399-8673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위양리 마을에 인접해 있는 사찰로써
- 자연녹지 임야 2천평
- 사찰년도 70년. 인지도, 지명도 확실
- 요사채,법당-기와골조 현대식 25평
- 산신각 10평, 독립 요사채 5평
- 종각 2평. 2차선도로 인접,주차장 40평
- 가액 : 2억 7천만원(절충가능)

011)564-1217

사찰터 안내
- 명당포교당 본산지터
- 영천 중앙 시내에 있슴
- 평수 : 240평
- 가액 : 4억5천만원

054)337-6127
016)898-4542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소재
- 부지 : 450평
- 법당 및 요사 : 30평
- 산세 좋음
- 가액 : 1억5천만원

011)530-1975

암자 안내
- 위치 : 경북
- 구미 칠곡 산사 임법당
- 보증금 200만원, 1년 350만원
- 창건주 직접
- 인수도 가능함

017)813-9126

포교원 안내
- 위치 : 강북구 수유동 부근
- 55평. 임대. 법당(삼존불,산신각, 108지장보살님)
- 방3개, 주방, 화장실
- 가액 : 7천만원(상담후 절충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 시설완비. 즉시 법회 가능

016)243-1643
02)907-1643

사찰부지 안내
- 서울 근교(강남 45분거리)
- 부지 : 1500평(1,000평 종교부지 허가)
- 산세수려, 수목울창
- 양쪽에 계곡을 끼고 있음
- 교통편리, 도로 인접
- 서울 근교중 최고의 명당터
- 가액 : 5억5천만원

017)438-3377

사찰양도 안내
- 위치 : 경기 이천 장호원 소재 5분거리
- 대지 : 약 530평
- 건평 : 113평, 법당 (27평)
- 법전 요사(거실1, 방3), 식당, 주방, 요사 고시원(방 18개)운영
- 교통 : 전망있는 지정시가지의 산세좋은곳
- 가액 : 답사후 결정

031)643-9051
019)375-9051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신정시장내
- 법당 : 20평
- 요사채 방 1, 친견방1
- 보증금 200만원, 월50만원 (조정가능)
- 시설비 : 700만원

052)276-9798
011)9507-9794

토굴 안내
- 위치 : 부산 기장 바닷가
- 전세 2천5백만원
- 비품 7백만원
- 현재 비어있음
- 경남 고성 사찰 공양주 구함

055)673-6996

사찰 안내
- 대전역에서 걸어서 10분거리
- 대지 42평. 단독 주택
- 보증금 500만원, 월 16만원
- 시설비 50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42)257-6733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인근
- 대지 32평, 건물 1동
- 도로변, 마을 근접, 교통 편리
- 부처님 봉안되어 있슴
- 탱화, 범종, 집기류 일체
- 수행하기 좋은 조건
- 가액 : 2천만원(절충 가능)

011)488-0930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가평 오래된 암자
- 평수 : 한 2500평이상
- 법당1, 요사1
- 산신각1, 용화전1, 용왕전1, 전각2
- 사용료 변동할 수 있슴
- 실버타운,양로원,고아원 상관 없슴
- 평당 : 35만원
- 산세수려, 흐르는 물 좋음

011)9126-2266

사찰(급)안내
- 위치 : 목동사거리
- 60평
- 시내 한복판. 시장 입구
- 가액 : 5천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포함)

02)2645-2445
011)9947-4458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연기군 점동면
- 임야 : 5900평
- 법당, 요사채2, 산신각1, 화장실
- 흙벽돌 목조 법당
- 평당 3만원
- 정남향. 개울. 전망 좋음

02)420-3227
041)863-1489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북구덕천로타리에서 약 5분거리. 구포시장내
- 평수 60평, 방4개. 주방시설 완비
- 삼존불, 신중 탱화, 지장불, 지장 탱화 모셔져 있고 산신탱화. 시설 A급
- 보증금 : 15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2천500만원

055)386-7463
016)355-4264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읍내
- 부지200평중 88평 등기
- 건평 30평
- 목조임법당1, 방2, 주방, 욕실,창고
- 교통 요지. 마을 인접
- 8,500만원(집기일체포함)

055)673-6996
011)879-4791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시청 근처
- 평수 : 50평
- 2층 방 5개, 거실
- 보증금 : 2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3천만원(부처님3분)
- 도심속의 최고 포교 적지

011)9329-4949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
- 대지 : 150평
- 법당11평, 요사채 25평
- 가액 : 1억 2천만원

016)652-754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
- 법당 20평, 요사 20평
- 산신각, 용왕각, 승방1
- 약수물 풍부
- 백년 고찰
- 주지스님 병환으로 양도
- 가액 : 1억 2천만원

016)617-8778

토굴 별장 펜션 안내
- 위치 : 남 덕유산 자락
- 부지 : 1,631평
- 가옥 : 신축 황토 기와집
- 가액 : 5억3천만원(대출 가능)
- 특징 : 맑은 개울과 집뒤의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 주인 직접 살고 관리해 옴

016)367-2112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치악산 자락 계곡이 흐르고 산세가 수려합니다
- 대웅전 36평, 산신각 10평, 요사채 30평
- 대(大)방을 겸비한 욕실, 주방
-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전세 4천만원

033)345-5597
011)771-5597

포교당 안내
- 위치 : 충남 연기군 점동면
- 임야 : 5900평
- 법당, 요사채2, 산신각1, 화장실
- 흙벽돌 목조 법당
- 평당 3만원
- 정남향. 개울. 전망 좋음

02)420-3227
041)863-1489

사찰 안내
- 위치 : 계룡산 • 대지 : 99평
- 건평 : 1,2층으로 50평
- 실사용평수 : 250평
- 마당이 잔디밭, 주차 진입가 대전 유성에서 15분 거리
- 시설 : 1층-방,주방, 화장실 2층-방3개, 불박이장
- 현대식 시설, 공기좋고 산세수려
- 가액 : 1억9천5백만원

042)813-1425 / 016)9838-1425

사찰 안내
- 위치 : 포항 근교
- 조용한 바닷가
- 임법당, 최고 자재
- 현대식 건물 2층
- 스님 기도 휴양처로 최고
- 가액 : 2억 2천만원

011)9372-5977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상인동 대로변 4층 건물 중 2층
- 평수 : 70평
- 방2, 부엌, 화장실, 법당 3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3천만원

011)814-9010

사찰(급)안내
- 위치 : 강북구 수유4동 419탑 옆 부근
- 부지 : 60평7홉
- 건평 40평, 양등기 有
- 인법당, 방3개, 거실 有, 수세식화장실 2칸
- 시설비 5천만원은 스님께 보시함
- 평당 400만원에 매입했슴
- 삼각산을 등지고 수목이 울창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함

011)890-7618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광주시내아파트밀집지역
- 건물 : 3층중 3층. 옥상 사용 가 60평
- 법당 35평, 종무실, 방1개, 욕실, 살림 가능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2500만원
- 스님이 외국절에 가기때문에 급하게 처리. 몸만 오시면 됨. 즉시 법회 가능

011)517-8415

신축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부지 : 사용평수 2백평 중 100평 등기.
- 법당 목조 22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2동, 방3개, 주방1개, 5층석탑
- 바위불상, 다수 민속품으로 경내조성
- 환산의 지기가 집중된 명당터로 270여호마을소재. 옥천 톨게이트 및 대전 국도접 2~3분
- 가액 : 1억 3천만원

043)733-8186 / 011)9405-8186

목어

문화 훈풍, 불교계는 동토



이기선
조계종 성보문화재위원

'아프냐, 나도 아프다'란 유행어를 낳으며 퓨전사극의 열풍을 몰고 온 텔레비전 드라마 '다모'. 이어 임금의 수라상을 비롯한 궁중의 먹거리를 담당한 궁녀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대장금'이란 드라마 역시 인기를 끌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비록 외국소설을 번안한 작품이지만 조선시대 남녀상열지사를 다루었다고 홍보하는 '스캔들'이란 영화가 수백만의 관객을 동원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출판계에서도 교양물 가운데 지난 시대의 생활상을 다룬 도서가 늘고 있다. <생활사 박물관>이란 시리즈도 그렇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와 같은 생활사를 다룬 책들과 최근에 나온 <조선시대 뒷골목 풍경>은 지금까지 역사에서 소외받던 민중의 삶을 다루고 있다. 문학계에서도 <방각본 소설> 같은 작품에서는 조선시대 북학파를 중심으로 한 당시의 문화상과 그를 주도하던 인물들을 재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화계의 현상이 모두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은 주목할만 하다.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역사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그 접근 방법도 다양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그동안 역사학을 중심으로 한 국학관련의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되었으며, 정보화 시대를 맞아 고전이나 각종 문헌자료의 접근과 검색이 수월해진 덕분이기도 하다. 또한 많은 대중들의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새롭고 다양해진 욕구도 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불교계의 현황은 어떠한가. 아직은 동토(凍土)다. 언제쯤 싹이라도 돋아날까.

동 · 서 화합을 위한 방생법회

영 · 호남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 · 서 화합을 위한 방생 대법회를 10월 16일 내장산 내장사(주지 재훈)에서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부산 법연사(주지 조연)와 정읍 내장사의 신도를 비롯한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해 "화합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 시대의 명제"라며 "성불 · 행복 · 자유의 노래를 부르자"고 약속했다. 이어 불자들은 내장저수지에서 토종 참붕어와 미꾸라지 등을 방생했다.

장군죽비

한낮에 도둑맞은 탱화

10월 10일 오후 3시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에 소재한 대성사 법당의 탱화가 없어졌다. 도난당한 탱화는 가로, 세로 각 2m 크기로, 1932년 대성사 창건 때 법당에 봉안됐으나 창건 이전부터 전해 내려온 탱화다. 정확한 제작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120년 이상 된 것으로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탱화는 문화재이기 이전에 성보다. 밀거래를 위해 성보를 훔치는 행위가 지속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불자 세상보기

윤세원
인천전문대 정치학 교수

화살을 다섯번 맞지 말자

우리나라에는 5년을 주기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특이한 정치적 전통이 생겼다. 그것은 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마다 청문회다 무어다 해서 아주 정기적으로 홍역을 치룬다는 사실이다. 부정축재와 국가권력에 의한 혈세의 부적절한 사용 그리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엉망으로 만드는 비자금 문제 등이 뒤섞인 부패문제가 한결같은 내용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도덕적 기준의 강화나 제도개혁을 통한 구조의 개선이라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일회성 이벤트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고질적인 부패구조를 즐기면서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들어 갔고, 국민들은 돈과 계파정치에 대한 절망감으로 정치적 무관심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퇴임 할 시기가 가까워지면 낡은 유성기는 똑같은 소리를 내면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퇴임하는 대통령이 국가의 원로가 아니라 범죄자가 되어 국민에게 사과하고 산 속으로 혹은 감방으로 향하는 비극을 되풀이 해야 할 것인가. 부처님은 같은 화살에 두 번 맞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같은 화살에 4번이나 맞았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까지 어리석은 국민들인가 하고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와중에서 바로 다음 번에는 자신들의 집권을 확신하는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이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는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누구 할 것 없이 입으로는 요식적 수식어로 국민을 들먹이면서도 내심은 집권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도 보고,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만져보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내용의 사건이 전혀 다른 시기에 다른 양상으로 문제가 되었다.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말도 아닌 때에, 측근의 비리 문제를 스스로의 도덕적 기준으로 정치 쟁점화 시킨 것이다. 대통령이 전임자들처럼 최소한 자신의 임기 동안에는 차일피일 미룰 수 있는 일을 일찌감치 스스로 민의의 도마 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국민투표라는 방법으로 쉽게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던 이 문제가 위헌 가능성이니 탄핵이니 국정공백이니 막대한 재원 소요니 하면서 다시 꼬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지적들은 일면적인 타당성을 갖는 것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주장자들의 행보에는 공동체의 장래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정략적인 발상만 보인다는 점이다.

이제 정치권은 정치적 쟁점에 대한 구태의연한 대응양식을 버리고, 위장의 가면을 벗어야 한다. 소수의 엘리트 그룹이 국민을 기만하고 명예와 부와 권력이라는 기득권을 끼리끼리 독점하는 시대는 끝났다. 물론 거의 5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지배질서와 세력의 전면적인 교체에 따른 박탈감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대감은 버려야 한다. 승패는 국민이 결정할 일이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세상과 민심은 무상한 것이다. 과거의 황금시대에 대한 향수에 근거한 아상은 빨리 버릴수록 좋을 것이다.

계기야 어떻게 되었든 정치권은 이 기회를 고비용의 정치구조에서 연유되는 부패사슬을 청산하고, 국가적 불행의 근원을 제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같은 화살을 다섯 번이나 맞는 우를 범하게 될 정략적 꼼수와 보신주의적 대처에서 벗어나길 간곡히 바랄 뿐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마당 〈현대불교〉에 바란다

기쁜 마음으로 권할 수 있는 신문 되세요

생생한 현장 목소리 담아주세요



황수경
서울 북아현3동

<현대불교>를 빠짐없이 챙겨 읽는 애독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현대불교>에 불자로써 고마움을 전한다.

<현대불교>에서 처음 시도한 섹션 발행은 독자들에 대한 배려라 생각한다. 바쁜 업무로 일과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기사를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모든 기사를 읽는 것도 좋겠지만 일과에 쫓기다 보면 모두 읽지 못하고 한 주를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독자의 입장에서 <현대불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코너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신행상담'과 NGO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코너가 있지만, 많이 빈약하고 핵심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불자들이 평소 궁금해 하는 가벼운 주제로 신행 · 봉사 · 복지 · 포교 등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담았으면 한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불전함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제각각이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불전함,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사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과 일반 불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싣는다면, 불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하나, 젊은층을 위한 코너를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 특히 인터넷 '붓다뉴스'에 젊은층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코너가 신설되었으면 한다. <현대불교>의 젊은이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투자가 불교의 미래를 밝게 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청년소식, 감동스토리 적어



강봉군
제주 용담동

창간 때부터 9년째 신문을 보고 있는 청년불자다. 먼저 <현대불교> 창간 9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 더 좋은 신문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 솔직히 신문을 보면서 관심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본다. 대행스님의 법문을 비롯해 큰스님 지상법문 등 신문의 내용이나 구성 면에서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불교>에 청년회 활동에 대한 기사가 적은 점은 아쉽다. 청년회 활동을 하다 보니 다른 지역과 사찰에서는 청년법우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가 궁금할 때가 많다. 앞으로는 젊은이들이 불법을 공부하는 방법이나 실천해 나가는 모습에 대한 기사를 많이 실어 줬으면 좋겠다.

또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사도 보고 싶다. 신행단체나 사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보면, 불자들이 직접 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많다. 게시판에 올라온 불자들의 신행경험담이나 삶의 이야기들을 싣는 코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불교계의 선행사례도 많이 발굴해 주길 바란다.

지금까지 9년처럼 앞으로도 불교 발전에 힘쓰는 <현대불교>가 되길 바란다. <현대불교>가 주위 불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권할 수 있는 신문, 불자들에게 사랑받는 신문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은 독자들의 공통된 바람일 것이다.

종단 소식, 불자들의 생활, 교양, 문화, 문화재, 학술 등 독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내용을 깊이 있게 전하는 <현대불교>를 매주 기다리는 독자들이 있음을 잊지 말기를….

독자와 함께하는 코너 많았으면



손지연
서울 양재동

다른 신문보다 <현대불교>를 더 꼼꼼하게 보는 편이다. 전체적으로 불자들에 대한 정보가 다양하고 볼거리가 많기 때문이다. 평소 독자들이 접하기 어려운 한마음 선원 대행스님이나 큰스님의 말씀과 지방 산사의 행사 소식이 많아 알차다고 느꼈다.

신문을 꼼꼼하게 보다보니 평소 <현대불교>에 바라는 점이 몇 가지 있었다.

먼저 생활불자 소식란은 따로 찍어냈으면 좋겠다. 사찰안내, 공양주 보살 모시는 광고, 사주 · 역학 광고 등 이 신문 한 가운데 있어 항상 눈에 걸렸다. 광고 속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 별도로 분리해 보기 쉽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또 부처님 일대기에 대한 삽화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타 종교의 그림과 비슷해 불자들에게 거부감을 준다. 신문을 보고 주위에도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신문을 본 다른 불자들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독자들이 부처님 일대기 삽화를 얼마나 볼까. 다른 각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보길 바란다.

이외에 해외 불교 성지에 관심이 많아 인도그림기행을 잘 보고 있다. 해외 불교 성지에 대한 소개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심 있는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여줬으면 좋겠다.

기사로 접한 국 · 내외 유명한 불교성지를 직접 순례하고 전문가의 설명을 듣거나, 산사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도 많았으면 한다.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파동명상 요법」에 대하여

모든 존재는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삼라만상은 진동하고 있고, 제각기 고유한 주파수를 발하고, 또한 ***저마다 독특한 파동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황도대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보병궁시대의 입구에 위치해 있는 이 시대는 영적靈的개화의 시기로 인간의 마음이 열려서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교신의 실재성을 받아들이는 시기이다. 따라서 산 자와 죽은 자의 교감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영성靈成의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몸이 있고 없음으로 나뉘어 지고 영혼이 입는 외피가 육체라고 할 때 그 물질의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파동의 주파수는 항상 우주공간에 존재한다. 그래서 TV나 라디오 채널을 맞추기만 하면 온갖 방송을 다 듣고 볼 수 있듯이 파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주파수에 채널을 맞추기만 하면 무엇이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를 살다간 수많은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고유한 파동의 주파수에 채널을 맞출 수만 있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알 수 있으며 또한 볼 수 가 있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영적 현상인 빙의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파동음을 들려주면 그 사람의 몸 속에 숨어 있는 빙의령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때 그 존재들을 다루는 방법만 공부하게 되면 구병시식이나 제령, 천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혼요법이다. 또한 ***파동명상을 통해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자가 가지고 있는 파동의 주파수대가 높아져 영적능력이 향상 발달되며 수행자의 근기根氣에 따라 영통을 이룰 수 있어 중생을 제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파동명상제령 :** 제주(祭主)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원격명상제령 :**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교재 :**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수련일시 :** 10月 27日 ~ 11月 1日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 可, 전화문의 바람)
① 파동명상 전문반 :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6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 상담 후 결정

동방파동명상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새로 조성될 고려대장경 동판 경판 견본. 경판 1장의 무게는 목판(3.5)보다 무거운 4.5 이며 목판색에 가까운 진밤색이다.

합천 해인사에 소장 중인 국보 제32호 목판 고려대장경이 동판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해인사(주지 세민)는 10월 16일 새로 조성하고 있는 신행문화도량내 판전법당에 8만1258장에 이르는 고려대장경을 동판으로 제작하여 2005년까지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팔만대장경 동판으로 조성

해인사 2005년까지, 11월 17일 고불식

"국가적 문화재, 국민들 십시일반 동참을"

2장 1세트 … 사찰 · 가정에 나누어 봉안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은 "해인사 고려대장경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군신과 유생, 불자, 토속신앙인등 불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동참한 국가의 문화재인 만큼 일반인이나, 타종교인들까지도 십시일반 동참을 요청한다"며 "11월 17일께 고불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몽골의 침입으로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면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고려 고종 23년(1236년)부터 16년의 불사끝에 완성한 고려대장경이 새롭게 동판으로 제작되는 것이다. 현재 목판의 수명은 233년밖에 남지 않았으며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활용도 쉽지 않는 상태다. 해인사는 이번에 새롭게 조성하는 동판 대장경은 일본 신수대장경과 중국 대장경 등에서 빠진 경전과 고려조까지 역대 조사스님의 어록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가로 69.7㎝, 세로 24.2㎝, 두께 3.6㎝의 목판 크기로 제작된 동판 고려대장경은 인청동(인이 첨가되어 산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동)을 사용하여 1만년이상 보존이 가능하다. 동판대장경 제작은 우연MS(주)가 맡았다.

해인사는 고려대장경 동판을 2개 1세트로 제작해 한 장은 사찰에 모시고, 다른 한 장은 집에서 모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055)934-3031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지율스님과 도롱뇽의 친구들이 소장을 부산지방법원에 접수하고 있다.

"천성산 도롱뇽을 살려주세요"

전국 비대위, 원효터널공사 금지 가처분신청

인간이 아닌 도롱뇽이 원고가 되는 '도롱뇽 소송'이 시작되면서 천성산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이하 천성산 전국비대위)는 10월 15일 도롱뇽과 그 대리인 '도롱뇽의 친구들'을 원고로 부산지방법원에 경부고속철도 13공구 원효터널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서를 냈다. 천성산 전국비대위는 법무법인 청률을 통해 "피신청인 한국고속철도공단은 서울-부산 경부고속철도의 구간 중 13공구 안에 시행될 원효 터널공사(13.5m) 및 기타 이외 부수된 공작물의 설치 등 일체의 공사를 착공하여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공사착공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롱뇽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지율스님을 비롯한 3인의 신청인은 "환경영향평가에서 고의 혹은 과실로 누락된 각종 법정 보호종들과 뭇 생물종의 권리를 회복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법률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소송 제기의 이유를 밝혔다.

소장에는 신청인 도롱뇽의 생활근거지인 천성산 일대를 관통하는 원효터널 공사와 관련 △사업계획 승인의 위법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및 절차상의 하자 △전통사찰보존법 상의 전통사찰 대표자와의 협의 및 문화체육부장관의 사전 동의절차 생략 △습지주변관리지역, 생태계특별보호구역 내 제한 행위에 대한 협의 절차 흠결 등을 들어 공사가 착공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남겨 있다.

이처럼 도롱뇽 소송이 본격화되자 천성산 비대위는 11일 도롱뇽의 날 선포식을 갖고 여론환기에 나서는 한편, 향후 도롱뇽 캐릭터 개발, 도롱뇽 소송 후원인 모집, 재정 마련을 위한 불자 후원인 모집 등으로 관심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2천5백여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하는 모습.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대웅전 상량

조선 초기양식 … 덕수궁 중화전과 흡사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스님)은 10월 12일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뉴욕, 대구, 광주, 강릉 등 지원의 지원장 스님과 신도 등 2천 5백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이날 상량식은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상령 의례, 상량 발원문, 상량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지원장 혜도스님은 상량 발원문을 통해 "오늘 깊고 간절한 마음의 불씨 한데 모아 발원하오니 원컨대 이 법당 세세생생 마음의 불씨 이어가는 도량으로, 일체 생명 해칱하는 우주법계의 근본 도량이 되게 하여 지이다"라고 원만한 불사를 발원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대웅전은 조선 초기 전통 건축 양식으로 건립되고 있으며, 덕수궁 중화전과 흡사한 5량 팔짝 지붕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인 대목장 최기영 씨가 맡아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천미희 기자

용산사 수행환경 파괴

선학원, 법적대응 나서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청도 용산사 수행환경 파괴와 관련한 피해보상 요구가 묵살되자 불교계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재단법인 선학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제4공구 도로공사를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최근 접수했다.

선학원은 신청서에서 "사찰은 종교적 문화적 특수성을 갖고 있다"며 "도로가 건설되면 지속적인 소음과 먼지, 환경훼손으로 인해 사찰기능이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초산유원지 개발 백지화 하라"

지석스님, 양산시청앞서 무기한 단식

'초산유원지 개발을 완전 백지화하라'라는 문구를 뒤로하고 지석스님은 양산시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 중이다. 15일로 단식 10일째다.

통도사환경위원회 소속 스님들이 초산유원지 공사 현장을 막고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원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통도사 강원 학인 지석스님이 단식에 들어간 것이다.

1만 3천 평 규모로 파헤쳐지고 있는 초산유원지 공사 진행을 막기 위해 통도사 환경위원회 스님들은 매일 공사현장에 나가 공사를 막아왔고, 지석스님도 매일 1천2백배를 하며 공사를 막는데 힘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시공업체는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통도사 환경위원회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었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양산시청 앞에 텐트를 치고 단식중인 지석스님은 "한국불교의 정신적 성지인 통도사 인근에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위락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불교문화 탄압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허가 당사자인 양산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돼 양산시청 앞에서 단식을 시작했다"고 단식 이유를 밝혔다.

지석스님은 또 "29만평으로 계획된 초산유원지 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될 때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천미희 기자



◇초산유원지 개발 백지화를 위해 양산시청 앞에서 단식중인 지석 스님.

첫 한 · 일 어린이 불교심포지엄

'한국삼보사찰 · 5대적멸보궁' 주제 발표

한 · 일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한 · 일 어린이 심포지엄에 부산 금화사 초등불교학교(학교장 최광호) 소속 학생이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한국불교삼보사찰과 5대 적멸보궁'이라는 발표로 한국불교를 알리고 돌아왔다.

일본 초등학생 12명, 한국 초등학생 16명이 참석한 한 · 일 어린이 심포지엄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일본 후쿠오카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로 다져진 한일 우의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해 부산한일교류협회와 후쿠오카 국제 교류협회가 함께 마련한 심포지엄은 '역사 만남 미래'라는 주제로 양국 어린이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한국대표로 참석한 금화사 초등불교학교 남우현(구서초등 6) 학생은 '한국불교삼보사찰과 5대 적멸보궁'에 관해, 이규찬(해운대초등 5) 학생은 '한국과 일본의 불교문화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한일 양국의 역사 속에 녹아있는 불교문화를 조명했다.

최광호 법사는 "내년에 한국에서 '제32회 한 · 일 어린이 불교심포지엄'이 열린다"며 "심포지엄은 양국의 불교문화 공유를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월산대종사 열반6돌 불국사서 사리함봉안



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성림당 월산대종사 열반 6주기를 맞아 불국사에서 10월 14일 사리함 봉안식이 열렸다.

월산스님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봉안식은 불국사 회주 성타스님, 법주사 회주 혜정스님, 불국사 주지 종상스님, 월산문도회 등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불국사 사천왕문 옆 부도탑 공사현장에서 봉행됐다.

사리함은 전통금속공예가 최광웅씨에 의해 3년여에 걸쳐 정교하게 제작됐으며, 사각형의 금제 사리함에 넣어져 둥근 공이 범종을 둘러싸고 있는 형상의 대형 부도탑에 봉안됐다.

박원구 기자

뿌리 깊은 종단, 화합된 모습으로 보람여는 교구

대한불교 조계종 제 25교구 본사

봉선사 주지 철안스님 취임법회

삼보에 귀의 하옵고,
종단의 대덕 큰스님과 사부 대중의
격려 속에서 주지 취임 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취임법회는 단순한 주지 취임
법회가 아닌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법석으로 만들고저 하오니 두루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화환이나 화분을 쌀과 김장으로 대신합니다.

이번 취임법회에서는 우리 주변의 소외받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기로 발원하였습니다.
그동안 관례화 되었던 화환, 화분 등 축하용품은
절대 사절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올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쌀과 김장으로 대신하기로 하였으니,
이 뜻을 헤아려 주시고 많은 동참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47(2003년) 10월 24일(금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남양주시 봉선사 큰법당
■ 문 의 : 전화 (031) 527-5974, 1951 / 주지실 (031) 527-5972
■ 동 참 금 : 쌀 1가마 일십만원 / 김장 1독 칠만원
■ 계좌번호 : 농협 204064-51-001470 / 예금주 : 봉선사 종책연구실
■ 제 25교구 본사 봉선사 종책연구실 : (031) 527-3224

대한불교조계종 제 25교구 본사 주지 취임법회 준비위원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 우편번호 : 472-864 팩스 : (031)527-1958

*동참자 명단은 11월 7일자 불교신문에 게재합니다.

“산보다 높은 인천불심”



◇2천여 인천불교산악인 연합회원들이 12일 강화 전등사에서 열린 연합회 발대식에서 합장 발원을 하고 있다.

인천불교산악인연합회 12일 창립

40여 사찰 2천여 산악회원 참석

1만회원 확보 환경활동 등 전개

지역 단위로는 최대 규모의 산악인불자회가 창립됐다.

인천불교산악인연합회 창립추진위원회(위원장 계성, 이하 연합회)는 10월 12일 강화 전등사 앞마당에서 인천 지역 40여 사찰 2천여 산악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연합회 결성은 침체된 인천불교 활성화와 지역 불자 역량을 결집하는데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발대식에서 전등사 주지 계성 스님은 “산악인 연합회 출범은 모래알처럼 흩어진 불자들을 한데 묶어내는데 의미가 있다”며 “인천 지역에 새로운 불교바람을 일으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황룡사 주지)도 “우리 불자들에게 인천불교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대승불교, 봉사불교, 복지불교 실천에 앞장서는 산악인연합회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병조 인천불교산악인연합회장은 취임 인사말에서 “실천이 없는 불교는 더 이상 불교가 아니다. 이제는 인천불자들이 직접 나서서 불교의 최고 가르침을 펴야한다”며 “앞으로 황폐화된 산을 보호하고 불교문화를 지키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우선 첫 행사로 ‘산사랑’ 환경보호 캠페인을 오는 11월부터 전개하기로 하는 한편, 연말까지 1만 명 회원 확보를 목표로 인천 지역 400개 사찰에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화 전등사=김철우 기자



힘 모으면 수확의 기쁨도 두배

봉선사 가을 벼베기 운력

10월 13일. 가을비가 그치자 봉선사(주지 철안) 사부대중들의 일손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절 앞의 논에 누렇게 익은 벼를 베기로 한 날이기 때문이다. 콤바인을 불러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대중들이 힘을 모아 벼베기를 하며 수확의 기쁨을 함께 하기 위해서이다. 벼베기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벼가 잘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의 의미를 되새기며 운력에 동참했다.

남양주=고영배 기자

천불천탑 운주사 축제한마당

전시·공연·체험·학술행사 등 다채

천불천탑으로 유명한 화순 운주사 일대에서 사찰과 지역민이 하나되는 축제 한마당이 열린다.

운주사와 화순군, 도암면 번영회 등으로 구성된 운주축제추진위원회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새로운 시대의 발견-잃어버린 공동체를 찾아서’를 주제로 불교문화와 지역문화가 어우러지는 ‘2003 운주축제’를 개최한다.

삼보일배로 운주사 경내 108m를 도는 ‘운주사 삼보일배’와 ‘와불 세우기’를 메인 상설행사로 열리는 운주축제는 전시, 공연, 체험, 학술, 관광 등 분야별 32가지 단위 행사로 구성된다. 특히 운주사 옛 모습을 담은 사진전(10월31일~11월2일)과 21세기 미륵이야기 설치미술전(10월31일~11월2일), 운주사 초막 복원(10월31일~11월2일) 등 불교문화 행사와 국악 한마당(11월2일), 도암 도장 밭노래(11월2일), 마당극 양반놀이(11월1일), 한천농악 시연(11월1일) 등 지역 전통문화가 어우러져 주민과 운주사가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난다.

학술 행사로는 11월 1일 오전 10시 ‘21세기에 바라본 운주사와 미륵’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며, 만등불사, 소망기 달기, 점토·판화 천불천탑 만들기, 사찰음식 시연, 디카콘테스트 ‘내가 만난 부처’ 등의 다양한 체험마당도 준비된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불연 이기영 박사 추모비 제막

‘없는 것이 지극한 이치요 그렇지 않은 것이 크게 그러하다’ 〈추모탑 비문 내용 중〉

재가불자 지도자였던 불연 이기영 박사 7주기 기념법회 및 추모비 제막식이 11월 9일 오전 11시 곤지암 유마정사에서 열린다.

이기영 박사는 1922년 황해도 봉산에서 태어나 벨기에 루벵대학에서 불교학 박사를 받았다. 1960년 귀국한 후 동국대학교에 인도철학과를 창설하고, 원효사상 등의 명저를 저술하는 등 한국 불교학을 현대화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또한 재가불교 육성과 보살정신의 생활화에 힘쓴 실천적 종교인이다. 박사는 1996년 11월 별세했다. 문의:02-3411-6167

남동우기자

원주 구룡사 대웅전 원형복원

최근 화재로 소실된 원주 구룡사 대웅전이 원형 복원된다.

구룡사(주지 원행)는 10월 24일 오전 11시 대웅전 원형복원 신축기공대법회를 개최한다.

구룡사 대웅전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거 사업비 15억원(국비 7억, 지방비 7억, 자부담 1억)이 소요되며, 2004년 4월까지 복원된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4호인 구룡사 대웅전은 보관중인 실측설계도에 따라 정면 3칸, 측면 2칸, 외3출목 내3출목 약 28.6평 다포양식으로 건립된다. 전체 구조를 ㎜단위까지 측정한 수십장의 도면으로 만들어져 있는 구룡사 대웅전 실측설계도는 건축양식은 물론 구조와 재료의 크기와 질, 색상, 단청 모양, 집기류 배치도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원행스님은 “대웅전을 원형복원해 국민의 심신수련과 국립공원 이용객의 참배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우기자

우리 절 우리 신도

“희망찾은 절, 봉사로 회향”

오산 선불사 신장호 신도회장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에 위치한 선불사(주지 대운, 본원종 중앙종회의장)는 쌍두마차가 이끌고 있다. 주지 스님과 신장호 신도회장(58, 본원종 전국신도회장)이 그들이다.

신 회장은 아침에 일어나면 등산을 한다. 등산 후 매일 절을 찾는다. 바쁘면 절 일주문에서 기도라도 하고 간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



신 회장은 선불사 창건 때부터 인연을 맺었다.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신 회장은 사업 실패로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인까지 이름모를 병으로 몸져누웠다. 신 회장을 방황했고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이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장모님의 손에 이끌려 선불사를 찾았다.

원래 신 회장은 개신교 신자였다. 젊은 시절 감리교, 장로교, 통일교 등을 전전하며 구원을 받으려고도 했다. 그러나 피 끓는 젊음은 그를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만들지는 못했다. 자신의 젊음과 능력을 더 믿었기 때문이다. 그 덕에 신 회장은 아직도 개신교 목사들과 친분이 깊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종교의 나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어떤 종교라도 가지면 삶이 윤택해진다고 충고할 뿐이다.

선불사를 찾은 신 회장은 주지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주지 스님의 말을 좇으며 희망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결국 부인의 병은 완치됐다. 그 후부터 신 회장은 ‘선불사맨’이 됐다.

15년 전부터 신도회장직을 맡은 신 회장은 7년 전 요사채 공사 할 때는 3개월 동안 매일 절에 ‘출근’하면서 일일이 공사를 지도·감독했다. 내 절이라는 신념 때문이다. 젊은 시절 몸으로 부딪치며 배웠던 것들도 이 때 많은 도움이 됐다.

신 회장은 사회 회향의 방편으로 오산중·고등학교와 오산대학교 육성회장직을 역임했다. 또 오산제일신용협동조합 창립위원으로도 참가했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니 이제는 더 바랄 게 없다”는 신회장은 “지금 현재로도 만족합니다. 신도들을 위해 주지 스님만 건강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지역발전에 헌신하는 ‘영원한 선불사맨’

내 절이라는 신념으로 출근하며 불사 지도



대운스님
선불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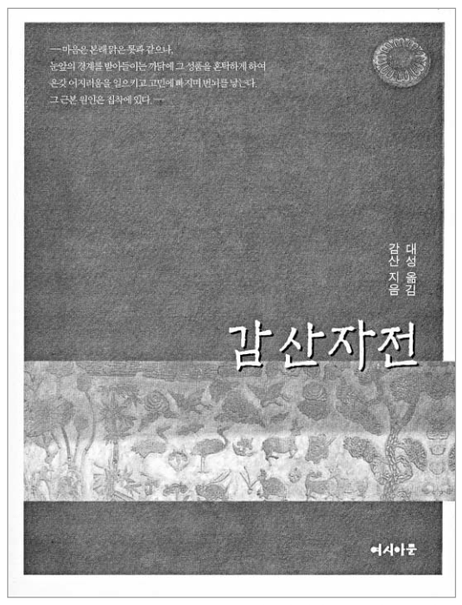
추천의 말

누구보다 강한 절 사랑 보여

신 회장은 신심이 강할 뿐 아니라 절일을 자기집처럼 모든 일에 솔선수범 합니다. 절을 처음 찾은 사람은 신 회장을 사무장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신도관리부터 종무행정까지 신 회장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사채 불사에서도 보여줬듯 신 회장의 마음 씀씀이는 제 그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신 회장은 선불사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신 회장 역시 늘 건강하길 기원합니다.

감산대사 수행일대기 한국 초역



신국판 변형 248쪽 값 8,000원

마땅히 가야 할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옛어른의 공부 길...

하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 이자전自傳의 원제는 『감산노인자서연보실록憨山老人自序年譜實錄』으로, 감산스님이 자신의 평생사平生事를 기술한 일종의 자서전이지만, 문학적 전기傳記라기보다는 년年 단위로 주요사건을 기록한 개인적인 행적의 기록에 가깝다.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 주로 저자 자신의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는 대목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시기의 이야기들은 주변 인물들과의 구체적인 대화나 사건 전개를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당시의 정황을 생동감 있게 전해 주고 있다. 특히 젊은 시절 깨달음을 열어 가는 이야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

사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도(道)를 말할 수 없다. 대저 만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소유하지 않으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사물을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사물을 추구한다. 사물을 추구하는 자는 사람을 잊기 쉽다. 사람이 없는데 누구와 더불어 도를 말하겠는가? 사물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지은이 감산 (憨山, 1546~1623)스님은 운서 주굉, 자백 진가, 우익 지욱과 더불어 명대의 4대 고승으로 일컬어진다. 12세에 출가하여 19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1581년에 오대산에서 무차회 無遮會를 열어 법을 설하자 5백여 명의 대중이 모였다. 1597년에는 조계曹溪에 머물면서 선禪을 부흥시켰다. 1616년에는 여산廬山 오유봉에 법운선사法雲禪寺를 건립했고, 1622년에 조계로 돌아와 다음 해에 입적했다.

옮긴이 대성 (大晟)스님은 1989년 순천 송광사로 출가했다.
『참선요지』와 『방편개시』(여시아문)를 우리말로 옮겼으며 최근에는 라마나 마하르쉬관련서적들을 ‘아루나찰라 총서’(탐구사)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02-732-1521 / Fax 02-737-0696



茶가 있어 즐거운 삶... 꽃피고 물 흐르듯



다선가마 다기

수제다기

세월이 흐를수록 정감가는
다기를 만들기 위해
20년 동안 매진하고 있습니다

- 수제다기 한정생산
- 그림있는 접시
- 다완

작품만드는 곳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송림리 208번지

휴대폰 018-315-9080
전화 겸용 팩스 031)883-9080
E-mail:dasundr100@yahoo.co.kr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몰슬 익혀 정성으로 우려낸 풍은 차 향기가 초막에 가득함이 참으로 좋다

茶 동산불교대학 다도학교 禪

불교茶人 양성을 위한
기본과정,지도자과정

신입생
모 집

1. 교과목

학 과	요 일	기간	개 설 과 목	비 고
기본과정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2년	한국차문화사, 중국차문화사, 일본차문화사, 유럽차문화사 제다학(1), 제다학(2), 제다학(3), 제다학(4)	기본과정 30명 지도자과정 30명
지도과정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2년	한국의헌다례, 각국헌다례, 다와정신, 다구학, 차와선 차도문헌, 차식물학, 차성분학, 차품평학, 차시장학, 사찰다도법	기본과정 이수자
지도교수	선혜스님, 박희준교수 등			

2.모집방법

지원자격	제출서류	개 강	특 전
다도로 심신수행과 불교포교를 희망하는 자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매년 3월, 9월개강	지도자 과정 이수후 다도포교사, 법사수여

■원서접수 및 교부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한·중 다예연구소

(사)한국다도협회 여천지부
소장 이 영 자

한중다예연구소는 (사)한국다도협회와 중국 철강대학교 국가중심 차학과가
한 · 중 전통차 문화발전을 위한 공동연구와 상호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고급 다예사 자격증과
고급 다예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연구소 :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동 서면 미니몰 옆(우리성형외과 4층)
전 화 : 051)819-4551 H·P : 011)553-0548, 011)831-2580
E-mail : kjug2580@hanmir.com





훈

중국차 다구 전문점
자연염색 천연섬유 옷 '平安'판매



대표전화: 02)739-0393,4 핸드폰: 011-863-8426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36-1(광주요 옆)

茶의 생활화

張園이 도와드리겠습니다



100여종의 중국 대만차
모든 중국, 대만 다구
기타 차에 관한 일체

- 대만 도작방(陶作坊) 한국 총대리점
- 총판 및 대리점 경영자 모집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 1동 305-30
051)866-8966~7 / Fax : 051)868-8968

휴대용 다구(茶具) 탄생!

스님, 불자님!!! 가벼운 산행, 성지순례, 대중공양때
뜨거운 물만 있으면 언제나 O.K
싱그러운 차향(茶香)과 건강을 선물하세요.



녹차, 중국차, 티백등 입 맛따라 간편하게 사용되는 휴대용 차도구

(株)치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1-2 그린빌 오피스텔 511
TEL: 서울본사 02)3487-0308(代)
부신지사 051)558-4634
취급점 모집



좋은 茶 향기로운 삶

東方藝術社

중국차, 다기, 침향 도 · 소매
중국 다예, 불교 미술 도서 전문
대만 "普 洱 壺藝" 정기구독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9번지 2층
- 전화 : 02)732-6061
- 팩스 : 02)725-0990
- E-mail: sinotea@hotmail.com

www.tea86.com

10% 할인권



隨然齋
수 연 제

- 마음가는 대로.. 자연의 흐름대로.. -

원래 간호학을 전공했던 박순란 사장은 한방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의 기를 다스리고 보양해주는 차 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람과 차에 대한 오랜 연구 때문인지 차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성이 담겨져 있다. 개개인의 몸 상태와 기의 흐름에 따라 맞는 차를 처방해 주고 안색을 살피는 세심함은 많은 사람들이 수연제를 찾는 큰 이유가 된다.
경동시장에서 직접 고른 각종 한약재들을 정성으로 달여 곰여낸 한방차, 각 종류별로 인삼 산수유, 동충하초, 아가리쿠스 등 수십가지 재료들이 담겨져 있다. 이처럼 각종 한약재에 따라 개발한 차들만 해도 여러 종류이며, 만드는 비법은 수연제만의 노하우.
한방차 중 수연차는 오랜 기간동안의 비법이 집약된 차다. 신기능을 북돋워 주는 동충하초를 주재료로 소화를 도와주는 맥아, 복령, 차전자 등 들어간 것만도 10여가지 이상이다.
수연제의 모든 차는 포장판매가 가능한데 가격도 한약재를 사용한 차에 비해 월씬저렴한 편이다. 수연제는 중로 와 일산 두곳에 있다. 차를 너무 좋아해 같이 일할 수 있는 분들도 모집중(제인점)이며, 고객이 직접 방문 하면 체질에 맞게 차를 만들어 주는 점이 다른 찻집에서 볼 수 없는 수연제만의 특징이다. 욕심도 덜어내고, 근심도 내려놓고 수연제에서 음미하는 전통 한방차의 맛은 더없는 기쁨을 선사할 것이다.

한방약차, 건강식 전문점
隨然齋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41-1 (하나은행 건너편)
TEL : 735-4413

한방약차

- 수연차 : 당뇨, 비만, 고혈압 특히 비장에 문제가 있어서 극심한 피로, 정력증강, 소화장애에 좋다. (동충하초, 차전자, 복령...)
- 꼭둔차 : 당뇨특효(산수유, 숙지황...)
- 신기차 : 다리가 무력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무거운데 좋다. (인삼, 숙지황, 산약...)
- 동충하초차 : 동충하초는 신기능을 좋게하는 보양식품이다. 정력을 좋게 하여 유정(遺精)과 폐음(肺陰)이 부족함을 메운다. (동충하초, 인삼, 황기, 숙지황, 당귀 천궁, 맥문동...)
- 아가리쿠스버섯차 : 면역력증강, 항암작용에 뛰어나다. (아가리쿠스, 숙지황, 작약, 대추...)
- 수양차 : 전신이 무력하고 땀이 많고 양기가 빠져 나간것을 수렴하여 양기가 돌아오게 한다.(인삼, 숙지황, 황기...)
- 도원차 : 폐기를 돋구어 오래된 기침을 멎게 하고 신수를 좋게하여 피로를 멎게 한다.(인삼, 숙지황, 산수유...)
- 녹용대보탕 : 기가 허하고 쇠약한 일체 허손에 크게 보한다. 산후 허약함과 가슴 두근거림, 시력감퇴에 좋다. 특히 정력부족에 아주 좋다.(녹용, 육종용, 인삼...)

수연제에서는 한방약차를 가정용, 선물용으로 포장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도돕기
부처님나라에 다시 불교가 싹트고 있습니다.
인도불교돕기추진위원회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예금주 : 인도돕기)



축제현장에서 만난 뮤지컬 공연팀
‘야단법석’



어느절 스님이냐고?
허허… 야단났네

백제예전 선 · 후배 인연 95년 시작
많은 시간 현대인에 맞는 예술 고민
단원간 종교의 벽 넘어 예술로 승화
완성도 위해 계 받고 삭발, 산사체험

◇뒷줄 왼쪽부터 허공, 보살1, 보살2, 현공. 앞줄 왼쪽부터 무공, 아공, 천진, 마공.

“스님, 어느 사찰에서 오셨어요?”
“저희는 스님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공연단이에요.”
“어머나, 깜빡 속았네.”
타악뮤지컬 공연팀 ‘야단법석’이 겪는 가장 빈번한 해프닝이다. 스님도 속아버리는 진짜 같은 가짜 스님들의 수행이야기 ‘야단법석’의 허공(유형열 • 29), 현공(이재일 • 29), 천진(강준석 • 28), 아공(고병석 • 29), 무공(이재현 • 28), 마공(양진영 • 28)스님, 보살(김보영 • 30, 손미순 • 28)들과 대표 홍인호 씨를 중앙대학교 축제현장에서 리허설이 끝난 후 만났다.

백제예전 선 · 후배로 구성된 야단법석은 1995년 ‘전통타악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KBS 국악 대경연과 전주대사습놀이 대상을 수상한 국악 유망주였던 이들의 고민은 우리 몸속에 녹아있는 전통가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였다.

“답습되는 전통공연의 틀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문화의 흐름을 봤을 때 분명히 현대인에게 알맞은 예술적 형태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많은 시간 고민했지요.” (홍인호)

오랜 고민 끝에 홍 대표가 생각해 낸 ‘틀을 깰 수 있는 우리 것’은 ‘불교’였다. 하지만 단원 중 불자는 홍 대표, 손 보살, 현공 스님 3명 뿐. 불교소재의 퍼포먼스에 개신교, 천주교 등 이웃종교를 가진 단원들의 종교적 거부감이나 갈등은 없었을까?

어릴 적부터 개신교 집안에서 자랐다는 무공. 종교의 다름보다 제일 처음 부딪혔던 벽은 ‘불교는 고루하다’라는 고정관념이었단다. “명색이 퍼포먼슨데 불교는 이미지 자체가 정적이라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과연 선적인 불교가 요란한 타악 퍼포먼스와 절충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구수한 외모로 아줌마, 할머니 보살님들에게 인기만점인 허공 스님 이재일 씨도 독실한 개신교 가정 출신이다. 얼마 전 목사안수를 받았을 정도로 신앙심 깊은 어머니를 떠올릴 때 마다 그의 고민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다.

“작품을 위해서는 종교를 뛰어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무대에 올라가면 나는 행자승이 되어야 한다’고 되뇌었죠. 어머니께도 종교가 아닌 예술로, 작품으로 봐달라고 이해를 구했어요.”

나름의 사정으로 한 차례씩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 모두의 뜻을 모아 2000년 2월, 사나사 주지 화암스님으로부터 계를 받고 삭발을 했다. 또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배역에 몰입하기 위해 회양사, 삼화사, 송광사를 거치며 산사체험도 했다.

“산사에서 참선을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부족한 부분은 고쳐 나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또 불교에 대한 배타적인 편견들을 내안에서 지워버렸고요.”(무공)

산사수행을 거친 후, 3년 가까이 스님의 모습으로 공연해 온 그들은 겉모습뿐인 ‘짜가승’이라 해도 분명 내면의 변화를 경험했다. ‘스님(배역)이 되고난 뒤 뭐가 제일 달라진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그들은 한결같이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눈’이라는데 동감했다. 아이처럼 천진한 모습의 천진 스님 강준석 씨가 한마디 덧붙인다. “스님처럼 차려 입으니 품행도 단정해지던데요.”

10년 가까이 함께 생활하면서 배우들의 실제 성격을 캐릭터에 반영시킨 홍 대표의 생각은 어떨까. 그는 “단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 대한 시야가 넓어져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라며 배우들의 변화에 내심 뿌듯한 눈치였다.

내면의 변화를 느끼는 것은 배우들만이 아니다. 야단법석을 보러 온 관객들도 공연극에 몰입해 배우들과 함께 서서히 동화돼 간다.

“어느 날 공연의 끝 무렵 ‘아제송’을 부르는데 무대 앞쪽에 계신 노부부가 기립박수 대신 기립합장을 하고 계셨어요. 불가에서 말하는 이심전심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현공)

이처럼 야단법석은 공연을 통해 불교의 고정된 이미지를 탈피, 관객에게 ‘재미있고 자연스러운 불교’로 다가갔다. 이웃종교에까지 불교문화에 대한 우호적인 관심을 일으킨 문화사절의 역할을 했다는 평도 듣는다. 이런 호평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도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며 고개를 젓는 ‘야단법석’의 가슴에는 꿈이 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인습을 타파하는 새로운 문화양식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아직 저희들의 희망에 비해서 재정적, 환경적 여건들이 어렵긴 하지만 5년, 10년,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흐르더라도 사람들의 가슴으로 기억되는 공연을 할 겁니다.”

글=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불자님들을 위한 Best 추천 상품
- 3,000여종의 불교문화 상품, 불교문화 상품의 대표주자 마하몰

오랜 노력끝에 식물성 양초 개발한 삼환양초

15년간 불교 양초만 제조해 전념해 온 삼환양초에서는 그을음 및 연소시 냄새가 거의 없는 식물성 양초(Natural Candle)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존 양초는 석유에서 추출한 파라핀 왁스로만으로 제조하여 왔다. 삼환양초에서는 기존의 양초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그을음, 냄새 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위해 많은 실험을 거쳐 개발하는 노력을 하여 오던 중 선진국 미국에서 대두(콩)으로 추출한 왁스로 양초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양초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파라핀 원료 대비 4.5배에 이르는 재료(콩)로 초를 만드는 일은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오듯이 동남아 모처에서 (식용)팜유에서 추출한 왁스를 구매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 원료를 이용하여 식물성 양초(Natural Candle)를 제조 공급하게 되었다. 비록 현재는 완전한 100% 식물성 양초를 만들수 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초"에 관한 최고의 자부심을 자랑하는 삼환양초에서는 가까운 시일내 100% 식물성 양초를 만들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한다. 식물성 양초 구입처는 불교용품백화점 마하몰에서 전화 및 인터넷 주문으로 가능하다.

식물성 양초



식물성 양초 특허실용신안 No. 1-1-2002-5191666-11

● 식물성 양초의 특징
- 그을음이 없어 실내공기정화에 도움을 준다.
- 양초 연소시 발생하는 냄새가 적다.(거의 없음)
- 양초 연소시간이 일반양초보다 약 20 ~ 30% 길어진다.

· 무공해 식물성양초(밀대) ₩56,000원(50개입)
· 무공해 식물성양초(돈타래) ₩60,000원(30개입)
· 무공해 식물성양초(원기둥) ₩48,000(12개입)

제조방법 – 식물성왁스(팜유에서 추출한 왁스) + 파라핀왁스(공업용왁스) 혼합특수공법으로 제조 < 팜유란 야자열매에서 추출한 식용기름이며 국내에서는 라면외 튀김용으로 사용하여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는 모든요리에 사용하는 식품 식용유입니다.>

삼환일반양초



용초 ₩78,400(20개입)



반야심경양초 ₩125,000원(64개입)
연화(大) ₩140,000원(40개입)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 주문전화 : 02)732-1520

히트인기상품
침실출입문 천장에 달아 놓으면 풍경의 맑은 소리가 공간기운을 살리게 된다.
제품문의 : 02)732-1520



용무늬 풍경세트
판매가 : 30,000원(2개1set)

릴레이 수행일기 〈上〉



조주호

화가, 광주대 겸임 교수

내가 참선을 처음 접하게 된 인연은 조금 별나다. 그때가 대학시절을 거의 마칠 즈음이었을 것이다. 그때 나는 현대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그림을 그리며 대학시절을 마무리하는 시절이었다. 그 시절 삼촌께서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서 살고 계셨는데, 하루는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참선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조카한테 정말 필요한 것 같으니, 한번 같이 가보겠느냐"고 하셨다. 나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 가기 싫습니다" 고 했다. 삼촌은 조카의 생활이 조금 불안해 보이셔서 그러한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나는 불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림을 그리며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셔대고, 젊은이 특유의 자유분방하고도 무질서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크게 삶의 고민에 빠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뒤로도 삼촌은 여러 번 참선을 권하셨다. 그래서 나는 따라가 보기로 하였다. 내가 찾아간 곳은 조그만 아파트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 주셨는데 눈에서 파란 광채가 나왔다. 아마 현관이 어두워서 그러한 현상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방으로 들어갔는데, 여러 명이 방석 위에 몇 줄로 앉아서 침묵하며 정좌하고 있었다.

그러한 광경을 대한 순간 이상한 기운이 나를 휩쌌다. 나도 그 뒤에 조용히 앉아 그들을 흉내냈다. 얼마가 지나자 다리도 아프고 몸도 떨려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한 사람씩 일어나서 옆방으로 들어갔다. 얼마 후 내 차례가 되어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큰 긴장감으로 거의 기어 들어가다 시피 하며 무릎 꿇고 그 분 앞에 앉았다. 그 분이 묻기를 무엇 하는 사람이냐? 무얼 하러 왔느냐? 등 몇 가지를 물으셨는데 정신없이 대답하고 물러 나왔다.

그 경험이 나에게는 인생에 대한 시각을 바꾸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토요일 마다 그곳엘 갔는데, 그 뒤로 무자(無字)란 화두를 받고 정진하기 시작하였다. 선생님께서는 서울 종로에 있는 시민선방에서도 지도하고 계셨는데, 어디든 선생님이 계시는 곳은 ◎아 다녔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였다. 일년이 너머 '무자' 를 겨우 통과 하고 '찰측' 이라고 하는 화두를 열두 개 끝냈을 때, 그분은 법성(法性)이라는 법호를 내려 주셨다. 그 후 <무문관(無門關) 48칙을 겨우 마치고 삼독하였다.

이제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내 마음 깊은 곳에 계신다. 자주 생전의 모습이 떠오르는 그분이 바로 종달(宗達) 이희익(李喜益) 노사님이다. 임제종 묘심사파 경성별원에서 15년 동안 수행하신 후 귀국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속가에서 후학을 지도하며 선에 관계된 많은 책을 집필하셨다. 단 한 사람이라도 건지려고 돌아가신 며칠 전날까지 제자를 지도하시던 분, 그분은 청규(淸規)에 의한 전문선방을 만들고자 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가심을 안타까워 하셨다.(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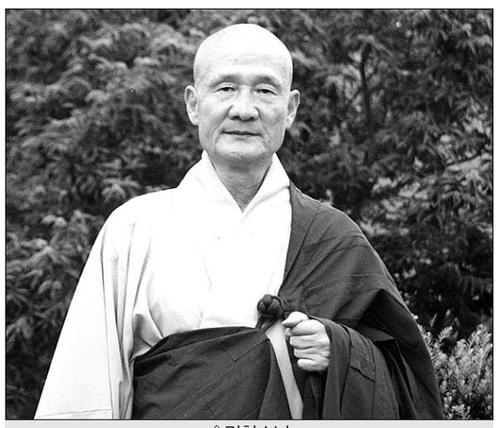
대학시절 무질서한 생활속서 참선 시작

항상 알 수 없는 인연 존재함을 깨달아

"염불선, 거룩한 성자되는 淨業수행"

"견성(見性)은 부처되는 공부의 시작일 뿐입니다. 견성한 이라도 보임과정에서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불 · 보살과 불법을 모독하는 말을 삼가야 합니다."

동산반야회 법주인 무진장 스님과 함께 조계종 중앙상임포교사로서 활동하다 돌연 자취를 감춘 뒤, 20여년간 수행에만 매진해 온 춘천 현지사(033-243-1787) 회주 만현(滿顯) 스님. 3년전부터 간간히 불교방송을 통해서만 설법하던 만현 스님의 법문이 본지 435호 '지상 백고좌' 에 소개되자 많은 출 · 재가 수행자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방송 설법이 나갈 때마다 보였던 이러한 반응은 '견성 즉 성불(見性卽成佛)' 이라고 하는 선종의 불문율에 대해 과감히 다른 목소리를 내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만현 스님의 성불(成佛)에 대한 견해는 독특하다. 수행자가 남 · 북방의 다양한 수행법으로 깨달아도 아라한과(果) 이상은 증득하지 못한다고 한다. 진정한 붓다가 되기 위해서는 보살 지위에 이어 불신(佛身)과 하나되는 더욱 더 어려운 공부과정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10월 11일 현지사에서 스님을 뵙고 염불선의 이모저모를 여쭤보았다.



◇만현스님

춘천 현지사 회주 만현스님의 염불선

'견성 즉 성불' 에 대해 다른 견해

스님들 계율 철저히 지킬것 강조

삼매후 佛身과 하나되는 공부 남아

– '견성(見性)은 공부의 시작' 이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선종의 '견성 즉 성불' 이란 주장과 상이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나는 견성은 붓다 이루는 공부의 시작이라고 확언합니다. 경계가 확 뒤집혀 일시에 진여자성이 들어났다(필요조건) 해서 억겁다생에 지은 업장이 녹는 게 아닙니다. 천만생을 내려오면서 익힌 악습, 악기가 하루 아침에 멸진되지 않습니다. 탐진치 3독의 뿌리도, 착심(着心)도 그렇습니다. 다생의 악연 역시, 이를 단절하는 건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즉 진여본성이 잠간 드러났다 해서 붓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계(佛界) 즉, 무아속 절대세계에 금강불괴의 자기 불신(佛身), 무량광으로 이루어진 자기 붓다를 얻어야 불(佛)입니다. 이게 충분조건입니다. 이 일은 삼천대천 제불세존의 큰 위신력이 아니고는 불능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교학상의 근거는 무엇인지요?

"<종경록>에 '서천의 28대 조사중 1인도 견성하지 않은 분이 없다' 했습니다. 그럼 마명, 용수보살이 이미 견성했는데, 왜 서방정토에 왕생하고자 염불정업(念佛淨業)을 닦았겠습니까? 견성이 곧 불(佛)이라 하면, 불은 가는 곳이 달리 있습니다. 서방극락이 아닙니다. 서방극락은 보살(보살 8地 이상)이 가는 곳입니다. 영명연수 선사가 간절히 왕생을 발원하고 염불수행을 겸했듯이 우리나라의 서산, 기화 선사 역시 그러했습니다. 이외 불교역사상 걸출한 대존자들인 인도의 무착, 세친보살을 위시해 중국의 혜원, 선도, 청량, 천태 스님과 우리나라의 원효, 의상 등 큰스님들도 왕생극락을 발원했습니다.

–성불하기 위해서는 염불선 공부가 꼭 필요하다는 뜻인가요?

"참선을 통해 견성한 후 보임(保任)을 잘 마치면 아라한(聖衆)이 되어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구조상 아라한 이상은 오를 수 없습니다. 반면, 염불선은 중생이 '보살' 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자가 되는 훌륭한 정업(淨業) 수행입니다. 따라서 염불삼매에 들 수 있어야 하고 공부중에 부처님의 청정하고 영롱한 무량광을 보아야 서방극락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붓다는 천만억 화신을 낼 수 있는 성자중 성자이십니다. 무아속 삼매, 해인삼매, 대적정삼매에 자재한 붓다라야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거나, 지옥 중생을 건질 수 있습니다."

–염불선의 구체적인 수행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간화선은 중 · 하근기 수행자에게는 어려운만큼, 일심불란(一心不亂)한 염불을 통해 드디어 삼매에 드는 염불선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행법을 말한다면 먼저 정좌한 눈높이에서 1~2m 앞에 작은 점을 찍어 둔 다음, 두 눈을 뜬 채 시선을 점에 고정합니다. 가능한 눈을 깜빡 거리지 않은 채(5~10분 정도는 가능) 염불하되 관세음보살이나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지장보살, 문수보살 등 자신과 인연있는 불 · 보살을 칭명하면 됩니다. 이때 시간이 지날 수록 일심불란의 상태가 무너져 마음이 도망가기 쉬운데, 눈앞에 염불하는 불 · 보살이 계시다고 관상(觀像)염불을 하면서 마음 속으로 귀의, 참회, 발원의 염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번뇌망상이 자연히 사라져 마침내 염불삼매에 들 수 있습니다. 염불선을 통해 염불삼매를 얻은 후에도 보살 8지 이상의 지위에 이른 다음, 부처님의 무량광을 보고 불신(佛身)과 하나되는 더욱 더 어려운 공부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 스님들은 지옥과 극락, 불, 보살 등을 인간 내면의 마음을 지칭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중생들은 있다, 없다를 분별합니다. 붓다는 허공에도 별나라에도 없습니다. 마음 속에도, 마음 밖에도 아니 계십니다.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십니다. 하늘의 태양이 저렇듯 존재하면서 만물을 비추고 있듯, 부처님 또한 빛으로 게시면서 삼천대천 세계를 감싸고 계십니다. 붓다께서 사바세계에 현신할 때는 32상 80종호를 보이십니다. 붓다권 내에 든 성자가 아니고는 그 본신의 빛의 강도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9지 선혜지(善彗地) 보살이 뵙는다는 부처는 화신불입니다. 고통 떠난 마음자리가 극락이고, 번뇌망상 시달리면 거기가 지옥이라고 압니다. 그러나 지옥, 극락도 관념속 산물이 아니고, 실제로 있습니다. 지옥은 영체세계의 남방 지장(보살) 궁(宮) 쪽에 있습니다."

–평상시의 염불선 공부 자세를 말씀해 주십시오.

"삼보에 귀의하고 청정하게 붓다의 계율을 지키면서 보살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선지식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 대승경전을 독송하고 염불해야 합니다. 참회, 발원도 잊지 말고, 다라니도 염송하면 좋습니다. 팔정도에 따라 살수 있다면 금생도 내생도 복될 것입니다."

춘천=김재경 기자

경기불교문화원 참선, 관법등 수행프로그램 지역민에 큰 호응



◇김태제 이사장

수원 경기불교문화원(이사장 김태제)이 큰스님 초청 백고좌 법회를 비롯해 참선, 위빠사나, 경전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불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매달 큰스님 초청 열린 법회를 열고 있는 경기불교문화원은 10월 18일 제8회 대원사 주지 현장스님 초청 법회에 이어, 11월 15일 남국선원장 혜국 스님 초청법회를 연다.

사찰환경답사와 불교문화(불상, 석탑, 탱화, 범종 등) 교실, 한방 경락 강좌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을 포교하고 있는 경기불교문화원은 참선, 위빠사나 등 수행프로그램도 개설하고 있다. △참선 강좌=매월 첫, 셋째 주 일요일 오후 1시, 김태완 무심선원 원장 지도 △위빠사나=매주 화요일 오후 7시 호두마을 정원 지도법사 △기초교리=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진철희 경기불교문화원장 △경전강좌=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묘주 스님 △생활 요가=매주 월, 목요일 오후 7시 최두남 선생 △태극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남윤현 선생 △불교의식=주 월요일 오후 2, 7시 권혁찬 법사 △다도=매주 화(초급반), 목요일(중급반) 오전 10시 윤영예 선생. (031)251-1083

호두마을 11~12월 집중수행

천안 호두마을은 지도법사 혜진스님과 김열권 법사, 정원 법사의 지도로 11, 12월 주말수행과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혜진스님이 11월 14~16일 및 12월 19~21일 주말수행을, 김열권 법사가 11월 21~26일, 12월 25~30일 집중수행을 각각 지도한다. 정원 법사는 12월 5~7일 주말수행을 맡는다. (041)567-2841

마곡사 일주일 철야용맹정진

공주 마곡사(주지 진각)는 10월 18일, 영산전에서 서울 강남 포교원장 성열스님 초청법회를 시작으로 24일까지 철야용맹정진을 실시한다. 지난 4일부터 매주 1박2일간의 주말수련회를 열고 있는 마곡사는 첫째 주 자비명상, 셋째 주 참선, 둘 · 넷째 주 자유정진을 실시한다. (041)841-6221

봉인사 '자비수관' 프로그램 진행

경기 남양주시 봉인사(주지 적경)는 10월 20일 오후 2시부터 26일 오후 2시까지 '자비수관(慈悲手觀) 프로그램' 을 진행한다. 지운 스님(전 송광사 강주)의 지도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4념처 중 몸 관찰을 중심으로 한 관법(위빠사나)으로서 지혜 개발에 중점을 두는 수행이다. (031)574-5585

신소재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별도주문가능)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금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동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칠 보) | 내호함 (도자기) | 기본사이즈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을 평안하며 안전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추모함 선택은 올바르게!

● 납골당이 공원화 되어가고있는 과정에서 문제가발생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처럼 가족과 참배하러 왔는데 심한 악취로 인해 인상을 찌푸리고 마지못해 참배를 올리던 일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악취나는 유골을 그냥 방치해 두는것이 참된 효(孝)일까요? 이미 악취가 생기기 시작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악취와 벌레까지 생깁니다.
2. 이화사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서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램입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가볍고 강하며 외관또한 미려한 이화사의 납골추모함이 있습니다.
이화사의 납골추모함은 납골당이 붕괴되더라도 강한 견고성으로 고인의 유골이 유실됨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을 쾌적한 환경에서 참배하실 수 있습니다.

외관의 문양은 원하시는 문양 또는 글씨를 삽입 할 수 있으며, 문양 삽입후 코팅 처리되어 오래도록 봉안 할 수 있도록 정성들여 제작됩니다.

이화사 ☎02)392-092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5-2 GS빌딩

" 1가정 1컴퓨터 시대" "전 국민 네티즌 시대"

귀사의 홈페이지로 승부를 걸어 보세요

잘 꾸며진 홈페이지하나만 있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발전합니다. 지금껏 홈페이지제작을 망설여 오셨다면.....

(주)아이코스솔루션과 상담하십시오.

■ 컴퓨터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 별도의 인건비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 컴퓨터를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 적은 투자로 엄청난 홍보가 시작됩니다.

고 품격의 홈페이지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제작진은 최저 60만원 부터 500만원까지 다양한 형태의 홈페이지를 귀사의 기획의도에 가장 알맞은 맞춤형 제작을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서버 대여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아이코스솔루션은 서버 임대사와 제휴를 통해 웹 호스팅 기초비용을 월 5,500원(리눅스) 월 11,000원(NT)부터 제공해 드리며 할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홍보 기획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사업홍보물 기획은 전문가에게 맡겨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코스솔루션은 최상의 기획전문가를 통해 페이지당 기본 50,000원 부터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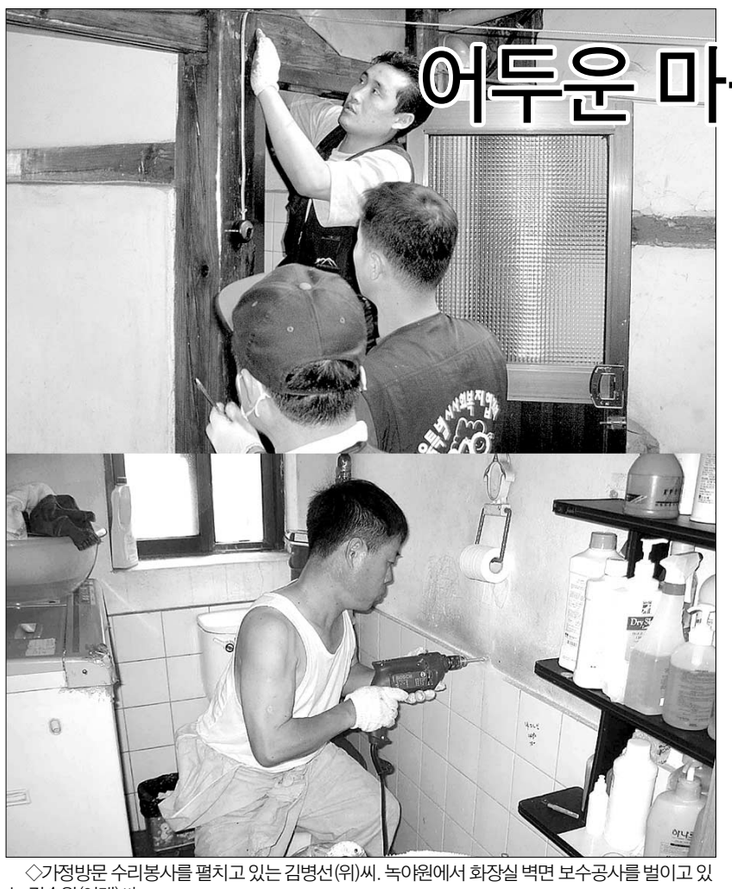




네티즌의 마음을 여는 홈페이지 기획, 제작 전문업체

㈜아이코스솔루션 http://www.eyecos.com

☎ 031)836-0992 FAX : 031)836-0993 E-Mail : eyecos@eyecos.com



어두운 마음까지 수리해 드려요

◇가정방문 수리봉사를 펼치고 있는 김병선(위)씨. 녹야원에서 화장실 벽면 보수공사를 벌이고 있는 강숙원(아래)씨.

바라밀현장

보람회, 녹야원 '주택환경개선 봉사'

"하는 일이요? 대중없습니다. 주택의 보수와 수리에 관한 것이면 뭐든지 다 합니다."

주택 환경개선 봉사를 펼치고 있는 보람회(회장 이응석) 회원들에게는 특별히 정해진 봉사 일정이 없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오면 그것이 곧 이들의 일거리가 된다. 그렇다고 보람회원에게 현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떤 것이 '직장일'이고 어떤 것이 '자원봉사'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뿐이다.

주택개량 및 수리 · 관리 직업을 가진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보람회. 의사가 무료진료를 펴고 미용사가 무료이발 활동을 벌이듯, 이들은 주택과 관련한 무료 보수 · 수리 봉사를 펼치고 있다. 처음에는 도움이 필요한 곳을 일일이 찾아 나섰지만,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환경개선과에 정식으로 자원봉사 등록을 마치면서 고민을 쉽게 해결하게 됐다. 수리가 필요한 복지관은 협의회와 연계해 보람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작업을 의뢰하고, 보람회원들은 각자의 일정을 살펴 봉사가 필요한 현장으로 늦지 않게 달려간다. 녹야원,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연꽃마을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 등 수십 개가 넘는 복지관에 그 같은 보시행을 벌여온 것이 벌써 10년이 가까워온다.

그런 만큼 일거리도 늘었다. 특히 자금지원이 적은 복지관들 입장에서는 모든 보수공사를 무상으로 척척 해결해주는 이들 봉사자들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른다. 그래서 회원들은 방충망 설치와 문짝 수리 등의 비교적 간단한 일부터, 장애인용 핸드레일 제작 설치나 전기수리 등의 복잡한 일까지 손대지 않는 일이 없다. 게다가 7명의 회원들의 직장 업무 일정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홀로 떠난 한번의 출장에서 모든 수리를 도맡아야 하는 경우가 잦다.

"단순한 수리점검 요청이 들어와 찾아갔는데, 막상 가서 살펴보면 단순한 문제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한 가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상황은 못 되기 때문에, 한번에 확실히 끝내야 하는 것이 우리 일이랍니다."

시 복지협의회 등록 후 작업 늘어
모든 보수공사 무상으로 척척
서로 직장달라 홀로 일 도맡기도

김병선(33)씨는 복지관을 통해 알게 된 이웃들의 수리요청도 마다하지 않는다. 넉넉지 못한 사정을 뻔히 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년동안 봉사를 다니며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며 무주상보시를 체화한 이유가 크다. 그래서 모든 일을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해낸다.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어지는 수도공사도 묵묵히 치러낼 정도여서 사람들의 인기와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한번은 독거노인을 찾아가 수리를 도왔더니 그냥 보낼 수 없다며 손에 돈을 쥐어주시더라구요. 봤더니 500원짜리 두 개더군요. 진심으로 건네는 건데 내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절대 무상의 철칙을 깨자니 꺼림칙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만큼이나 따뜻한 마음 씀씀이가 아름다운 이응석(40)씨. 그는 뇌성마비 복지관의 수리봉사를 인연삼아 장애인들과 나들이도 자주 즐기고, 뇌성마비 복지회에서 마련하는 정기 캠프도 함께 떠나곤 한다. 외로운 둥지를 수리하며 아빠의 온정과 손길을 심어준 덕에 그들과 함께 하는 일상도 곧 내 삶이 되어버렸단다.

"사실 시설관리와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건물마다 한 명씩은 있을 텐데, 우리와 같은 봉사를 하는 사람은 눈에 띄게 적습니다. 시작만 제대로 해주면 또 다른 보람회가 생기는 건 시간문제이겠지요."

요즘은 백화점 등지에서 사용하고 남은 고급자재들을 활용해 알뜰 수리봉사를 펼친다는 보람회원들. 또 다른 보람회가 생긴다 하더라도 자원봉사는 죽는 날까지 이어갈 것이라는 하정용(70) 씨의 발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자비신행회

"신행·복지 우리가 책임진다"



◇11일 개소식 '사찰음식 나눔축제'에서 외국인 노동자 등 사부대중이 사찰음식을 시식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행과 복지를 위한 쉼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비신행회(회장 이화영)가 10월 11일 광주 내남동 옛 지원초등학교 터에 '한꽃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열었다. 이는 지난 8월부터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불교문화체험 행사 등을 마련한 자비신행회 지역복지 활동이 하나의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자비신행회 활동의 초점은 불교에 기반해 한국문화를 알리는 것. 이를 위해 신행회는 네팔 및 중국인 노동자들과 사찰답사를 추진하기도 했고, 대학생 불자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불교와 한국문화 소개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자비신행회 '이주노동자 쉼터' 개소
언어교육등 지원교류사업 확장 계획

이번 쉼터의 건립은 이 같은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김영섭 사무국장은 "한꽃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체험 및 언어교육 프로그램 등 문화지원교류사업을 확장시킬 계획"이라며 "수행과 보살행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가운데 상담 · 의료 · 생활 지원사업 등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자비신행회는 99년 창립된 이래 독거노인 밑반찬 준비, 명상교실, 불교 경전 강의, 호스피스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이달말에는 하남공단에 쉼터분소를 열 예정이다. (062)234-2732

강신재 기자 · 주용직 광주지사장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예세 왕모 라마 (下)

국면 깨닫는 '참된 본성' 제시



◇예세 왕모 라마.

"벗들이여, 근심하지 말라. 열심히 깊이 수행하라. 준비된 모든 존재에게 가르침을 베풀라. 기만과 자만을 바다에 던져버려라. 욕망을 마음의 강력한 불로써 태워버려라. 의심과 혼란을 없애라. 최고의 불법에 굳세게 매달려라. 뽐냄이나 교만함 없이 남을 도와라. 발원과 명상과 실천에 의해 너희는 자유케 될 것이다."(티베트 불교의 어머니 예세 쵸갈의 가르침)

8세기경 티베트의 위대한 여 스승 예세 쵸갈의 구도와 깨달음을 흠모한 예세 왕모 라마(Lama Yeshe Wangmo, 美 '지혜의 축복(Jnanasukha)' 재단 이사장)는, 그가 죽음을 무릎쓰며 보여준 밀교 수행법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 위대한 스승 파드마 삼바바가 제자인 예세 쵸갈을 위해 설한 8가지의 영적, 육체적 수행법은 티베트 밀교의 독특한 비전을 담고 있다.

'깨달음에 대한 여덟가지 거울'로 비전
토론위주 워크샵 성격 띤 수행법 특징

그 중에 첫번째는 금식 수련, 즉 먹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평정을 얻는다. 두번째는 의복의 수련, 즉 옷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옷을 너무 많이 소유하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다. 셋째는 언어의 수련이다. 이는 만트라(진언)를 외우고 쓸데없는 잡담을 버리는 것이다. 서로 화합하는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만트라를 외우되,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면 가능한 묵언하며 수행한다. 이는 지혜로운 자의 표시로서, 어리석음의 증표는 쉬지 않고 떠드는 것이다. 넷째는 육체의 수련, 오체투지를 행하고 연화좌로 앉는 것이다. 반드시 연화좌를 익힐 필요는 없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몇가지 요가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듀알 컬 대사의 호흡법과 자세는 필수적이다. 다섯째는 마음의 수련인 명상이다. 하나의 정신적, 물질적 대상에 마음을 집중해 관찰하는 수행이다. 여섯째는 설법의 수련, 즉 붓다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적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깊은 이해로써 체계적이고도 순서대로 가르침을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고, 그것을 또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다. 일곱째는 남에게 이로움을 주는 수행이다. 여기서 더 나아간 여덟째는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 무한한 자비행이다. 이 수련에서는 자신의 원수를 아들처럼 여기고, 금을 돌처럼 생각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예세 왕모 라마는 이와함께, 인간 생활의 모든 국면을 깨닫는 '참된 본성'이란 거울도 제시했다. 그의 삶을 통해 보여준 비전과 실험정신은 '깨달음에 대한 여덟 가지의 거울'이란 모델로 압축된다. 이것들은 원천적인 발원, 의식의 발현, 외적인 깨달음, 내적인 각성, 동체대비, 깨달음, 성취, 인격의 완성 등이다. 이러한 거울들은 밝고 명확해서 누구나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다. 동시에 우리의 참된 주인공인 '거룩한 공(空)'을 탐구하며 심리적 자아의 상실을 조사하며, 영적인 삶을 더욱 확고하게 한다.

왕모 라마의 수행법은 주로 워크샵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참석자들은 마음을 연 토론을 통해 창조적, 영적인 영감을 받는다. 물론 밝게 마음을 열고 지혜를 드러내며, 우리 안과 밖의 존재를 기술적으로 맞물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반성과 적절한 지도, 화목한 공동체 의식이 필수적이다. 수련회는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고귀한 삶의 예술을 깨달음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 씨앗을 뿌린다. 그는 이러한 수련회를 '현존에 대한 사랑(Loving Presence)' 워크숍이라고 부른다.

김재경 기자

봉 행

경기 장흥 대원정사

'산신님 · 코끼리 삼존불 점안 법회'



[주지 해련 합장]

산신제(山神祭)는 우리민족의 태초부터 무(巫)유(儒)불(佛)의 의례로 면면히 계승되어온 전통 의식이다.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산신님께 제를 올리며, 불보살님들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경기 장흥 석현리 돌고개 앵무봉에서 산신제(山神祭)를 봉행함으로써 본 사찰의 도량을 더욱 견고히 하고 여러 불보살님의 가내(家內)에 만복이 깃들고 업장소멸과 사업 성취 등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기원 합니다.

불보살님들의 家內 행복을 기원하오며 수희 동참으로 소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산신님 및 코끼리 삼존불 점안법회 안내

◆일 시 : 불기2547(2003)년 11월 2일(음력 10월 9일) 오전 11시

◆장 소 : 대원정사 노천 산신불전

◆산신 공덕비 동참 : 1인 10만원

◆오시는 길 1. 셔틀버스 - 오전 10시 10분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문산 방향 환승주차장) 출발
- 오전 10시 30분 장흥 농협 앞 출발

2. 자가용 : 서울 구파발 → 장흥 → 돌고개 앵무봉 관광지→ 대원정사

3. 부산차량 : 11월 1일 지하철 사상역앞(오후 10시 30분) 온천장역앞(오후 11시) 출발
오륙도 관광버스(연락처 016-9331-1492)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산 126번지

대한불교조계종 대원정사

전화 : 031)855-5501, 3 / 팩스 : 031)855-5502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제정

대원상(大圓賞)

제1회 대원상 수상 후보자 추천 접수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설립자인 고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고, 한국불교의 대중화, 생활화, 현대화를 위하여 불교포교에 모범적으로 정진하고 있는 불자 및 불교단체를 선정, 시상합니다. 이는 모든 불자들에게 귀감이 되어 불법 홍포와 진흥의 바탕이 되도록 함이고, 또한 젊은 불자들에게 불교 포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마음으로 신행과 수행에 정진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 불교포교부문 - 개인 1인 : 상패 및 상금 1,000만원.
-. 불교포교부문 - 단체 1곳 : 상패 및 상금 1,500만원.

-. 개인은 불교 포교 활동 경력 10년 이상인 불자이어야 하고, 단체는 단체 설립 5년 이상인 곳으로 활동 회원이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합니다.
-. 각 부문 개인 및 단체 수상자는 이전 3년 동안에 해당 부문과 관련하여 활동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주로 검토하여 선정합니다. (제1회의 경우 2001년 - 2003년도).
-. 해당 부문과 관련한 향후 활동 계획을 참고합니다.
-. 수상자는 개인 1인과 단체 1곳으로 하며, 동일 부문에서 업적에 대한 우열 판정이 어려운 우수한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해서는 공동수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 개인 혹은 단체 후보자중 일정 자격수준 혹은 수상 공적이상의 권위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불교계 저명인사들로 '대원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선정할 것입니다.

-. 불교 관련 단체, 기관 대표, 본말사주지스님의 추천서(양식).
-. 해당 부문 활동 공적서(양식).
-. 주요 경력 및 이력서(양식).
-. 관련 부문 실적 자료.
※ 양식은 본원 홈페이지 게시판에있습니다. (www.kbpf.org)

-. 접수 기간 : 2003년 10월 15일 - 11월 15일.
-. 접수 및 문의처 : 본 원 사무국.
•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15층
• 전화 : (02)719-1855, 2606
• 홈페이지 : www.kbpf.org / • e-mail : kbpf@kbpf.org
-.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당일자 소인 유효).

-. 시상식 - 2003년 12월 17일(수) 14:00.
-. 시상 장소 - 다보빌딩 3층 대법당.

불기 2547년 10월 일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15층 / T. (02)719-1855/HP:www.kbpf.org



바시라 뱃사공의 법문

생사의 바다 잘 아는 지혜 갖춰
대비로써 중생구제의 보살행 펼쳐

선재동자가 육향장자의 가르침을 받아 다음으로 찾아가는 선지식은 남쪽의 누각(樓閣)이라고 하는 큰 성에 있는 바시라(婆施羅)라고 하는 뱃사공이다. 누각성에 이르러서 보니 그 뱃사공은 성문 밖의 바닷가 언덕 위에서 십만이나 되는 장사꾼들과 한량없는 대중에게 둘러싸여서 바다의 법을 말하며, 부처님의 공덕바다를 방편으로 일러주고 있었다.

선재동자가 그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바시라 뱃사공은 선재동자가 이미 보리심을 내어서 보살도에 대해 묻는 것을 칭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이 성의 바닷가에 있으면서 보살의 '크게 가엾이 여김을 으뜸으로 삼는 행[大悲幢行]'을 깨끗하게 닦았다. 나는 염부제에 있는 빈궁한 중생들을 보고 그들을 이익케 하려고 여러가지 고행을 닦으며, 그들의 소원을 모두 만족케 한다. 먼저 세상 물건을 주어 마음을 채우고 다시 법의 재물을 보시하여 환희케 한다. 복덕의 행을 닦게 하고 지혜를 내게 하고 보리심을 일으키게 한다.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생사를 없애는 도를 닦게 하고, 생사를 싫어하지 않는 행을 내게 하여 모든 중생바다를 거둬주게 한다. 모든 공덕바다를 닦게 하고, 모든 부처바다를 보게 하고 온갖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게 한다. 선남자여, 나는 여기에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뜻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중생을 이익케 한다.

선남자여, 나는 바다에 있는 모든 보배의 섬과 모든 보배의 처소와 모든 보배의 종류를 안다. 나는 모든 용궁의 처소와 모든 야차궁전의 처소와 모든 귀신들의 궁전의 처소를 알고 잘 피하여 그들의 난을 벗어난다.

또한 소용돌이치는 데, 얕은 데, 깊은 데와 파도가 멀고 가까운 것과 물빛이 좋고 나쁜 것 등을 잘 분별하여 안다. 또 일월성신이 돌아가는 도수와 밤과 낮 등의 여러가지 시각과 누수(漏水)가 늦고 빠름을 잘 분별하여 안다. 또 배의 철물과 나무가 굳고 연한 것과 기관이 만만하고 거셈과 물이 많고 적음과 바람이 순하고 거슬림을 잘 안다. 모든 편안하고 위태로운 것을 분명하게 알고서 갈만하면 가고 못갈만하면 가지 않는다. 선남자여, 나는 이런 지혜를 성취하여 모든 중생을 이익케 한다.

선남자여, 나는 안전한 배로 장사하는 무리들을 태우고 편안한 길을 가게 하며 다시 법을 말하여 기쁘게 하면서 보배 있는 섬으로 인도하여 여러가지 보물을 만족케 한 연후에 그들을 거느리고 염부제로 돌아온다.

선남자여, 나는 큰 배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지만 한 번도 실수한 일이 없다. 어떤 중생이 내 몸을 보거나 내 법을 들은 이는 영원히 나고 죽는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고 온갖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서 모든 애욕의 바다를 말리고 지혜의 광명으로 세 세상 바다를 비추며 모든 중생의 고통바다를 끝나게 한다. 모든 중생의 마음바다를 깨끗이 하고 모든 세계바다를 빨리 청정케 한다. 시방의 큰 바다에 두루 가서 모든 중생의 근성바다를 알고 모든 중생의 수행바다를 두루 알고 모든 중생들의 바다를 널리 따른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크게 가엾이 여김을 으뜸으로 삼는 행'을 얻었으므로 만일 나를 보거나 내 음성을 듣거나 나와 함께 있거나 나를 생각하는 이는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한다."

바시라 선지식은 뱃사공으로서 항해술의 달인이다. 그의 이름이 바시라(자재하다)인 것은 그가 바다에 관해서 모든 것을 잘 알고 또 항해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잘 알기 때문에 항해에 자유자재한 까닭이다. 바다는 광대무변하면서도 변화무쌍한 곳이다. 그 속에는 무량한 보배가 있지만 무수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다. 그는 이러한 바다에 사람들을 배에 태우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길을 가게 하며, 보배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이익을 얻게 해주는 것이다.

그는 항해술만 자재한 것이 아니다. 불법의 바다 및 생사(生死)의 바다에 통달해서 중생을 생사의 바다에서 구제해 준다. 바시라 뱃사공의 '크게 가엾이 여김을 으뜸으로 삼는 행'은 생사의 바다에서 대비(大悲)로써 중생을 건져내는 보살행을 말하는 것이다. 인생이란 생사의 바다를 헤치면서 나아가는 항해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생사의 바다를 어떻게 해서 건너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불도(佛道)의 문제이다.

바시라 뱃사공은 대비심이야말로 생사의 바다에서 중생을 건져내는 원동력으로써,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사의 바다 속에 들어가서 생사의 바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밝게 잘 아는 지혜를 갖추어서 그들을 이익되게 해야 한다고 설한다. 그리고 모든 중생들의 바다에 두루 널리 따라가 주면서 그들에게 공덕바다를 닦게 하고 온갖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설하고 있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선의 세계 ⑭

견성성불(見性成佛)-2



지난 회에서 견성성불의 뜻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의 본각(本覺), 불각(不覺), 시각(始覺) 개념을 소개하였다. 본각이란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 즉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개념이다. 다시 말해,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모든 중생이 본래 깨쳐 있다'는 말로 바꾼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것은 '불성'이라는 말을 '부처가 될 잠재적인 가능성'이라는 뜻으로 보는 데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본래 깨쳐 있다면 본래 부처라는 말이다.

정말 그런가? 우리가 부처인가? 세간에서 온갖 탐욕을 부리며 번뇌 속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어째서 부처라는 말인가? 증명해 봐라!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봐라! 이런 질문과 요구가 당연히 쏟아지겠고 이에 답변하는 논변과 법문도 많이 쌓여왔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조리 있게 설명한다 해도, 이에 대해 아무리 설득력 있고 감동 깊게 설파를 해준다 해도,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이다.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경론(經論)에서도 이런 대목에 오면 흔히 '부사의(不思議),' 요즘 쓰는 말로는 '불가사의(不可思議),' 즉 이리저리 생각을 굴리고 의논하여 해명될 것이 아니라는 말로 결론을 짓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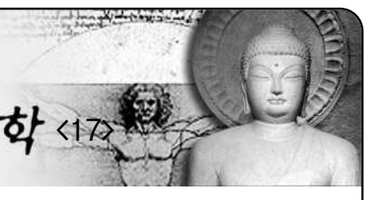
감동깊은 설파라도 결국 믿음의 문제

어느 종교에나 그 핵심 교의를 붙들고 논리적으로 이해를 추구해 가다보면 더 이상 논리와 사변으로써 해명할 길이 막히는 대목, 달리 표현하자면 말의 길이 끊어지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의 대목이 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그 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신조(信條, creed), 즉 믿음의 조항이 있다. 이해의 길은 막혔지만 그것을 받아들여 믿으면 그 종교의 신자요, 거기에서 못 믿겠다고 나가떨어지면 신자가 못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조물주이며 예수는 그 아들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라는 기독교의 이른바 삼위일체(三位一體) 교의가 한 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代贖)하였고 이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신조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증명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믿느냐 마느냐 하는 신앙고백의 문제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선언은 동북아 대승불교의 기본 신조로서, 비유를 통해서 좀더 그럴 듯하게 설명을 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진위(眞僞)를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말고 할 사항은 아니다.

아무튼, 본각 개념에서 참으로 아리송한 것은 '본래'라는 말이다. 그 말이 가지는 뉘앙스가 참으로 묘하다. 중생이 곧 부처이다! 더 이상 할 말 없다! 네가 그것을 알건 모르건 아무튼 간에 너는 부처다!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이러고 말 수도 있다. 한편으로, '본래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어감도 있다. '아니다'까지는 아니더라고, '모르고 있다'는 사정을 암시하고 있다. 하기는, <대승기신론>에서는 본각이니 불각이니 시각이니 하는 말도 원래 필요 없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말로 설명을 하려다보니 할 수 없이 짐짓 그런 구별하는 개념들을 동원할 뿐이라고 하였다. 본래 부처인 자기 정체를 그대로 살면 되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말로 된 설명을 요구하는 사정, 설명을 듣고도 아리송해하는 사정, 바로 그것이 중생의 근본적인 역설을 나타낸다.

■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17>



비만 그리고 불교

요즘 생명과학의 첨단은 소위 삶의 질을 위한 약의 개발로도 이어지고 있어 '행복약물(happy drugs)'이라는 일련의 신약개발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잘 알려진 약물들로서 비아그라나 먹는 비만치료제 등이 있다. 이러한 행복약은 사람들의 과잉 욕심을 채우거나 합리화 하는 식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마음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줄여 심신의 안정을 주는 효과도 있기에 환영할 만하다. 비만에 있어서도 요즘은 비만치료제와 더불어 비만 유전자도 동물에서 발견되어 그동안 선진국 사람들을 고민시킨 비만 문제도 곧 해결될 것처럼 언론은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 이치를 잘 들여다보면 사람의 질병은 대부분 자기가 지은 바에 의해 오며, 결국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질병에 대한 좋은 방법으로서 사람의 욕망을 다루는 마음공부도 있다.

'마음공부'가 모든 병 치료의 근원
몸 소중히 관리하다 돌려주어야

비만이란 과도한 섭취로 인해 소모하는 에너지보다 많아 남아도는 잉여 에너지가 축적된 모습이다. 불자라면 우리의 존재가 다른 존재에 의존해 있음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에 과도한 섭취라는 것은 나의 욕심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진정 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부터 빼앗아 내가 취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불자의 비만이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면 너무 엄격한 것일까.

그러나 우리가 식사 때 늘 외우는 오관계(五觀戒)에도 존재의 연기적 관계와 자신을 돌아보며 도를 위해 음식을 먹는 지극한 마음을 담고 있다. 이러한 오관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다시 쓴다면 다음의 간단한 삼관계(三觀戒)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첫째, 이 음식이 법계의 시주물 임을 알고 둘째,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중생의 것임을 알아 셋째, 부처님께 공양 올리듯 이 음식을 받습니다. 본디 이 법계 속에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이의 것이기도 하기에, 너와 내가 곧 부처님임을 알아 항상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공양을 들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 생활한다면 당연히 불필요한 질병에 의한 고통은 없앨 수 있고, 동시에 인연으로 받은 몸을 사용하다 갈 때까지 잘 관리하여 사용하다가 때가 되면 좋게 제 갈 곳으로 돌려줄 수 있다. 부처님 말씀에 의거하여 자신을 이렇게 소중하게 유지한다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니 자리(自利)와 이타(利他)가 서로 다른 말이 아님을 알고 부처님의 말씀이야 말로 이 욕망의 시대에 첨단 생명과학이 이루어 내는 것 보다 더욱 첨단의 방법과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삶을 부처님께서 설한 과학적 말씀 속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욕망이라는 함정에 길들여져서 자신을 굳이 첨단 생명과학이라는 방법으로 임시 땜질을 해가면서 살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의 몫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각자가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2003년 가을 - 겨울, 중국 / 제주도 편)
고품격 성지순례! 실속 있는 가격!
삼보에 귀의하옵고
판매가외 일체의 추가경비가 없습니다 !
(비자요금 No! 팁 No! 옵션 No)
기존의 여행과는 차별화 된 서비스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 10/26 - 제주/마라도 3일 21만원
◆ 11/ 2 - 상해/항주/보타산/낙가산 69만원
중국 제1불교왕국관세음보살도량 75만원
- 상해 / 항주 / 보타산 / 낙가산 5일
신라김교각 스님의 지장왕도량 79 만원
- 남경 / 구화산 / 황산 / 항주 / 소주 5일
구름의 불산,보현보살 도량 - 79만원
- 아미산 / 낙산대불 / 대족석각 5일
문수보살도량 - 69 만원
- 북경 / 만리장성 / 오대산 / 운강석굴
제주 우도 / 마라도 / 제주 3일 - 27 만원
※ 자유여행을 원하시는 분을 위한 할인항공권 및 호텔수배 도 해드립니다.
(주)행복만선
대표전화 02)720-8490

자비수관(慈悲手觀)
수행자를 초청합니다
자비수관은 관세음보살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자비로움을 나타내며, 몸에 대한 갖가지 견해와 번뇌가 정화되니 마음의 본래모습을 드러내어 이 자비수로 대비심과 지혜가 드러남이 마치 한송이 연꽃이 마음속에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 강의개요
⊙ 개강 및 일시 · 오리엔테이션 :10월 22일 (수) 오후 7시 · 본 강 의:10월 22일(수) ~ 11월 26일 (수)
⊙ 장 소 동산 법당(동산불교회관 내)
⊙ 지도법사 지운스님 (전 송광사 강주) (인도 다람살라 수행)
⊙ 내 용 4념처 수행중 특히 "봄"을 정념으로 관찰하는 자비수관으로 관세음 보살의 지혜와 자비심을 증득함
⊙ 대 상 수행에 관심있는 분 50명
⊙ 수 련 동 참 금 10만원(교재제공) 국민은행 016-01-0226-236 동산반야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www.dongsanbud.net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서울 대전 대구 40분 전주 마이산 광주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전국 곳곳 목 없는 불상들
조선 불교탄압 생생한 증거


◇1965년 경주 분황사 뒷 담장쪽의 폐기된 우물속에서 발견된 목이 잘린 석조불상군.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훼손된 불상.

"전국 곳곳에 목없는 부처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만들 때부터 목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것들이 조선시대 불교탄압의 증거란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와같이 조선왕조 5백년간 계속된 숭유억불(崇儒抑佛) 정책이 당시 절을 망하게 했고, 승려들을 혹독한 부역에 내몰았으며, 궁극적으로는 불교 폐지론까지 제기 했지요."

시인이자 소설가인 정동주(55) 씨가 조선시대 불교탄압 정책의 실상을 문헌고증을 통해 파헤친 <부처, 통곡하다>를 출간했다. 정씨가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작업을 진행하면서 그 결과물로 내놓는 '한국의 뿌리 시리즈' 네 번째 책이다.



'부처, 통곡하다'

정동주 지음

이룸 / 3만원

저자는 6개월 이상 <조선왕조실록>과 씨름하며 불교박해 내용만 새롭게 추려 사건순으로 정돈했다. 또 부족한 부분은 성수, 고송, 수산, 도성, 천운 스님 등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며 생생한 사연들을 모았다.

저자에 따르면 사찰에 부과된 부역의 종류는 100여가지가 넘었는데, 이를 감당해야 하는 승려들에게는 다른 부역이 따로 부과됐다. 산성과 왕릉, 궁궐을 짓는 공사에 동원되는 것이 대표적이었다. 하지만 승려들은 임금조차 받을 수 없어 빌어먹거나 대부분 굶어야 했고 급기야는 고통을 참지 못해 도망을 가기도 했다. 결국 포나 돈으로 부역을 대신하도록 했으나 이미 사찰 소유의 토지나 기물을 유생들에게 빼앗겨 버린 승려들에게는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 그러자 세속의 부모나 친지에게까지 죄를 물리는 연좌제까지 등장했다.

"불교탄압은 성종과 연산군을 거쳐 중종, 명종 시대에 가장 심했지요. 특히 연산군은 '절을 기생방으로 만들고, 비구니를 기생으로 삼아라'(원각사), '절에 조상의 묘를 세우라'(회암사), '부역을 감당할 수 없다면 절이라도 바쳐라'(범어사, 불갑사) 등 강도 높은 폭정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불교가 억제되는 가운데 불상의 눈에서 피가 흐르거나 땀이 나는 등 도저히 믿기 어려운 변고가 생기기도 했다. 이럴 때마다 유생들은 불상을 우물에 던져 넣거나 불태우고 목을 쳐서 불상의 머리를 떼어냈다. 불교는 민중들을 현혹시켜 나라를 어지럽히는 죄를 지었으므로 사형에 처한다는 이유에서 였다.

"세계 종교 탄압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 조선시대에 자행됐습니다. 요즘 자신의 견해와 다르면 무조건 배척하는 경향이 강한데 바로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 유생들의 불교탄압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고 상생과 화합의 역사를 만들어나가야 겠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쓰게 됐지요."

이런 집필 의도에 따라 정씨는 조선시대 유생들이 불교 탄압을 위해 올린 15만건의 상소문중 가장 자극적이고 극렬했던 것들 107개를 따로 모아 이 책에서 한 장(章)으로 묶어 놓기도 했다. 정씨는 10월 18일부터 내년 4월까지 총 28강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전 9시10분부터 50분간 '조선불교탄압사 부쳐 통곡하다'란 제목으로 불교TV에서 강의한다.

왕조실록서 박해 내용 뽑아 사건순 정리
고송·성수스님 등 생생한 증언 포함

저자, 18일~내년 4월 불교TV서 매주 토요일 특강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기초교리 등 담은 불교안내서

'부처님 찾아가는 길'

영산스님 지음

중명출판사 / 1만2천원



'법화경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영산 스님(진주 해룡사 주지)이 쓴 <행복한 인연 부처님 찾아가는 길>은 기초 교리와 수행법 등을 자세히 설명한 불교 안내서다.

"불교를 처음 접하거나 신심을 가지고 수행하려는 사람, 수행에 정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교 교리를 설명하고, 수행의 안목을 가지게 하기 위해 책을 썼다"는 스님은 "불교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야 말로 일체를 해결하는 근원이자 초석이다"고 강조한다.

1장 '불교의 대의'에서는 불교의 정의와 목적, 삼보와 본존(本尊)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2장 '불교의 계율'에서는 바른 불자가 되는 방법과 '다섯 가지 근본 계율', '열 가지 무거운 큰 계율'을 설명하고 불자가 지켜야할 기본적인 예절을 소개한다.

3장 '불교의 수행'에서는 예불의 의의와 독경과 염불, 정근, 참선을 비롯해 <나무묘법연화경>을 받들어 염하고 부르는 '제목봉창' 등 각 수행법의 의미와 방법, 수행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매순간 현재 삶에 충실하세요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 찾기'라는 주제로 세계적인 명상붐을 일으킨 틱낫한 스님의 최근작 <틱낫한의 비움>이 나왔다.

지금까지 소개된 스님의 책들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책에서는 좀 더 시야를 넓혀 나와 내 가족, 사회와 국가 구성원 모두가 평온을 되찾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서로 상처를 주고 받기 쉬운 가족간의 평화를 되찾는 실천법이 눈길을 끈다. 스님은 지갑 속에 감정이 상했을 때 읽을만한 내용의 글을 쓴 쪽지를 넣고 다니면서, 자제력을 잃으려는 순간 꺼내 봄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볼 것을 권한다. 또한 가정마다 '호흡을 위한 방'을 마련해 마음이 불안하거나 화가 나 있을 때 그곳에서 명상한다면, 가족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마음을 다해 일상에 전념하고 매 순간 현재의 삶에 충실하십시오. 현재의 나를 힘들게 하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욕심을 비움으로써 곱절의 행복과 평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책에서는 사회와 국가의 평화를 위한 '다섯 가지 마음 다함 훈련법'과 '다섯 가지 묵상', '비폭력을 위한 명상' 등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틱낫한의 비움'

틱낫한 지음 / 전세영 옮김

중앙M&B / 9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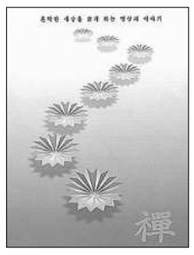
가정, 직장서의 수행방법 제시

"선 수행은 삶의 가치를 확인하는 단순하고도 강력한 방법이다. 판단하지 않고 단지 경험 그 자체의 핵심적인 본성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선 수행이다."

미국의 심리학 박사이자 심리치료사인 브렌다 쇼샤나가 25년간 참선해 온 자신의 경험을 모아 <명상의 시간>으로 펴냈다. 원제가 '선의 기적(Zen Miracles)'인 이 책에서 그는 선의 특징과 수행방법, 삼독(三毒)과 업이 삶에 미치는 영향, 선의 관점에서 본 심리의 본성 등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가정과 직장 등 생활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무문관>과 <벽암록> 등의 선어록에 나오는 화두를 쉽고 간결하게 풀이해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또 각 장마다 '따라하는 선'을 두어, '맨발로 해라', '어떤 것에도 기대지 말라' 등 선 수행의 구체적인 지침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을 지은 브렌다 쇼샤나는 세계적인 선불교 연구자인 스즈끼 다이세쯔 박사의 책을 통해 선과 인연을 맺은 후 틱낫한 스님의 제자인 조앤 핼리팩스와 미국 '평상심(Ordinary Mind) 선원' 원장 샤로테 조코 벡 등의 스승에게서 선 수행을 지도받았다. 최근에는 미국의 각 대학에서 선과 심리학, 선과 사회와의 관계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ABC와 NBC 등에 출연해 명상을 소개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명상의 시간'

브렌다 쇼샤나 지음 / 설문 옮김

빛과 글 / 1만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 자	출 판 사
1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 공 사
2	산중일지	현칙 스님	지 영 사
3	영원한 대자유인	강 정 진	궁 리
4	시공불교사전	곽 철 환	시 공 사
5	나는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되리라	비키 매킨지	김 영 사
6	더 오래된 과학, 마음	허버트 벤슨 외	여 시 아 문
7	삶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	혜 봉 거 사	불 광
8	들숨날숨에 마음챙기는 공부	대림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9	영원한 대 자유인을 읽고	청봉 스님	경 서 원
10	파드마 삼바바	백 이 제	민 음 사

도서 안내 : (02)737-0695

인터넷 · 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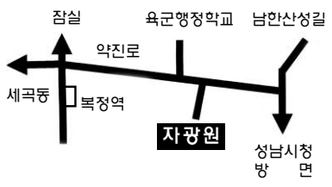
기도처 지연속에 보금자리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정 원 : 24명~30명 내외
◆시설개요 : 본 건 물 →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토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 · 미용실, 식당, 오락실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 · 식 · 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육임강의 · 육임활용서 안 내

활용서 (입금 다음날 수취됨)
■ 육임래정비법 350,000
■ 육임래정비법수정보완본 2,500,000
■ 上 휴대용 (10일치씩 6권) 310,000
■ 육임강의록 (上권 학습용 · 下권 활용서) 410,000
■ 육임 비디오 · CD 900,000
■ 육임신수비결(비디오 1개 포함) 300,000
■ 출생 일시 운명 예언 비법 74,000
(태아(胎兒) 길일 길시 선택 분만 선정 · 택일)

강 의 (전지역 효사선생 직강)
● 매주 일요일 전주 저녁 6시 063-284-7714
● 매주 월요일 광주 오후 3시 062-224-8680
● 매주 화요일 진주 오후 6시 055-755-1644
● 매주 수요일 부산 오후 6시 051-762-0141
● 매주 목요일 대구 오후 6시 053-642-8680
● 매주 금요일 서울 오후 5시 02-993-8680
● 매주 토요일 강남 오후 6시 02-996-3335

문의 02-993-8680
입금처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

● 치열한 이 시대의 예민한 물음들에 대해서는 육임에 나타난 대답이 가장 신임할 수 있습니다. - 효 사 -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이 시대의 화두

생명 · 평화 · 상생



우리시대의 대표적 시인이자, 사상가로서 독보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지하(62 · 세계생명문화포럼 공동추진위원장 겸 명지대 석좌교수 · 사진)씨가 20여년동안 끈질긴 천착과 탐구를 지속해 온 생명 · 평화 · 상생에 대한 이른바 '김지하 사상'의 핵심적 주제를 새롭게 정리해 두권의 책으로 묶었다. <생명학 1 · 2>가 그것이다. 특히 이 책에는 새만금 사업, 핵폐기물 처리장 설립을 둘러싼 갈등 등 최근의 이슈들에 대한 김씨의 날카로운 해석이 실려 있다.

김씨가 '생명 사상'에 심취하기 시작한 데는 계기가 있었다. 1979년 반공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서울 구치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우연히 감옥 담벽의 시멘트 틈새에서 개가죽 나무가 뿌리내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생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김씨는 이 책 머리에서 "새벽녘 긴 명상끝에 움직이지 않는 뚜렷한 한마디는 역시 '생명'임을 확인했다. 생명, 이 얼마나 긴 시간 생명 노래를 불러왔던가?" 라고 출간 소감을 밝힌다. 이어 김씨는 "이 세대의 징표는 삼보일배일지도 모르겠다. 붉은 악마, 촛불, 새만금반대, 핵반대와 부산 금정산 고속철 반대 등이 이 3파(생태학에서의 제3의 물결)에 대한 연속적 대응"이라며 유럽식 '생태학'에 대응해 아시아, 특히 동학의 후천개벽을 바탕으로 동 · 서양 사상을 흡수하려는 '생태학'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생명학 1 · 2'

김지하 지음

화남 / 각 1만원



1권은 '전환기 증후군', '생명사상이란 무엇인가'라는 큰 주제 아래 생태정치학자 문순홍 박사가 묻고 김씨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생명사상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간다.

김씨는 우선 지난 1995년 6월에 발생한 '삼풍참사'에서부터 시작한다. 여기서 그는 "삼풍참사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이란 화두와 함께 세계관의 대전환을 요구한 제 3파적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21세기와 생명사회론'이라는 부제가 붙은 2권은 '생명운동으로 죽음의 운명을 넘어가자', '21세기와 우리의 준비: 생명사회론'이라는 담론을 18개의 주제로 쪼개어 생명사상의 외연과 내포를 심층적으로 확장하고자 했다. 생명에 대한 새로운 정의, 생명에 대한 동양적 개념으로서의 기와 신기(身氣), 수운 최제우의 동학사상을 통한 동서문화의 결합 가능성, 동양의 풍수학과 서양 생태학의 결합을 이야기 한다. 또 현대진화론의 선구자 떼야르 드 샤르뎅의 '진화론'과 수운의 '모심사상'을 비교하면서 인간에 대한 재발견을 모색해 낸다.

이어 생명환경운동의 기본철학으로 동학의 '모심사상'과 뉴턴, 해월 최시형의 우주관을 비교하며 생명사상의 참모습을 이끌어 낸다.

새만금 · 핵폐기장 문제 날카로운 메스

동학사상 바탕 새 생명환경운동 도출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패션 곁들인 기행 · 명상서



'이기향 · 화(華)의 구도여행'

이기향 지음

도서출판 BAF / 1만5천원

이 책은 지난 9월 5일 광화문 갤러리에서 열려 호응을 얻었던 이기향 교수(한성대 의생활학부)의 의상전시회 '화(華)'에 선보인 의상들을 사진으로 찍어 모아 엮은 일종의 패션 사진집이다. '삼매에 든 석가모니', '문수보살을 만남', '명상춤을 추는 여인', '연꽃을 간직한 여인', '모성의 마야부인-인도', '억압의 땅-티베트', '보현보살' 등 의상들마다 제목과 설명을 달아 놓았다. 이 옷들은 그냥 단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선재동자가 52선지식을 친견하기 위해 구법여행을 떠났듯 이 교수가 작품 소재를 찾기 위해 여행했던 나라들 속에서 만난 여성의 모습을 불교적으로 재해석했다. 가령 그리스에서 만난 신비로운 분위기의 여인을 떠올리면서 <화엄경>을 간략하게 줄여 찬탄한 '약찬게' 756글자를 옷에 디자인해 그리스풍의 드레스로 만들었다.

불교 소재 의상사진 곳곳에 경구도

베트남 뒷골목 가난한 여인들에게서 모티브를 따온 '사창가의 순결함'은 월남의 민속복식 아오자이에 스텐실로 작업한 안상수체의 <화엄경>을 적어 넣었다. 또 '모성의 마야부인'은 <화엄경> 제 64 변상도를 쪽빛 노방위에 금박으로 스텐실 작업해 연출한 인도의 전통복인 사리다.

사진뿐만 아니라 책 곳곳에는 마음에 새겨 둘 만한 경구도 들어 있다. '보살행은 자신이 곧 부처임을 믿고 남을 위하여 살겠다는 큰 마음을 내어 완성되나니 지혜와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위해 다함이 없는 시간동안 싫증냄이 없어야 하니….'일부는 경전에서 일부는 일타스님의 <보살의 마음, 중생의 마음>에서 발췌했다. 그래서 책장을 끝까지 넘기다보면 단순한 사진집이 아니라 여러나라를 함께 여행한 듯한 기행서이자 명상서라는 느낌이 든다.

김주일 기자

전문가 서평

'육조단경'

육조 혜능 지음 / 청화 역주

광륜출판사 / 1만3천원



참선수행 최상승선의 지침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결같이 견성성불(見性成佛; 스스로의 성품을 보아 깨달음)의 가르침이고, 불성(佛性)을 깨우치는 동서양의 수많은 성전 가운데 <육조단경(六祖壇經)>은 가장 직절간명(直截簡明)한 견성오도(見性悟道)의 법문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받고 참구할 마음을 내게 하는 절실한 참선의 성전임을 불자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생명의 실상(實相)인 진여자성(眞如自性)을 단번에 깨닫는 견성오도를 역설하는 선(禪)과, 언어문자로 성문, 연각, 보살 등 삼승(三乘)의 모든 그릇들을 두루 살펴 밝혀 놓은 교(敎)와, 진여불성(眞如佛性)이란 우주생명에 온전히 목숨 바쳐 귀의하여 기쁜 마음으로 참구(參究)하는 정토염불(淨土念佛), 이 셋(선, 교, 정토염불)을 원융무애(圓融無碍)하게 두루 통(通)하여, 위없는 큰스님께서 <육조단경>의 가장 오랜 고본인 돈황본(敦煌本) 원전을 역주하신 <육조단경>은 머리말과 해제에서 이미 단경의 핵심요체를 드러낸다. 일러두기에서 언급된 대로, 해득(解得)의 편의를 위해 내용에 따라 10절로 구분하고 한글세대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주옥같은 국한문 혼용의 주석문을 달고, 독송의 편의를 위해 모든 한문에 한글음을 부기한 것 등은 스님의 독자에 대한 자비로운 배려라 하겠다.

삼매의 경지에서 엮은 듯한 정적(靜寂)을 느끼게 하는 장정(裝幀)과 원문과 주석이 동시에 눈에 들어오는 편집, 하나의 오자도 발견하기 힘든 정성이 깃든 책은 가히 손 곁에 가까이 두고 항상 펴보고 싶은 보배로운 수진(手珍)이다.

핵심을 꿰뚫는 혜안으로, 혜능 스님의 인품과 육성을 1,300 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의 생명력으로 살려낸 청화 큰스님의 <육조단경> 역주본은 군더더기 없는 적확한 표현과 감성으로, 참선수행 중 최상승선의 지침서로서 더욱 빛난다.

■배광식/ 서울대 치대 교수

돈황본 원전 역주 · 해제, 한문엔 한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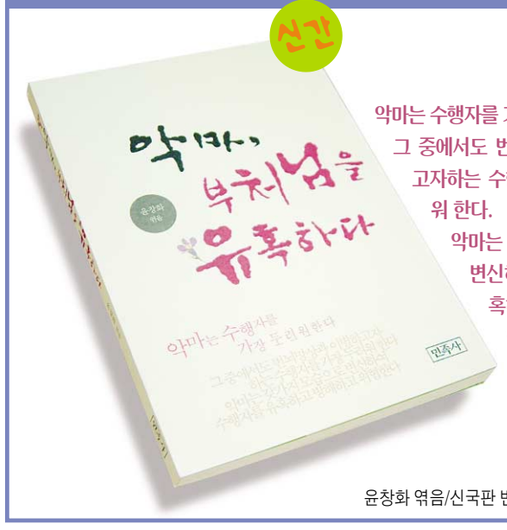
이 책은 중국 남종선(南宗禪)의 소의경전이나 다름없는 <육조단경>을, 한국 염불선의 대가인 청화 스님(성륜사 조실)이 한글로 역주한 불서다.

악마는
수행자를 끝없이 유혹한다.

"누이여, 어디로 가려고 하오?"
"어진 이여, 번뇌를 멀리 여읠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누이여, 이 세상에는 번뇌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멀리 떠나고자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차라리 나와 함께 사랑이나 나누면서 즐겁게 삽시다.
늙으면 후회합니다."

"나는 이미 수없는 생애 동안 숱한 자식을 잃어왔고
또 숱한 남자들과 헤어진 적이 있으므로 이젠 남자에 대하여 더 이상 미련이 없노라.
나는 모든 애욕의 고통을 떠났고 일체의 무지를 버렸노라. 번뇌망상을 없애고
깨달음을 얻어 번뇌의 불꽃을 잠재웠노라."

신간



악마는 수행자를 가장 두려워한다.
그 중에서도 번뇌망상과 이별하고자하는 수행자를 가장 두려워 한다.
악마는 갖가지 모습으로 변신하여 수행자를 유혹하고 방해하고 위협한다.

윤창화 엮음/신국판 변형, 223쪽/값 7,000원

근본불교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는 다른 새로운 해석서.

근본불교 불교입문총서 1



진리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다. 석가세존은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 가르쳤다.
후대의 불교는 세존의 가르침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모한 것이다. 따라서 세존의 가르침은 모든 불교의 근본이므로 '근본불교'라고 해야한다. '원시불교'라는 명칭은 세존의 가르침을 소박하고 유치한 것으로 오인케 할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한 이름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중표 지음 / 신국판 294쪽 / 값8,500원

대승불교와 관련하여 소승불교비판으로부터 전개되는 불교입문서의 전통적 시각과는 달리 긍정적 시각에서 출발하지 않는 한 아비달마불교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어떠한 의미도 없다.

아비달마불교 불교입문총서 3



불타의 팔만사천 법문은 말 그대로 진리에 들어가는 문에 불과하다.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의 해석을 통해 불타의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불타교법에 대해 깊이 연구하여 아비달마로 일컬어지는 방대한 논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시기의 불교를 아비달마불교라 한다.

권오민 지음 / 신국판 367쪽 / 값9,000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불교신행상식 150가지

왕초보, 불교박사되다



이 책은 주로 신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만 간략히 설명한 책입니다. 예컨대
· 방장,조실스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 불전은 얼마나 놓아야 합니까?
· 윤달과 불교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 적멸보궁은 어떤 곳입니까?
· 전생과 내생은 정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처음엔 초보였습니다.

석지현 · 일지 · 윤창화 지음 4×6판 양장 / 320쪽 / 값 7,500원

경전속에 들어있는 불교명언 300가지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인색하거나 탐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욕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하루 한구절,부처님 말씀 300가지! 1년이면 당신도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석성우 · 석지현 엮음 / 4×6판 양장 / 180쪽 / 값 6,000원

죽은 이를 위하여 49재를 지내는 까닭

영가천도와 49재



죽으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극락과 지옥은 정말 있는 것인가?
49재를 지내면 정말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책은 매우 자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계사 율주 종진 큰스님 감수 / 박연진 지음 / 4×6판 양장 / 216쪽 / 값 6,000원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08-1 금강빌딩 2층 전화 : (02) 732-2403~4 / 팩스 : (02) 739-7565 법보시 주문을 받습니다.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ㄱㄴㄷ



세가지 삼매의 조건-無相

무상이란 단어를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특징적인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을 의미하며 일체의 집착을 떠난 경지를 말한다. 원래 한문의 상(相)이란 글자는 모습을 지칭하지만 정해진 특별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특징이나 형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집착을 떠나는 것이 어떻게 해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삼매의 조건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증일아함경>제31 역품에는 다음과 같은 설법이 나오고 있다. "애착하는 것이 있으면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고, 좋고 나쁨을 가리면 더욱 애착하게 된다. 좋고 나쁨을 가림과 애착은 서로 인연이 되어 더욱 얽히고 깊어진다. 그래서 갈등과 번민으로부터 떠날 날이 없다. 애착 때문에 듣는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나니 자기를 잘 다스려 보이고 들리는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

이상의 설법은 매우 인식론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세상은 끊없는 판단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해탈하기 위해 호오를 가리지 말고, 그것에 애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 너를 구분하며, 빈부귀천을 중시하며, 지역과 종교, 국적과 학적 등에 연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요소들이 우리들을 애착하게 만들까? <잡아함경>제36에 의하면 눈, 귀, 코, 혀, 몸, 의식이 우리들을 애착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천인이라는 수행자가 찾아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몇 가지 법으로 세상이 일어나고/ 몇 가지 법으로 서로 매달리고/ 몇 가지 법으로 애착하게 되고/ 몇 가지 법으로 세상을 해치게 되는가?" 이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은 매우 간단하다. "여섯 가지 감각 기관으로 세상은 일어나고, 서로 따르며, 여섯 가지 감각 기관에서 애착을 일으켜/ 여섯 가지 대상에서 세상을 해친다."

부처님과 천인의 문답에 의하면 애착은 눈, 귀, 코, 혀, 몸, 의식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을 여섯 가지의 근본이란 의미에서 육근(六根)이라 하며, 이들에 의해 빛, 소리, 냄새, 맛, 감촉, 인식의 대상(이들은 통칭 육경) 일반으로 표현되는 세상에 해악을 미치게 된다. 이 세상은 빛, 소리, 맛, 감촉, 인식의 대상으로 구성되어진 우리들이 말하는 사물이나 세상이라는 공간에 해악을 끼치게 되고, 인간들은 다시 그 공간의 영향을 받으며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에고·번민등 일체의 집착 떠난 경지
현실속의 자기 직시하는 지혜 필요

세상을 산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님에도 좋고 나쁠을 떠나 어느 것에도 애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애착은 자신의 의지가 흘러가고 있는 방향을 말함과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스스로를 번민케 하고 불만에 빠지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애착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이면에는 모든 사물에는 정해진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진실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우쳐 주고자 하는 배려가 숨어 있다. 동일한 인간이라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혹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하게 보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님이 코끼리 더듬기식으로 자신이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토대로 판단하고 고집한다. 나아가 자신의 시각을 남에게 강요하려고 한다. 그것은 사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만든다.

사람들은 판단의 한계를 이미 지니고 산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어느 누가 더 정확하게 사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려고 노력 하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근원적인 오류 속에서 애착하고 있으면서도 대부분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종을 차별하고 남

그렇다면 이 세상은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희망이란 결국 애착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을 불교의 전문적인 용어로는 무상이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눈, 귀, 코… 등의 통제력을 면밀하게 감시하는 것이다. 이들이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욕심에 허덕이고, 선한 공덕을 지니지 못하며, 불건전한 인식의 대상들로 사로잡혀 번민하게 된다.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은 여섯 가지의 감각기관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죽은 인간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현실의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이며, 현실의 자신을 직시하되 그것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은 역시 변화는 과정에 있으며, 그것들은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순식간에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무상을 체득한 사람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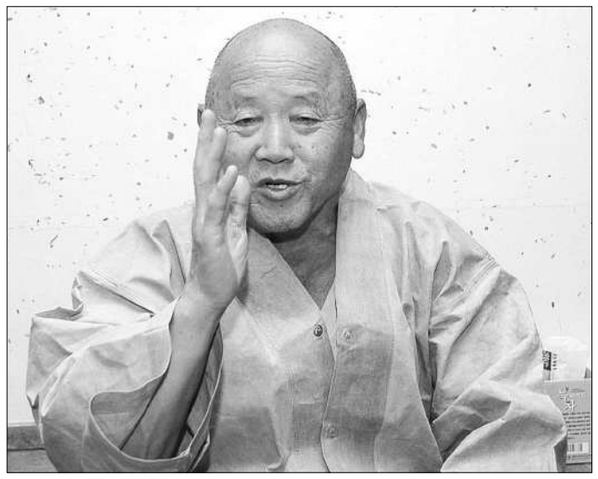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기본질서 파괴
원인·결과 모두 '나의 것'



지상 백고좌

혜 운 스님
(대구 여여선원장)



◇"요즘은 질서가 너무도 파괴되고 있어요"라며 긴 한숨으로 법문을 시작하는 혜운 스님.

세상 사람들은 빠르고 편하게만 살려고 합니다. 남을 배려하기 보다는 자기부터 먼저 챙기다 보니 기본과 질서가 너무도 파괴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온갖 협잡이 난무하는 정치권 소식과 과소비 풍조, 부모를 상해하는 패륜 범죄 소식 등이 하루가 멀다하고 날아듭니다. 이 모든 게 기본과 질서가 파괴되면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기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마찬가지로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화목이 깨지고, 스님들이 승가에서 청규(淸規)를 지키지 않으면 혜안(慧眼)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만사천의 법문들은 모두 세상 만물의 돌아가는 기본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큰 혼란이 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공동체 속에서 공업(共業)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질서를 지키지 않고 나 하나 쯤이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공동체는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초질서라는 문제는 작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공중도덕과 같은 생활의 작은 부분에서 나타나지만 크게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나아가 현대문명의 무분별한 자연환경 파괴는 결국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겠습니까. 바로 우리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고,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이 또다시 기본과 질서를 지키지 않게 되어 그 해악은 결국 나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인연법입니다. 인연법이라고 해서 거창한 무엇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인연법에 대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고 설하셨습니다.

"나 하나쯤…"하는 생각 버리고
正見으로 마음자리 밝히세요

인연법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연관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라 일체의 존재와 미물에 이르기까지, 세계와 중생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에 소속돼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에게,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이 병약자에게 혜택을 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본 순리이자 질서인 것입니다.

여기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이 집의 기둥, 서까래, 기와 등은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서로 떨어져 있다면 이것을 집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있을 때야만 비로소 집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이요 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가 최근 들어서는 망각되어지고 파괴되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개발논리에 의해 자연이 피폐되고 파괴되는 모습들, 자기 입장만을 내세우고 공의를 무시해 정쟁에 휘말린 우리 정치권, 수많은 실직자와 거리에 내몰린 노인들, 오직 출세지향의 교육만을 받아 지혜를 잃어버린 우리 아이들, 이 모든 현상들은 기본질서를 망각해서 발생하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질서가 파괴되는 근본에는 욕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편안하려는 마음, 무엇이든 다른 사람보다 쉽게 이루려는 욕망, 근본이치를 따르지 않고 옳지 않은 샛길을 택하려는 잔꾀가 바로 세상질서의 파괴를 가져오고, 또 역으로 우리가 파괴된 질서로 인해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적어도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는 불자라면 이런 것을 잊고 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만, 절에 잠배하러 와서 오로지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기복적인 기도를 하는 신도님이 많습니다. 정작 중요한 참 자기를 찾는 일은 까마득히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 젊은 신도들은 옳은 말, 바른 말 하는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왜 잔소리하느냐는 식으로 돌아앉기 일쑤지요. 그러나 바른 것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편한 대로 살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답, 그건 실재로 우리 자신이 이미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이 따르지 못한 것이 문제지요. 기본 질서의 파

불교의식(범음 · 범패)
제 2기생 학인모집

본 대구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초종파를 막론하고 불교의식 염불, 또는 범패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이라면(스님)은 물론 현재 사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교임 또는 법사님께서도 본 교육원을 이수하신 후에는 아무런 불편없이 운영하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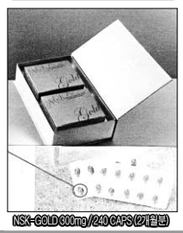
과 정

▶ 의식 초급반(3개월) 주 2회 강의 (매주 월, 화요일)
● 강의시간 : 오후 3시 ~ 5시까지 (2시간)
● 강의내용 : (새벽 도량석, 종성염불, 상단새벽예불, 저녁예불, 아침송주, 저녁송주, 상단불공(재불통청), 신중퇴공, 행선축원, 불공축원, 관음시식, 배송, 사미율법 및 초발심 자경문
▶ 의식중급반 (5개월) 주 2회 강의(매주 수, 목요일)
● 강의시간 : 오후 3시 ~ 5시까지 (2시간)
● 강의내용 : 시련절차, 천도, 49제 재공편, 전점안법, 설교의식, 시왕불공, 시식, 배송, 다비편, 방생의식, 불상 및 탱화 점안법, 예수제의문, 구병시식 등
※ 재장엄번설치법, 령기축원문작성법, 위패, 지의, 전, 작성법
▶ 작법반 : 일반(5개월) 주 1회 지도(매주 일요일)
● 강의시간 : 오후 3시 ~ 5시까지(2시간)
속성(2개월) 주 1회지도(매주 금요일) 시간 : 오후 1시 ~ 4시 30분(3시간 반)
● 종 목 : 천수바라, 도량계(나비춤), 사다나니(가지계) 화의재진연바라
▶ 역학반(10개월) 주 1회 지도(매주 수요일)
● 강의시간 : 오후1시~3시(2시간) ※ 특별강사초빙
▶ 사물특강반 내용 : 태징, 광쇠, 북치는법(천수북, 정근북, 장엄염불북, 요잡쇠)
● 기 간 : 3개월 주 1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5시(2시간)
▶ 속성반 : 의식, 작법, 사물(짧은 기간에 이수하실분은 별도 등록 요함)

대구불교의식 법음 · 범패 교육원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3동 167-14(2층)
원장 주동주(동현) 합장 ☎053)955-7725

고혈압 · 순환기질환
진정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 혈관속에 만병이 있습니다※

◆ 혈전(血栓)이란
혈관내에 생기는 단백질의 피브린을 주성분으로 형성된 젤(gel) 상태의 혈액 덩어리로서 혈액의 흐름을 악화시키고, 각종 질병(성인병)을 유발시킴.
◆ 혈전성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중풍), 노인성치매, 당뇨성정맥폐쇄증, 손발절임, 눈이 침침함 등
◆ 혈전용해효소 (낫토키나제)
대두의 발효중 미생물(납두균)이 만들어 내는 신기능성 특수 효소물질(Nattokinase)
(강력한 혈전용해 능력으로 순환기계질환의 예방과 개선에 탁월한 기능성 효소물질)
◆ 국제혈전용해학회
에 발표(1996년), 분자구조식이 규명되어 그효과가 과학적 으로 입증됨(일본 생물과학 연구소)



NSK-SOLD 100mg/240CPS (2개월분)

● 늘어나는 평균수명과 늘어나는 순환기질환
● 식생활 습관의 서구화 가공식품, 동물성지방 스트레스, 운동부족 환경오염

대건메디칼 053-744-2502 011-811-3938
(약식행심) (안내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에동승복 직원일동 –



춘추복 · 조끼 · 몸배
● 적삼, 조끼, 바지 ₩160,000
● 동방, 바지 ₩160,000
● 두루막 ₩140,000
● ₩60,000
◆ 모직(올 50%) ◆ 광목 ◆ 순면(무늬있는 먹물)
하복 적삼 · 조끼 · 바지
● 구김이 없고 세탁이 용이한 재질 A. ₩130,000 B. ₩160,000
● 마 ₩160,000
● 모직 ₩160,000
셔츠
라운드형 차이나형 칠부
● ₩20,000 ~ 35,000원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경찰서 중간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현시된 사계절 상품 40%할인판매



퇴마승 혜원

영험 도량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접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접신
- 20년전 낙태혼 접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접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 원 사 초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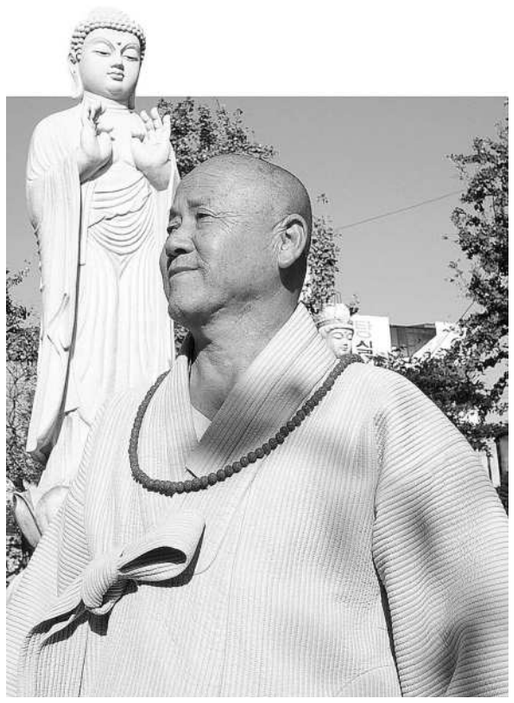
괴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면서도 자기 자신부터 참회하고 그 잘못을 고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아요. 불자라면 기본과 질서의 파괴는 곧 나로부터 기인한 것이요, 그것은 욕심 즉 집착하는 습(習)에서 비롯한 것임을 잘 보아 바른 견해를 가지고 마음자리를 밝게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평소 정견(正見)을 갖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사물의 겉만 볼 줄 알고 내면의 세계를 자세히 살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라는 아집에 사로잡혀 나와 남은 다르다는 편견과 독단에 빠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편견과 독단은 마치 이상한 색이 들어있는 안경과 같아서 그런 안경으론 사물이 제대로 보일 리 없는 것이지요. 혜명(慧明)을 갖고 사물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색안경 즉 아상(我相)을 버려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승가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예외가 아닙니다. 잘못된 사회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우리 승가도 요즘은 너무나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님이 되려면 한 10년 동안 나무도 하고, 공양주도 하면서 스님들 뒷바라지를 충실히 해야 겨우 사미계를 받을 수 있었어요. 비구계를 받더라도 참선과 수행을 게을리 하면 은사 스님의 호된 호통을 듣는 게 비일비재했었지요. 그러나 요즘은 너무 쉽게 스님이 될 수 있어요. 또, 젊은 스님들이 선방에서 수행하기 보다는 행정승이 되려 무던히도 애씁니다. 수행자가 수행을 뒤로한다면 이것은 절 밥을 축내는 밥도둑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승가에서는 대중들의 공의를 모으는 고유의 대중공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승가에 세속의 선거라는 제도를 들여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에서 선거라는 제도의 장점도 많지요. 하지만 이로 인한 병폐도 상당하다는 것을 모두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선거에서 이기려고 상대방의 약점을 찾고, 유권자를 기만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지리 않아 결국 선거가 끝난 후에도 그 후유증에서 자유롭지 못하지요.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요사이 많은 사찰에서 시끄러운 문제가 여럿 생기곤 합니다.


◇먼 하늘을 바라보는 혜운스님의 눈길엔 중생을 걱정하는 마음이 한시도 떠나지 않는다.

질서를 파괴하는 것들

남보다 편안하려는 마음
무엇이든 쉽게 이루려는 욕망
자기 이익만 챙기는 어리석음

우리 승가가 이렇게 계속 세속화된다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승가는 승가다울 때 비로소 삼보의 하나로서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도 질서라는 것에 함의됩니다. 승가에서 고유하게 유지돼 왔던 대중공사를 지키지 않고 섣불리 세속의 선거를 들여옴으로써 선거가 가지고 있는 유해한 것들도 함께 가지고 온 것이지요.

선거를 통한 종권쟁탈의 이전투구는 깨달음으로 가는 공부와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신심명>의 첫구절을 보면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나니 오직 간택함을 꺼립 뿐이다.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통연히 명백해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을진대 어찌 남을 헐뜯고 비방하겠습니까. 이젠 절 집안 풍토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나이 들고 힘없는 스님들은 절안에 있지도 못해요. 북한 동포를 돕고 실직자와 고아들을 돌보는 것도 좋지만 절 집안의 어른들을 먼저 존중해야 그 집안이 잘됩니다. 평생을 수행에만 정진해온 종단의 노스님들이 숙식이 어려워 이곳 저곳을 떠돈다면 그 어찌 자비문중이라 하겠습니까.

<초발심자경문>에 보면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젖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른 법을 배우고 알게 되더라도 지혜를 얻으려 노력하지 않고 어리석게 배우게 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흘륭한 스승과 벗을 가까이 해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생각을 하며,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실천을 쌓아나가 부질없는 집착과 욕심을 버려 고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삶의 기본과 질서를 바로 보고 진리에 따라 바르게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괴로움이 사라지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정리=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기자가 본 혜운 스님

청소년 포교에 심혈…매일 놀이터 청소

혜운(慧運) 스님은 1930년에 출생해 17세의 나이로 동학사에서 대강백 무불 스님으로부터 강을 배우다가 향곡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했다.

스님은 상원사 선방에서 수선안거후 1961년부터 20여 년 간 동화사 염불암 주지소임을 보다가 여여선원을 창건하고 현재까지 수행정진하고 있다. 염불암에 있을 동안에는 노모를 모시고 극진히 봉양했으며, 이후 어머니도 출가해 모자가 함께 수행하는 복덕을 누리는 등 스님의 지극한 효성은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다.

스님은 질서가 파괴되고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세상을 바로잡으려면 수행자는 수행자로서의 기본을, 불자는 불자로서의 기본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님은 나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평생 자동차, 핸드폰 등을 소유한 적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곳, 가볼 만한 곳이 많은데 외국에까지 가서 외화를 뿌리는 것은 수행자의 자세가 아니라며 그 흔한 외국여행조차 하지 않는 청빈한 삶을 살고 있다.

혜운 스님은 청소년 포교에도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어 청소년교화연합회 대구경북지부장을 10년 간 역임하는 등 사회의 새싹인 청소년들이 부처님의 자비 아래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지금은 후학들을 위한 길을 터주기 위해 여러 소임들을 놓았지만, 매일 아침 여여선원 옆에 위치한 놀이터에 나가 어린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쓰레기를 치우는 등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73세의 노구에도 중생에 대한 자비심만은 식을 줄 모른다.

진명스님의 스님이야기



일아스님

세상에는 길이 많다. 땅 위에는 사람이 길을 만들고, 허공에는 새들이 길을 만든다. 바다에는 배들이 길을 만들고 수행자는 깨달음의 길을 만든다. 여기서 달려가고 싶을 때 속도를 조금 늦출 줄 아는 지혜, 힘들어 걷기 싫을 때 꾸준히 한 걸음 옮길 줄 아는 인내, 이런 마음의 질서가 있는 수행자는 삶이 충만할 것이다.

언제나 시간을 충일하게 쓰는 스님, 일아 스님은 삶의 속도를 조율할 줄 아는 스님이다. 누구보다 알뜰하게 수행자의 삶을 직시하고 걷는다. 다른 종교 수도자의 삶을 근 십년에 가까운 시간을 체험하고 출가한 스님이다. 어쩌면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부처님 제자로서의 시간이 길지 않다고 생각해서일까. 강원 학인시절부터 일아 스님의 반듯한 생활의 질서는 도반들의 느슨해지는 정진의 끈까지 살피게 했다.

아마 구족계 수계를 앞두고 서류 준비를 할 때로 기억한다. 다른 종교 수도자로 짧지 않은 시간을 살면서 온 가족을 그 종교의 신자를 만들어 놓고 어느 날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간다고 가족들에게 알리고 홀연히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 다른 나라로 유학 간 줄로만 알고 있던 가족들이 서류가 운문사로 발송된 것을 동사무소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 길로 운문사로 달려 왔었다. 믈론 일아 스님은 가족들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소임자 방에서 두문불출 했고 가족들은 우리 딸, 우리 동생 내 놓으라며 삼일 밤낮을 지키고 있다가 돌아갔다. 나는 그때 일아 스님과 한 방에서 함께 지냈기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림 · 문병성

스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교직에 있다가 너무 부처님 제자가 되고 싶었지만 삭발하는 것에는 자신이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다른 종교 수도자는 삭발은 하지 않으니까 생활이 다르면 얼마나 다를까 생각하고 입회를 했단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이 쌓이고 견딜 수 없어서 단호하게 부처님 제자가 될 것을 결심했다. 그 이후 가족들에게는 연락 한 번 하지 않았기에 가족들은 까맣게 다른 나라로 유학을 떠난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가족들과 한 고비를 넘기고 구족계를 받았다. 졸업 후에 미얀마 수행센터에서 얼마 동안 수행한 후, 미국으로 향했다. 이제 정말 유학을 간 것이다. 보스톤 캠브리지선원에서 일년 정도 정진하면서 숭산 스님의 도움을 받아 영주권을 받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몇 년 전 미국 LA에서 일아 스님을 만났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의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뉴욕 주립대에 입학을 하고 다시 학부부터 종교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스님은 역시 철저한 시간관리와 흐트러짐 없는 생활의 질서를 유지했다.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노력으로 4년 졸업을 할 당시 외국인으로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했다. 스님이 우수상을 받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강의 시간마다 녹음을 해서 듣고 또 들었지. 몇 번을 그렇게 들으면서 교수의 강의를 한 자도 빠짐없이 받아적었고, 그 강의 내용을 다 외워서 요약 정리하는 습관을 갖다 보니 시험에서 많은 분량의 페이퍼를 제출해야 할 때도 그렇게 문제가 없었다" 고 말했다. 생활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철저하다. 스님의 이런 섬세한 질서는 <화엄경>을 볼 때 80화엄을 하루에 몇 페이지, 내지는 몇 권을 봐야 일년에 끝 낼 수 있을지를 면밀하게 계산할 때 알았던 바이지만 글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초심시절 강원에서 서툰 한문을 공부할 때 강사 스님의 강의를 녹음해서 들었던 시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유학간다" 가족에 알리고 홀연 출가

빨리어 경전 한국어 번역에 몰두

그렇게 해서 일아 스님은 학부 4년 동안 모든 성적을 A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많은 학비를 들이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LA 서래대학교에서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의 지도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을 때 까지 여행 한 번 가보지 않을 정도로 시간을 아껴 쓴 결과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세월이 일아 스님을 비껴가지는 않는 지라 이제 스님도 이순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 나이에도 스님은 빨리어 경전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그다지 경전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한국의 불자들을 걱정하며 논장을 제외한 니까야와 경장과 율장에 나오는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해 한 권으로 엮어서 무료로 배포하고자 하는 원을 세우고 오늘도 오롯하게 한없이 무량한 부처님 말씀 속을 걷고 있다.

■ 불교방송 '차 한잔의 선율' 진행자

불가 도인술 전수 수행자 모집

가. 달마 침구술 정체술기 및 교체법 운기 도인술
불교전래 향공법 전수자 근기에 따라 다양한 술기전수
난치병 붙치질환에 특히 적용, 오래된 만성두통즉효
귀신병등 빙의로 고통받는자 즉시 회복 (천도방법전수)
※ 한가지 술기만으로도 명의가 될 수 있는 기회

나. 수행자격 : 신심있는 모든 청신사 청신녀
동 참 금 : 속성 1개월 과정 100만원

▶ 계좌번호 : 농 협 702061-52-052323
국민은행 629-21-0293-427
예금주 : 조 진

여래사 불사에 동참하여 평생 함께 수행하며 노후를 의탁하실 불자님들의 소중한 인연을 기다립니다.
연령 50~60세 전후로 신심있는 불자님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아래 여 래 사
주지 심묵 법장 향장
(011-245-5467)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체이탈과 영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수 있음)
- 조상신과 중엄신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 물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등)
-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영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가가 참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대상 : 스님, 법사

좋은소식(영험도량)

지상의 그 어떤 악한 중엄신도 단방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모든 빙의령)
- 무병,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마귀에 눌리고 환청으로 잠못 이루는 분
- 밤마다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 주위에서 볼때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힘든 행동을 한다든지, 방안에서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등등... 조상의 음덕으로 사업성공을 발원하는 분, 하는일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자비정사 영험도량
02)3453-3421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 : 특징 - 울 50% 폴리에스텔 50%
적삼, 바지 150,000~180,000
동방, 바지 180,000~210,000
두루막 150,000~180,000
2. 무 명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3. 무명, 면 : 면100%[먹물 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솜 없는 누비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00,000
두루막 170,000
5. 면 목화솜 누비 [먹물 염색]
적삼, 바지 230,000 동방, 바지 270,000
두루막 210,000
6. 골 덴 : 면100% 적삼, 바지 180,000
7. 장삼 고급모직 220,000~250,000
대가사 150,000 반가사 70,000
법복 모직 60,000~8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하철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지장보살원력 입은
달마도 보급에 나선 지명스님
달마도의 신비스러운 원력 함께 나누는 삶 서원


지명스님

새벽 밝은 공기가 창을 넘어오는 시간이다. 달마도에 취해 명상에 빠진 지명스님은 남이면 남마다 붓을 들고 그리고 또 그린다. 옛된 여승을 바랑을 짊어지고 목탁을 두들기며 서울 시내 지하철 역마다 내렸다. 다시 타고 다음역으로 향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달마도를 1년에 전 지하철을 4바퀴를 돌며 불교를 전하고 그들의 찌든 마음을 열어주는 포교를 해왔다.

흘가 후 줄곳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발원에 발원을 거듭하며 증진하던 중 지장보살님의 화현하심을 영접하고 달마도를 펼쳐 보여주시며 "이 달마도를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 보급하면 이 달마도가 있는 곳마다 영험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동안 많은 인연들이 저의 달마도를 소장하게 되었지요." 서울시내에만 무료로 일만여점의 달마도를 보급해 그들이 달마도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지난 경제위기 때에는 안양의 OO아파트를 지어 놓고 분양을 못해 부도직전에 이른 수원의 어느 건설회사는 분양사무실에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걸어 놓고 분양을 시작했는데 전세대가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를 마쳤다고 한다. 지금은 구로구에 법당을 마련하고 계속 불사중이며 홈익대에서 체계적인 그림공부를 하면서 날마다 달마도를 그리며 지장보살님께 "이 땅의 병들과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의 법력으로 치유되고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에게 달마선사의 원력으로 어렵고 괴로운 고(苦)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날마다, 날마다 서원하고 있다.

▼ 달마 6폭병풍



문의 전화 02)857-4576, 017)430-5008
보 현 사 지명스님 합장



◇영화 '환생'의 한 장면.

'윤회·환생' 주제 일본영화 상륙

인연의 소중함 상기시킨 불교영화 일본선 관객300만 동원한 흥행작

불교적 개념인 윤회와 환생을 소재로 한 작품성 있는 일본영화가 국내에서 선보인다.

10월 31일 개봉을 앞둔 영화 '환생'은 일본에서 지난 1월 개봉돼 300만 명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작품이다. 세상을 떠나버린 연인과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3주라는 제한된 시간동안 다시 살아나 친지들의 곁으로 돌아다는 기본 줄거리에 착안해 실제로 3주라는 제한된 시간으로 개봉할 계획이었지만, 흥행에 성공하면서 관객들의 요구에 제한개봉을 철회하는 에피소드를 낳기도 했다.

그동안 환생을 주제로 한 많은 작품들은 대부분 비현실적인 환타지 장르가 대부분이었으나, 이 작품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기적을 부른다'는 주제의 드라마다. 초난강(草なぎ 剛)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쿠나사기 쯔요시와 '배틀로얄', '고(Go)'등 의 작품으로 한국관객에게 얼굴을 알린 시바사키 코우가 영화의 드라마적 요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원작은 일본에서 40만부 이상 팔리며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카지오 신지의 소설 <요미가에리(黃泉がえり)>. 스릴러적인 환생이 아닌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상기시키는 내용으로 일본 사회전반에 환생에 대한 색다른 해석을 낳으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환생'은 단순히 소재에서 뿐 아니라 작품 전반에서 인연의 소중함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불교적인 작품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일본인의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불교적 사고도 엿볼 수 있다.

일본에서 흥행몰이를 하며 많은 관객에게 사랑받았던 작품들 중에서도 이와 유사한 소재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지난 해 한국에서 개봉했던 '비밀' 역시, 사고로 엄마와 딸의 영혼이 뒤바뀌어 딸의 몸을 빌려 살아간다는 독특한 소재로, 죽음 이후의 세계가 현생과 완전히 분리된다는 서양적 사고와 차별되는 영화였다. 1999년 작 '러브레터'도 세상을 떠난 연인의 발자취를 따르는 설정을 통해 이승과 저승의 소통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환생 혹은 삶, 죽음에 대한 극명한 대비나 언급 없이 관객의 눈시울을 적시면서 진정한 인연의 의미를 일깨워 준다는데 있다.

앞으로 본격적인 일본문화 개방시대를 맞아 '환생'과 같이 전 국민의 95% 정도가 불자인 일본의 불교적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한상희 기자

연꽃주제 창작발레 공연

손재현 무용단, 대만 까오슝발레단 특별출연

'연꽃'을 주제로 한 현대 창작 발레가 공연된다.

10월 23·24일 양일간 서울 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동국대 손재현 무용단의 '연화(蓮花)'가 바로 그것이다.

무용극 '연화'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청정한 마음을 연꽃에 비유했다. 이 작품에는 분홍색 연꽃을 든 4명의 무용수가 무대로 나와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과 '염화미소'를 주제로 춤사위를 흩날린다. 욕망이나 집착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인간 누구에게나 순진무구한 본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현대 발레로 전해준다. 대만 까오슝(高雄) 시립 발레단이 특별 출연한다.

김주일기자



◇연꽃의 청정무구함을 현대 창작 발레극으로 표현한 무용극 '연화'.



◇송근영 作, '문수보살의 다섯동자'.

佛母작품 100여점 한자리에

17일부터 부산서 '전통문화재 조각展' 찻상·붓걸이·반다지등 소품 50점도

불모(佛母)들의 전통불교조각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전통문화재조각회(회장 안태수)가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부산 벡스코 컨벤션센터에서 '제 8회 대한민국 전통문화재조각회전'을 연다.

지정문화재 조각기능인으로 지정된 작가 56명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불감'(조병현) '참선Ⅱ'(이상철) '문수보살의 다섯동자'(송근영) '오세동자와 관음'(김광현) '보석함'(안태수) '수월관음 목각탱'(한봉석) '아미타삼존불감'(남기설) 등 목·석조 조각품 1백여점이 선보인다. 이외에도 김평기씨는 '찻상'을, 진호주씨는 회나무로 만든 '붓걸이'를, 장동현씨는 느티나무로 만든 '반다지' 등 소품도 50여점 출품한다.

안태수 회장은 "불교미술은 우리나라 전통미술의 주류를 이루면서 민족혼과 정체성을 일깨워 온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며 "하지만 홍수같이 밀려오는 외국문화로 인해 정체성을 찾기가 점점 힘든게 현실"이라고 행사 의의를 설명했다.

격년제로 개최되는 이 전시회는 문화재 조각기능인들의 우수한 전통적 기예를 엿볼 수 있는 자리로, 우리 불교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www.tcsa.co.kr.

김주일기자

인연이 부딪쳐 일으키는 긴장된 만남

이우환 작품전 호암·로댕 갤러리서

돌과 철판, 점과 선, 여백과 조응, 만남과 관계는 조각가이자 화가인 이우환(67)씨의 작품 세계로 들어가는 프롤로그다. 그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린 것에서 그리지 않은 것을 작품의 소재로 즐긴다. '텅 빈 화면에 단 한 번의 붓질로 무엇을 발산하는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저것, 저 사물은 진짜인가' 식이다.

서울 순화동 호암갤러리와 태평로 로댕갤러리에서 11월 16일까지 이어지는 '이우환-만남을 찾아서'는 오랫동안 일본과 유럽에서 활동하던 이우환씨가 69점의 대표작을 풀어놓은 회고전이다.

'점에서'와 '선에서' 연작에 드러나는 그리지 않은 빈 공간은 서구식 여백이나 공백과는 다르다. 붓을 들어 물감이 다할 때까지 긋다 끝나는 행위 속에는 나를 줄이고 상대를 튀어 오르게 하는 상호작용이 있다. 이우환식 여백이다. 그에게 여백은 침묵의 영역이다. 가까이 있는 것,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연이 부딪쳐 일으키는 긴장된 만남의 장이다. (02)734-6111. 김주일 기자



◇수많은 인연이 얽혀 시작되는 만남을 표현한 이우환씨의 '점에서'.

문화소식

전승공예대전 작품공모 올해부터 대통령상 부활

(사)한국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는 '제28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출품작을 11월 12~14일 접수한다.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1천만원이 주어진다. www.kpicaa.co.kr. (02)3453~1685

'불교음악 한마당' 펼쳐 정율스님 김흥국등 출연

진주불교회관은 10월 26일 저녁 7시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불교대중화를 위한 '제10회 불교음악한마당'을 연다. 성악가 정율스님을 비롯해 찬불가수 지언스님, 불자가수 김흥국, 로터스 불교현악 4중주단 등이 연주한다. (055)747-0108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Btn 불교TV <ch 32>

06:30 새로운 인생
07:10 아침저널
11:10 행복스튜디오
14:05 전국은 오늘
17:10 무명을 밝히고
18:15 불교와 생태와의 만남
23:25 명상음악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22일 09:10 묵연 스님의 시와 사랑
23일 20:10 건강이 최고
24일 20:10 디지털 동의보감
25일 12:00 향토음식 기행 전통의 손맛
26일 08:50 조선불교탄압사
27일 09:20 외국인 스님의 영어법문
28일 08:30 화엄경 강의

하이라이트

■**불교방송**:△불교와 생태와의 만남(10월 26일, 18:15~19:00)-불교와 생태학과의 만남을 통해 현대의 생태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 불교 철학자와 생태 환경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생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본다.

■**불교텔레비전**:△수진스님의 화엄경 강의(10월 27, 28일 08:30~09:10)-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스님이 강의로 화엄경을 배우는 시간. 80권본의 방대한 깨달음의 과정을 담은 <대방광불화엄경중> 중 현실적 성불과정을 그린 입법계품을 6개월 동안 강의한다.

제 7 회 대한민국 종교예술제 음악제

– 생명 평화 그리고 사랑 –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가 함께 꾸미는
대한민국 종교예술제 음악제가 오는 10월 28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그 성대한 막을 올립니다.
'생명 평화 그리고 사랑'이라는 주제로 종교간의 진정한 이해와 화합을 도모코자 마련된
이번 공연에는 각 종교계를 대표하여 살레시오수도회, 국악인 박양덕, 가수 한스밴드가 출연하고,
젊은 소리꾼 김용우의 신명나는 퓨전 국악타령이 펼쳐집니다.
팝페라 가수 임형주의 축하공연과 함께 소년소녀연합 합창단이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하는 가을밤의 축제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 시 : 2003년 10월 28일 (화) 오후7:30 ~ 9:00
●장 소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주 최 :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주 관 : 불교방송, 평화방송, 기독교방송, 원음방송
●후 원 : 문화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협 찬 : SAMSUNG 삼성 KCC 금강고려화학 동아제약주식회사 DONG-A PHARMACEUTICAL CO.,LTD.

※ 입장권은 불교방송에서 선착순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BBS 불교방송
http:www.bbsfm.co.kr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 문의전화 : (02)705-5305

제 7 회 대한민국 종교예술제 음악제

•••••• 프로그램 ••••••

가톨릭대 성심오케스트라 / 지휘 : 안동호
●카이저왕을 위한 축일가의 서곡 <베토벤>
살레시오수도회(천주교) ●하느님 그리고 나 ●축제
박양덕(원불교) ●성주풀이, 진도아리랑 ●꽃이 피네 꽃이 피네
한스밴드(기독교) ●선생님 사랑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김용우(불교) ●장타령 ●용천검

특별출연
가톨릭대 성심오케스트라 ●비틀즈 메들리
임형주
●그리워, once upon a dream ●아베마리아

연합합창
한마음선원어린이합창단 PBC소년소녀합창단
CBS소년소녀합창단 원음소년소녀합창단
●친구여 ●그대마음 사랑갖고
●우리는 ●외침

녹차와 절 음식이 만나면

맛·건강 Ok!

'자연건강식'인 사찰음식이 새로운 음식문화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홍승 스님(포교원 포교연구실 사무국장)이 현대인의 기호에 맞춘 '퓨전 사찰음식'을 제시해 화제다. 스님이 최근 펴낸 <녹차와 채식>(우리출판사)에서는 녹차와 사찰음식을 결합해 녹차의 효능과 색다른 맛을 한껏 살린 건강 사찰음식을 소개했다. '녹차와 사찰음식이 만난 이야기'를 들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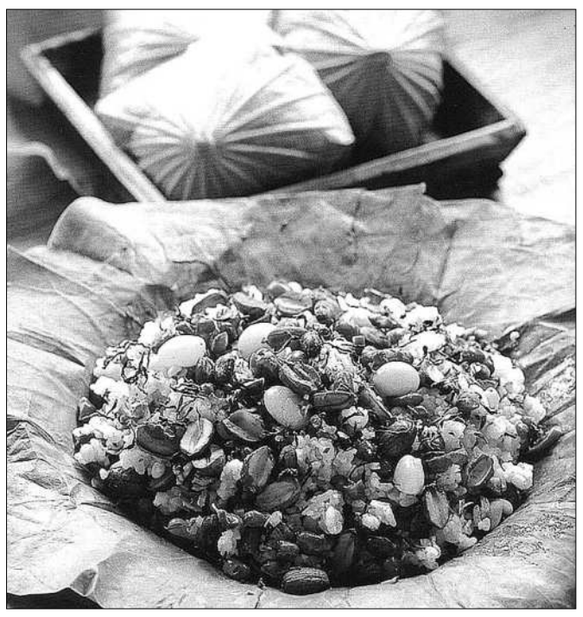
홍승스님 현대인에 맞춘 '퓨전 사찰음식' 제시

▧ 노화 억제등 다기능 식품으로 각광

녹차는 아미노산과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다량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 살균 및 항암효과, 그리고 위장활동 촉진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 노화 억제 및 다이어트, 피부 미용 효과도 있어 다기능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홍승스님은 "녹차를 섞어 맛뿐만 아니라 효능으로도 탁월한 사찰음식을 만들고 싶었다"며 녹차를 응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였다. 연잎과 녹차가 어우러져 일품의 향을 내는 '녹차연잎밥', 우리고 남은 녹차잎을 말려 튀기고 조린 '녹차잎볶음' 등 녹차잎과 녹차가루 등을 첨가한 녹차음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 기본속에 자유로운 변용 시도

홍승스님은 "시대가 바뀌면 조리법도 바뀌어야 한다"며 "비빔밥과 나물 등의 전통 사찰요리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사찰음식도 시대인의 식성을 반영해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신채(마늘, 파, 달래, 부추, 흥거) 사용을 제한하며 사찰음식의 기본은 지켜나가되, 그 밖에서 자유로운 변용을 시도한다는 얘기다. 그를 반영하듯 감자와 김치 그리고 녹차가 어우러진 녹차피자, 언제든지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녹차자장면 등 현대인의 취향과 기호를 녹인 사찰음식이 다양해졌다. 이는 사찰음식 만드는 것도 포교방법 중 하나라는 홍승스님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연잎과 녹차가 어우러져 일품의 향과 맛을 내는 '녹차연잎밥'.

▧ 함께 만들어 봐요

▲녹차연잎밥

준비할 재료

연잎 2장, 찹쌀 300g, 녹차 1큰술, 연자(연씨) 50g, 팥 50g, 잣 30g, 소금 1큰술

만드는 법

① 연씨는 단단한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쪼개 배아를 떼낸 다음 물에 불려둔다.

② 찹쌀은 깨끗이 씻어서 1~2시간 불려둔다.

③ 팥은 씻어서 물을 넉넉하게 부어서 푹 무르도록 삶아 건져둔다.

④ 연잎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없앤 후 연잎을 펼쳐 놓고 준비해둔 재료를 골고루 섞어서 연잎 가운데 놓은 후 남은 여분의 연잎으로 감싸면서 짚이나 실로 묶어서 찐다.

⑤ 애벌 찐 밥을 꺼내서 뒤적이면서 다시 한번 섞어 푹 찐다.

▲녹차잎볶음



준비할 재료

녹차잎 말린 것 100g, 식용유 1½큰술, 진간장 1큰술, 물엿 1큰술, 참기름½큰술, 통깨½큰술

만드는 법

① 우리고 남은 녹차잎을 다시 말려서 사용한다.

② 식용유를 넣은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군 다음 녹차잎을 넣어 튀기듯 재빨리 볶는다.

③ 볶아진 녹차잎에 진간장과 물엿을 넣고 약한 불에 조린다.

④ 마지막에 불을 끄고 참기름과 통깨를 넣어 마무리한다.

▲녹차자장면



준비할 재료

밀가루 4컵, 녹차가루 2큰술, 소금 약간, 식용유 3큰술, 춘장 3큰술, 녹말가루 약간, 우엉 80g, 연근 80g, 표고버섯 3장, 당근 80g, 감자 100g, 애호박 100g, 오이 1개

만드는 법

① 밀가루와 녹차가루, 소금을 섞어서 체에 내려 되직하게 반죽한 다음 젖은 행주에 싸서 둔다.

② 준비한 야채를 작은 깍두기 모양으로 썰어서 준비해 둔다.

③ 오이를 곱게 채 썰어둔다.

④ 반죽해 둔 밀가루를 밀대로 밀어서 0.5cm 정도의 두께로 썰어 마른 가루를 솔솔 뿌려 펼쳐둔다.

⑤ 냄비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두르고 약한 불에서 춘장을 오래 볶아준다.

⑥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우엉, 표고버섯, 연근, 당근, 감자, 호박, 양송이를 넣고 볶다가 ⑤를 넣어 끓이고 거의 완성이 되면 녹말을 물에 개어서 농도를 맞춘다.

⑥ 냄비에 물을 넉넉히 넣고 국수를 삶아서 찬물에 헹군 후 그릇에 담고 자장면을 얹은 다음 오이채로 고명한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클릭! 불교문화상품
mahamall.co.kr

미륵반가사유상

30여 년간 불교조각에 전념해온 지정문화재 이진형씨의 작품으로, 법열에 빠진 싯다르타 태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녹였다. 100% 청동 위에 순금으로 개금한 반가사유상은 개인소장용 · 선물용으로 적절하다. 크기 29cm, 값 580,000원.
(02)732-1520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49재에 대한 제언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부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절에서 지내는 어머니의 49재를 지켜보면서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고 하는 부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거래는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서로 치르므로 해서 성립되지요.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는 말 할 것도 없고 지식을 습득하는 공부도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역시 신도와 성직자 사이에 공정한 거래가 성립돼야 건강한 종교로서의 자기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도는 물질로 성직자를 외호하고, 성직자는 신도들에게 지혜와 자비를 일깨워 줌으로 해서 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는 거지요.

천도재 역시 그 역할 분담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도재를 지낼 때 드는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유족들에겐 부담스러운 액수지요. 하지만 유족들은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천도재를 지내드리려고 합니다. 자신들로서는 영가를 천도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영가를 천도할 수 있는 힘을 해주면 제 마음 속에는 자연히 그 사람에 대해 고마운 마음이 일게 되고, 제 마음 속에서 고마운 마음이 일면 그 기운이 결국은 그 사람한테도 좋은 일을 만들어 줄 테니까요. 말하자면 천도재는 산자와 죽은 자가 서로 고마운 마음을 교류하는 의식이라 할까요? 아무튼 전해오는 말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산자와 죽은 자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場)이 천도재를 지내는 법당이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천도재 법문은 늘 죽은 자에 맞춰지지 않고 산 자에 맞춰집니다. 하지만 이건 크게 잘못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과 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죽은 자의 의식도 산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해도 천도재 법문만은 죽은 영가에 맞춰져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천도재 의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나 '영가가 스님 법문을 듣고 혜(慧)가 밝아져서 새로 마지할 윤회의 관문을 잘 통과하기를, 그래서 다음 생에는 지혜와 복덕을 두루 갖추고 부처님 정법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인연 만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하기 때문에 스님 법문도 당

영가를 위한 진정한 천도재 되길…

이 있다고 믿는 스님들에게 의뢰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고인에게 해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애정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스님들이 영가를 천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유족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천도는 고사하고 오히려 영가에게 실망과 분노만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할 때 유족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너무 두려운 얘기가 아닌가요? 이렇게 두려운 일을 두렵다는 인식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너무 잘못돼 있는 거래죠.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찾아 온 부인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전재한 후 천도재에 관해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 하나는 천도재의 법문 내용을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천도재를 주관하는 스님 혹은 절을 별도로 모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의 제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처음 제안, 즉 천도재의 법문을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그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흔히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영가 뿐 아니라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한테도 이득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누군가가 저를 위해 좋은 일연히 여기에 맞춰져야 합니다. 자신들로서는 영가를 위해 그런 일깨움을 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스님 힘을 빌려서 영가한테 그렇게 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도재 의식을 집전하는 스님은 법력으로 영가한테 그런 일깨움을 줘야 하고, 법력으로 그런 일깨움을 줄 수 없으면 정성으로라도 그런 일깨움을 줘야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없다면 당연히 천도재 의식을 맡지 않으셔야죠. 이것이 영가를 위한 공정한 거래가 아닌가요? 하기 때문에 천도 재 법문만은 영가를 위해 한다는 어떤 내규 같은 것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법문 내용도 미리 정해서 영가 법문만은 정해진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법문을 하시는 스님도 최소한 천도재 의식을 집전하는 과정에서 과오를 범하시는 일은 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과오란 천도재 법문을 듣는 산 사람이나 죽은 영가에게 최소한의 실망과 분노를 느끼게 하지는 않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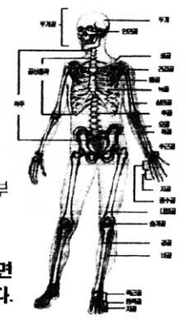
化緣 (02)704-3577

관 절 염
↓
자 생 환(自生丸)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 습 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빠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체탈도첩공고

법 명 : 법 성(法 性)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 1동 84-6번지
지주사 : 대원사(大願寺)

위 승려는 본 종단의 승려로서
타 종단의 승적을 가지고 이중 종단 활동을
하므로서, 본 종단의 명예와 위신을
대외적으로 손상 하였기에 이에,
본종 대중공사에서 체탈도첩 키로 하였음을
공고함.

2003년 10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윤 송 정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당 뇨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생약캡슐

당치 발란스
(糖治) BALANCE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현직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학적 검증을 거쳐 개발된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에 맞춘 혈당강하 식품입니다.

▶당치 발란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7일~15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1개월분 180,000원

개발자(김종연 교수) 약력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주임교수
-영남대학교 기초의학연구소 소장
-영남대학교 비만-당뇨 선도연구센터 센터장
현재 역임중

- 당치발란스의 임상실험 -

당부하검사와 같은 개념으로 200그램의 탄수화물 식이 부하 후 2시간까지의 최고 혈당치가 160mg/dl 이상인 건강인 21명 중 90%인 19명에서 혈당강하 효과가 관찰되었으며, 평균 혈당 감소치는 29mg/dl이었다. 최고 혈당치 120 mg/dl 이하인 실험대상에서는 혈당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주)아미노젠
주문 및 무료상담전화 080-558-6633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33화 제타 태자의 동산

수닷타는 훌륭한 장소를 찾았다는 기쁨으로 그만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 숲은 바로 이나라 코살라국의 왕자 제타(Jeta)의 개인 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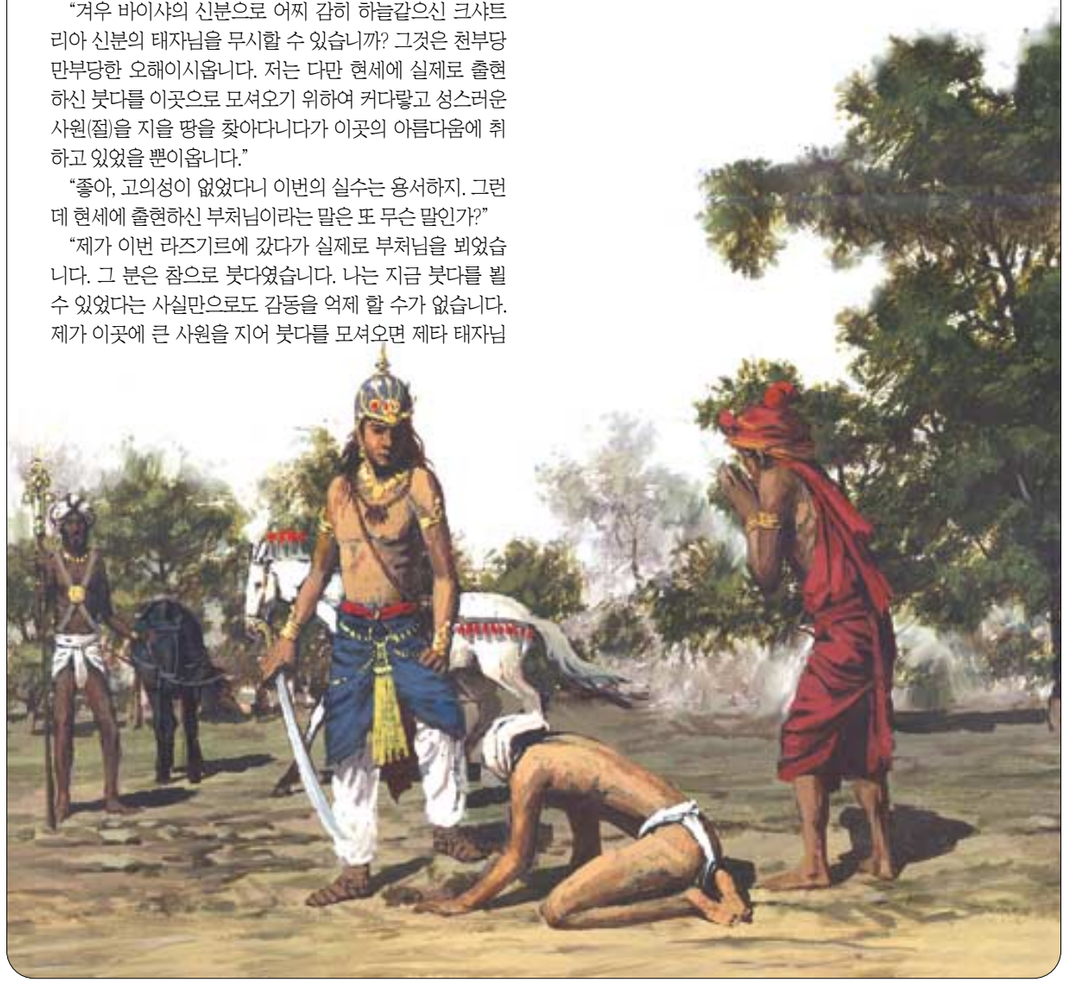
"어떤 놈들이 나의 숲을 허락도 없이 들어와 있는가. 이곳이 나의 소유인지 몰랐던가? 그대는 수닷타 슈레슈틴(Sresthin)이 아닌가? 그대가 비록 이 나라에서 제일가는 부자라 하더라도 나의 사유재산을 함부로 침범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가 없다. 이 태자를 무시하지 않고서는 어찌 감히 이곳에 발을 들여 놓을 수가 있는가."

"겨우 바이샤의 신분으로 어찌 감히 하늘같으신 크샤트리아 신분의 태자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오해이시옵니다. 저는 다만 현세에 실제로 출현하신 붓다를 이곳으로 모셔오기 위하여 커다랗고 성스러운 사원(절)을 지을 땅을 찾아다니다가 이곳의 아름다움에 취하고 있었을 뿐이옵니다."

"좋아, 고의성이 없었다니 이번의 실수는 용서하지. 그런데 현세에 출현하신 부처님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제가 이번 라즈기르에 갔다가 실제로 부처님을 뵈었습니다. 그 분은 참으로 붓다였습니다. 나는 지금 붓다를 뵐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동을 억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 큰 사원을 지어 붓다를 모셔오면 제타 태자님도 그 분을 뵐 수 있습니다."

"코살라의 위대한 제타 태자시여, 제가 이 일대를 샅샅이 돌아보았으나 이 동산만큼 모든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곳은 다시 없습니다. 이곳만이 성스러우신 붓다를 모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분을 이곳으로 모셔오기만 하면 우리 코살라의 백성들도 마가다의 백성들처럼 붓다의 법문을 들을 수 있게 되옵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번만은 태자님께서 양보하시고 이 땅을 제게 양도해 주십시오. 물론 제가 응분의 가격을 지불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만큼의 돈을 드리겠습니다."





"수닷타, 그대는 참 고집이 세군. 비록 그대가 큰 부자라 할지라도 나의 동산을 살 수는 없다. 이곳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가 자꾸만 귀찮게 요구하므로 그대가 살 수 없는 가격을 부를 것이다. 우선 사고 싶은 땅만큼의 황금을 깔아라. 그러면 황금이 덮인 만큼의 땅을 그대에게 팔 것이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대답이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조용히 물러서라. 그러면 모든 것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 한번만은 특별히 용서하여 주겠다."



제타 태자의 엉뚱한 흥정을 들은 수닷타는 그 다음날부터 그의 전 재산을 다 황금으로 바꾸어 태자의 숲을 황금으로 덮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원하시는 땅의 십분의 일도 채 덮기 전에 벌써 황금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내가 평생 동안 피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여 코살라족 제일의 부자가 되었는데 그 모든 재산이라는 것이 붓다를 모시려는 땅의 십분의 일도 덮지 못할 정도의 황금 밖에 안 되었단 말인가…."



물론 다른 장소의 싼 땅을 사들이면 수닷타의 재산으로 충분하고도 남을 것이었다. 그러나 최고의 성인을 모시는 사원을 짓는 데는 최고의 장소를 필요하다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수닷타의 마음이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과연 이곳 제타 태자의 동산만큼 아름다운 곳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마침내 낙심한 수닷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슬픔에 젖어 있었다.

그때 수닷타가 좌절하며 주저앉은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제타 태자였다. 그는 수닷타가 얼마나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모은 돈을 모조리 땅바닥에 깔도록 요구한 것은 참으로 잔인한 시험이었다. 그러나 수닷타는 더 이상 아무런 애착도 없이 그가 생명처럼 아꼈던 전 재산을 땅바닥에 깔고 있었던 것이었다.

"도대체 무엇이 수닷타로 하여금 저런 행동을 하게 하고 있는가? 아무리 붓다라 하여도 단 한번 만나고는 수닷타를 저처럼 변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전설로만 들어오던 부처님이 현세에 출현하셨다는 수닷타의 말이 정말이었을까? 좋다 수닷타여, 내 이 동산을 그대에게 기꺼이 주리라. 그 뿐만 아니라 붓다를 위한 사원을 짓는데 필요한 목재도 줄 것이다. 그대는 지금 땅에 깔린 황금을 다시 거두어 그 돈으로 그대가 원하던 붓다의 사원을 짓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에 사계절 없는 봄이 와야

마음의 봄을 얻으려면

문 스님께서는 나와 남을 둘로 보지 말고 일체를 나와 같이 보며 누구에게나 한마음으로 포근하게 안아줄 수 있는, 봄처럼 따뜻한 마음을 지닌 수행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의 마음을 지켜보면 상대에 따라서 춘하추동이 엄연히 정해져 있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따져서 상대를 대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라는 생각을 벗어나서 누구에게나 따뜻한 봄기운을 전해줄 수 있는, 봄처럼 만 생명을 한마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수행자가 되려면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요?

답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사계절 없는 마음의 봄이 와야 합니다. 마음의 봄 말입니다. 사계절 중에서 겨울이 좋은 사람은 겨울로 쫓아가고 여름이 좋은 사람은 여름으로 쫓아가고, 가을로 봄으로, 사방으로 흩어져서 쫓아다니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근본에서 나오는 것이고, 일체 만법이 들고 나는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 한 군데에서 봄날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곤충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사생에 대한 문제가 천차만별로 돼 있는데, 천차만별로 돼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사계절 없는 마음의 봄이 된다면 얼마나 자유스럽고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뜻을 알지 못하고, 과거에 수억겁을 거치며 쫓고 쫓기면서 살아온 악업 선업을 잔뜩 짊어지고 이 세상에 나서 지금 모두 살고들 계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과거가 따로 없고 미래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을 것이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을 것이고 현재는 공했기 때문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공한 자리에서 내 마음의 봄을 찾지 못한다면 인간으로서 자유스럽게 살지 못하며, 항상 말씀드리지만 악업 선업의 업식 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업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수없이 행해 온 악한 일 선한 일들이 용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그 수십억의 업식들이 화해서 내 눈 앞에, 죽은 혼백 앞에 그냥 줄줄이 늘어서게 되니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는 것이죠.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으니까 벗어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업식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장자 설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들어서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 주인공 자체 근본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아주 더 바랄 게 없는, 칠보보배를 가득히 가지고 있는 부자인데, 자식은 아버지를 찾지 않고 고아로서 항상 바깥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가난하고 배가 고프고 추운 겁니다. 그러니 아비를 찾아야 된다 하는 걸 말했을 겁니다. 아비는 자식을 아는데 자식은 아비를 모르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의 영원한 자기의 근본, 즉 말하자면 주인공은 아비가 되고 지금 육체를 움죽거리고 다니는 운전수는 자식이 되는 거죠. 그게 마음입니다. 죽은 아비요, 그 열 가지 백 가지로, 천차만별로 생각내는 거는 바로 아들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하자는 대로 육체는 따라다니니까 마음에 따라서 배가 고프게도 만들고 구덩이에 빠지게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맷돌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맷돌을 돌릴 때 그 심봉, 축을 끼우지 않고 돌리면 잘 갈아집니까, 안 갈아집니까? 안 갈아지죠? 그것을 끼우고 돌리면 잘 갈아지듯이 우리가 일체를 소화시키는 데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생활을 해 나가는 거하고 안 믿고 그냥 해 나가는 거하고는 천차만별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두루 할 수 있는 묘법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도 말고 낮게 생각하지도 말고, 일체를 낮다고 깔보지도 말고 높다고 높게 보지도 말고 평등하게, 자기로만 보세요, 자기! 몸도 자기와 같고 아픔도 자기와 같고, 모든 걸 자기 같이만 본다면 외착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마음은 항상 봄이 오게 됩니다. 이 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계절이 있지만 진짜 안다면 사계절이 없습니다. 항상 봄이죠. 여기에서는 불을 껐다 켰다 하니까 '켜라, 꺼라' 하는 언어가 붙지만, 어떤 세계에서는 항상 밝아 있기 때문에 '꺼라, 켜라' 하는 언어가 붙질 않습니다. 그 도리를 아시면 바로 이해를 할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고 앉고 싶을 때 앉고, 이게 그대로 참선이에요. 그래서 자나 깨나,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도 장사를 하면서도 앉아 있으면서도 서 있으면서도 누워 있으면서도 진실히 관하게 되면 그대로 참선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스님이, 정말 제일 큰스님이라고 칭송이 자자한 스님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마적이 많았는데 그러한 산도둑들이 떼로 몰려 앉아서 그 스님이 오시는 걸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스님이 그렇게 유명하다니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고 하면서 칼을 들고서는 그 스님이 오시는 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스님이 오시니깐 하는 소리입니다. 자기 속말로 '저렇게 묘하다는 스님이 내가 여기서 자길 죽이려고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오네, 저렇게.' 하면서 방탕한 웃음을 웃으면서 그 스님이 오시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유명해 봤던들, 당신 가슴에는 철판을 깔았기에 칼이 안 들어가느냐? 당신이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이 칼은 사정없이 당신의 가슴을 찌를 수 있다. 당신의 가슴을 찔러서 뭐가 그렇게 유명한 게 있나 하고 한번 보고 싶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깐 그 스님이 있다 하는 소리입니다. 껄껄 웃으면서 "추운 겨울에 고목을 자른들 꽃이 나오겠냐? 봄이 오면 스스로 이 고목에서도 꽃이 피고 스스로 열매가 열릴 것을 말일세. 그러니 그 뜻을 알게." 그러시고는 가시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도둑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아, 그 말에 고만…. 그래도 수십 년을 마적으로 다닌 경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고만 그 소릴 듣고 칼을 뚝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리고 거기서 그냥 삼배를 올리고, 자기 꼬마 도둑들도 다 그 스님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좀더 이 마음의 도리를 공부하셔서 내 마음의 봄을 맞이하세요. 봄은 항상 봄이지 사계절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봄이 와서 물이 흐르고 그 물 맛이 좋고 열매가 열려서 수많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무르익은 열매를 아마 익히신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그 만 가지 열매의 만 가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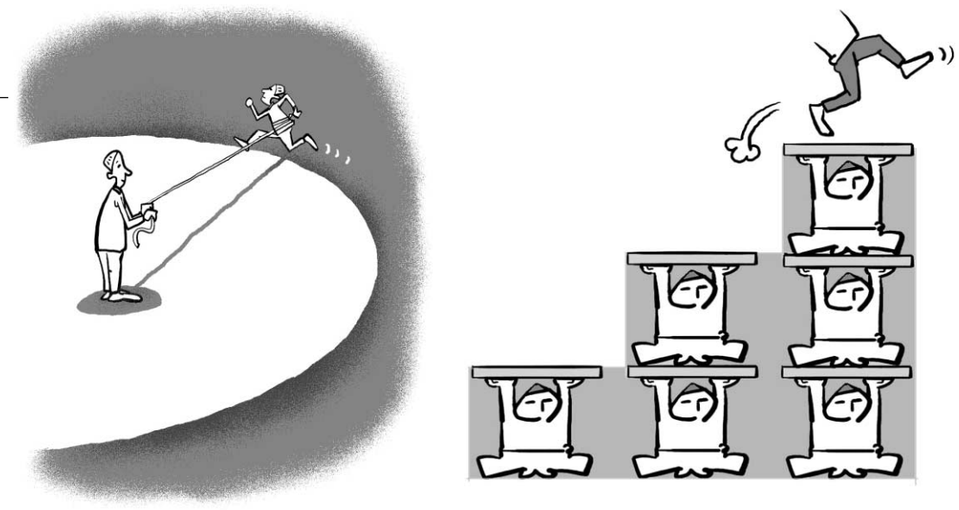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한마음 주인공이라는 방편

문 저는 책과 인터넷을 통해 불법을 공부하고 있는 신도입니다.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생활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한마음 주인공이라는 방편을 세우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 그것은 방편이 아닌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일체가 다 그 자리에서 들고 나니까 용도에 따라 나오는 대로 다시 거기다 돌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공에 관하라고 하니까 자기 빼놓고 개별적으로 주인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다가 해달라고 그러면 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공, 당신만이 해줄 수 있어.' 하고 믿고 놓는 거하고, '이것 좀 해주시오. 저것 좀 해주시오' 하는 것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믿지 못하고 해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복이지요. 자기가 하는 것을 생각 못하고 그냥 복만을 달라고 하는 기복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자리는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주인공'이라고 하였는가. 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하듯이 내 몸 속에 있는 일체 생명들, 또는 외부의 모든 것이 오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 생각해 보세요. 몸 속에 생명체가 너무 많은데 공생이지, 그게 개별적인 자기 생명 하나입니까? 그래서 공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생명이 많이 들은 것만 봐도 공생인데 모두가 혼자 살 수 없는 도리가 외부에 있다 이겁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있고 회장이 있어야 사장이 있고 사장이 있어야 직원이 있듯이, 이거는 어느 한쪽이 없어도 무효입니다. 작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혼자 먹는 게 하나도 없고 혼자 버는 게 하나도 없고 혼자 쓰는 게 하나도 없고 혼자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 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기를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 그러니 주인공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내 속에 그 많은 생명들이 저 좋은 대로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서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 달라고 하니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직원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바로 자기인 것입니다. 자기가 수효가 그렇게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혼자 먹는 것도 없습니다. 혼자 보는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결부됐으니까 말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간장이니 위장이니 심장이니, 모든 게 한데 붙어서 정맥 동맥이 같이 돌아가니까 혼자 사는 게 어디 있고 혼자 먹는 게 어디 있고 혼자 일하는 게 어디 있고 혼자 했다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일상생활에 그대로 근본과 마음내는 거와 육신이 움직이는 것과,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육신이 움죽거린다는 것을 알면 모두 내면의 내 마음에 의해서 움직임을 아셔야 합니다. 내 내면 속에서 마음의 선장이, 선장이 이렇게 하자 하면 전부 따라줍니다. 이렇게 좋게 하자 하면 좋게 따라주고 도둑질하자 하면 도둑질하는 대로 따라주고 말입니다. 이렇게도 따라주고 저렇게도 따라주는데, 왜 거기다가 맡겨 놓으라는데 믿지를 못하고 그럽니까. 모두가 자기 아닌 자긴데, 전체가 자긴데 말입니다. 자기 이름을 수효대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하고, 포함해서 '한마음 주인공'이라고 이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마음이라고 그런다면, 속에서 모두 나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다스리는 내 마음이 자꾸 감지가 되니까 저절로 '아! 나하고 들이 아니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자, 몸이 아프던 것도 자기가 자기를 낫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모든 걸 안에서, 몸 세포 하나하나에도 생명이 붙어있고 그렇듯이, 바깥에서 안으로 두면서 한마음 주인공이다 이런다면, 전부 한마음으로 이끌어지게 되거든요. 한마음으로 이끌어지게 되니까 어디가 파워가 일어나서 좀 그러하더라도 그걸 메꿔주는 거예요. 즉, 자기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나 따로 부처님 따로, 되는 거 따로 안되는 거 따로 이렇게 모두 갈라놓고 한다면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일이 쫓아다녀도 일일이 해만 돌아오지 이익한 게 없어요.

마음속으로, 한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만이 잠, 시주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자기 주인이 한 거기 때문에, 모든 한마음의 도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공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절에 그냥 왔다갔다 하고 촛불이나 켜고 향이나 켜고 물이나 떠놓고 꽃 공양이나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하면서 '나 절에 갔다 왔어. 나는 불교를 믿어.'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자기를 알고, 자기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진 걸 알고, 자기로 인해서 모두가 공용하고 돌아간다는 거를 알아야만이 불교를 바로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면 모든 게 해결되나요?

문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내 안의 마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답 말하자면 우주의 근본도 여러분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자체가 바로 근본에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그냥 여여하게 돌아가

☞30면으로 계속

일을 하면서도 장사를 하면서도 앉아있으면서도 서있으면서도 진실하게 관한다면 그대로 참선

자기를 알고 자기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진 줄 알고

자기로 인해서 모두가 공용하고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29면에서 계속

우주간 법계의 근본이 우리 마음의 근본에 직결되어 있어

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교라는 의미는 만물만생의 생명, 그 근본이 불(佛)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 일체가 다 같이 통하고 교류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교(敎)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는 그 자체는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돌아가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 불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말입니다. 어떤 종교라 할지라도 각자 생명의 근본이 있고, 말을 해서 서로 교류하고 전달하면서 돌아가니 모두가 불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불교라는 자체는 너무나 광대무변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 없이는 세상에서 창조력을 기를 수도 없고 창조를 해낼 수도 없고 발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태어났으니까 상대가 있고 잘못됐든 잘됐든 부딪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상대도 없고 부처도 없고, 모두가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라. 너부터 알고 너를 깨달아서 본다면 모든 중생과 부처가, 일체가 다 둘이 아닌 도리를 알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갑니까? 애고든 병이든 한 애고에 대해서 모든 거를 놓을 때는 자동적으로 산신도 되고 칠성도 되고, 병고가 있어서 거기에 되돌려 놓을 때는 바로 약사가 되고, 좋은 데로 가지 못해서 놓을 때는 바로 지장이 되고…, 그 한 군데서 그렇게 일체 만법을 굴리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이름해서 수레공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거기다가 되돌려 놔야 됩니다. 내가 왜 나오는 대로 주인공에 되돌려 놓으라고 하느냐 하면, 주인이면서도 주인이 없고 그냥 돌아가는 그 자체가 이름해서 바로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거 거기다가 되돌려 놓아야 됩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일체가 다 나지, 자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부딪침도 있고 화도 나고, 애고도 생기고 병고도 생기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그런 이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나오는 거라면, 바로 되돌려서 거기다가 놓는다면 새로이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입력된 거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 나오기 이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작년 씨를 올봄에 심었더니 싹이 돼서 화했더라 이거죠. 그 싹에서 수박이 열려서 씨가 그 안에 있으니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수박씨는 현재 자기한테 있으니 바로 수박을 그냥 쪼개서 맛을 보고 씨를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뭣고?' 하고서 바깥으로 10년 20년 해도 도대체 해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생각으로 과거 씨를, 내가 나오기 이전을 찾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다 들어 있으면서도 둘 아니게 공하여 화해서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역력히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 악업 선업이 수십억이 들어 있습니다. 수십억이 들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 다들 아시지요? 어느 수좌가 동짓날 팥죽을 쑤는데 팥죽 방울이 수없이 나오니까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하고 주걱으로 쳤다는 얘기 말입니다. 그것을 왜 주걱으로 그렇게 쳤는지, 무슨 까닭으로 "문수다! 문수다!" 했는지 그 뜻을, 그 뒷면을 아셔야 될 겁니다.

지금 되돌려 놓으라는 그 뜻도 그와 똑같습니다. 망상이든지 뭐든지, 우리의 마음이, 안에서 나오고 바깥에서 들어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딴 데서 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팥죽 솥에서 팥죽 방울 일어나듯 하는 겁니다. 딴 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뺏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 이것도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 하고 주걱으로 치듯이 놓아야 합니다. 왜냐? 팥죽 방울이 올라오는 게 바로 마음 일어나는 것, 생각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 일어나는 것이 팥죽 방울 일어나듯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팥죽 방울은 딴 데서 온 게 아니라 팥죽 솥에서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팥죽 솥이라면 바로 팥죽 방울이 망상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게 망상이 아닙니다. 이것도 법, 저것도 법, 그것도 법이다 이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처요, 생각을 냈으면 법신이요, 움쭉거리면 바로 화신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건 자기가 뜻을 이루어서 그거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한테 귀감이 되고 여러분한테 법을 전한 것도 됩니다.

우리가 모습만 보고 이름만 듣고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오신통이라는 통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통 안에서 벗어나야 되겠기에 모든 것은 마음에다 되돌려 놓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증오하지 말고 남의 탓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가정에서 남편이나 자식이 어떠한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말로 그 몸뚱이를 잡으려 할 게 아니라 마음으로 서로가 밝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심력을 키우는 것만이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전깃줄과 전깃줄이 맞닿아야 불이 번쩍하고 들어오듯이, 내 주인공에 되돌려 놓으면, 모두가 가설이 돼 있으니까 거기까지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부모, 형제, 부부, 자식, 친구라고 알고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주인공에다가 모든 거를 맡겨 놓으면 거기까지 불이 들어와서 서로가 밝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발견하는 지름길이며 그대로 여여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공이라면 왜 살아야 하나요?

문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 지구는 수련장과 같아서 육신이라는 씨앗 속에 영혼이라는 보배를 가꾸고 순화시켜서 천국의 예수님께 끌 날에 열매로 바친다며 기도하고 영혼이 늘 평안하기를 찬송하였습니다. 이는 참 세상을 인간으로 살아가는 타당한 이유를 전하는 복음으로 모든 고난과 질곡을 감내하는 좋은 사유였지요.

그런데 부처님은 창조대신 인연을 말씀하셨고 로고스대신 마음이라 하셨는데 무아라는 이론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온의 가합된 공이라면 저는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자비를 설득하는 방편일 뿐 너무 적나라한 이론으로, 제가 텅 비어 있다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인가요? 제가 공이라면 왜 살아야 하나요?

답 여러분이 알게 되면 '참 희한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찰나찰나 아버지 노릇 하고, 엄마 노릇 하고, 자식 노릇 하고, 사위 노릇 하고 이러죠? 그 얘길 항상 하죠. 그런데 그렇게 찰나찰나 내가 생활하고 돌아가되 찰나찰나 그렇게 많은 것이 천차만별로 돌아가니까 어떤 거 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기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초월해서 돌아가니까 '함이 없이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함이 없이 하는구나.'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됐을 때에 나라고 할 건가, 남편이 됐을 때에 나라고 할 건가, 자식이 됐을 때 나라고 할 건가? 나라고 붙일 새가 없이 자꾸 찰나찰나 나투며 화해서 돌아가니까 나라는 걸 이름해서 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공했노라' 또는 '나는 없노라. 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노라, 나는 한 일이 없노라. 나는 여러분한테 설법한 일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도 살아보면 알듯이 그저 쳇바퀴 돌아가듯 남편 노릇 했다가, 자식 노릇 했다, 아버지 노릇 했다가 그저 여러 가지로 매일 돌아가는 게 그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 할 때에 남편이 했다고 그러고 어떤 거 할 때에 아들이 했다고 하겠느냔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가니 나라는 게 없이, 나라는 게 너무 많아서 그냥그냥 그렇게 아버지 노릇 하고 남편 노릇 하고, 자식 노릇 하고 사위 노릇 하고, 친구 노릇 하면서 여여하게 돌아가더라. 이러니 어찌 붙을 게 있겠으며 어찌 붙는 게 없겠습니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붙을 게 없다는 것을, 공해서 없다는 거를 알면 붙을 게 없을 것이고, 이것이 그저 천차만별의 바깥으로 끄달리고 그저 '내가 있다, 내가 한다, 내가 했다, 내가 줬다' 이거 모두가 나, 나, 나, 나 이러고 돌아가면 꼭 그냥 매사 게 붙어서 걸려 돌아가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주인공에게 맡기는 것이 자신을 발견하는 지름길이요 그대로 여여하게 되는 방법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라 너부터 알고 너를 깨달아서 본다면 일체가 둘 아닌 도리를 알 수 있다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소화를 잘 시켜서 아주 금새 소화가 되고, 그저 먹는 대로 소화가 잘되면 그대로 여여한 거고, 그저 욕심 많이 내고 어떠한 거든지 먹어서 체하면, 체해서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대변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다면 걸려서 죽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잘 써서 소화가 잘되면 거침없고 걸림없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그걸 재료로 알고 실천을 해서 체험을 하고 이런다면 그게 마음의 발전이 돼서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고, 과학적인 문제가 거론되고, 창조력이 생기고 이러지마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내내 이것은 걸려서 그저 무의 50%, 정신세계는 모르고 물질세계만 알고 하니까 걸려서 못 사는 겁니다.

지금은 정신을 뺏어 먹고 정신을 뺏기고 잡아먹고 이러고 사는 시대가 아닙니까. 꼭 육을 뺏어서 잡아먹어야 잡아먹히는 게 아니거든요. 정신을 뺏어 먹고 정신을 잡아먹고 사니까 정신을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정신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누구나가 다 자기 자신부터 알고 믿고,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거기에 맡겨 놓고 내 마음을 증득해서, 즉 말하자면 정신적인 과학, 정신적인 생활, 정신적인 문화 문명이 발전이 됨으로써 전체가 화합 단결해지고 또는 경제난에도 허덕이지 않을 거고 우리 지구가 수명이 짧아도 또 재료를 다 끌어 잡아당겨서 다 쓸 수 있는, 그러한 광대무변한 법이, 그 능력이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다 주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깐 그렇게 내 마음을 먼저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종교이건 그렇게 하지 않고 바깥으로 찾고 끄달린다면 아무리 해도 나를 발견하지는 못해요. 20년, 30년 가도 나를 발견하진 못합니다. 증득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위할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죄를 졌어도 '하느님 아버지시여!' 그러고 다 밀어 던져 놓고 이렇게 사니까, 자기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발현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해성사를 할 때도 내가 잘못해 놓곤 신부님한테 가서 고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은 순간적으로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게 지워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아는 거 우주간 법계에서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걸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는데 그게 지워지나요? 그러니 우주의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 근본에 직결이 돼 있고, 또한 인간살이가 전부 마음에 가설이 돼 있는데, 내가 내 잘못을 다른 누구한테 전가를 한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리거나 또 지워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부터 알아야겠다. 잘못하는 일이 있다면 잘못하는 일을 미리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인간이라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하고 하는 건 자기 마음이 아니겠느냐. 그거 마음대로 할 건데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 마음의 도리를 배우면 평화스러워지고 내가 나를 발견해서 자유인이 된다.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을 한마음으로 리드하면서 화합을 가져오게 되고, 화합을 가져오게 되면 건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도리를 배워서 모든 거를 화합하게 할 수 있다면 내 가정도 화합과 또는 우애와 조화를 이루게 되고, 또는 나도 그럴 거지만 세계도 또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들 노력해야 합니다. 모두가 둘이 아닌 줄을 알고 그렇게 실천해야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지구의 수명도 늘이고 줄일 수가 있는 것이구요. 그렇게 하다보면 태양과 월세계, 모든 혹성들도 다 나 아님이 없다는 그런 도리도 알 수 있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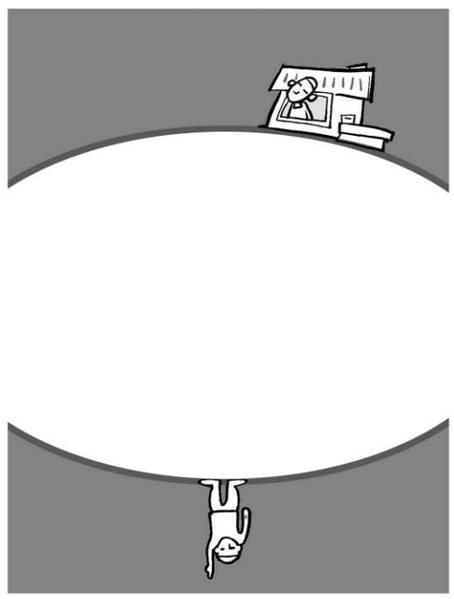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기쁘든 언덕을 넘든 그 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서구학교 불교강의, 동아리 개설 '붐'



◇지난 4월 11일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에서 열린 독일 알버트 아인슈타인 김나지움 9학년 학생들의 타종교(불교) 방문수업중 다도체험 장면.

학생들 요구에 증가 추세
인근사찰 방문 특강 갖기도
심신의 안정 찾을 수 있어 인기

중 · 고등 · 대학교에서 가사장삼을 두룬 스님을 지도교사 또는 교수로 만난다? 최근 들어 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 미국 등 서양의 학생들이 선택 혹은 필수 과목으로 스님의 지도를 받는 모습은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서구 학교 내에서 명상을 비롯한 불교 강의가 정규 수업과정으로 생겨나고, 학생들의 불교동아리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들의 몸과 마음의 건전한 조화를 위한 학교 측의 배려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국 웨일스 남부의 카디프 시는 올해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롭카(Ropka)'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도움과 보시를 의미하는 티베트어에서 이름을 따온 롭카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명상 등 불교식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2002년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West Point Academy)에서는 명상을 주제로 강의를 개설했고, 아이오와 페어필드의 마하리쉬 대학교와 초 · 중 · 고등학교에서도 매일 두 번의 명상시간을 마련했다.

독일에서는 명상과 같은 수행법만이 아닌 부처님의 생애, 교리 등을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불교수업이 정규과목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의 중 ·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베를린의 공립학교 샤로튼버그(Charlottenburg) · 존레논(John Lennon) 김나지움에서는 지난 8월부터 중2 학생들에게 불교의 자비와 관용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불교를 교과시간표에 편성했다.

또한 독일 뒤셀도르프의 알버트 아인슈타인 김나지움(Albert-Einstein Gymnasium)의 학생들은 지난 4월 종교수업의 일환으로 인근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을 방문해 선차(禪茶)를 체험하고 스님과 문답을 하는 등, 불교 특강을 갖기도 했다.

캠퍼스에 명상과 불법의 기쁨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다. 미국 뉴 멕시코 대학(UNM)의 제니퍼 헤이그(Jennifer Haig) 양은 얼마 전 학생 명상 모임을 조직했다. 그는 "학생들의 일과는 스트레스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며 "명상 모임의 목적은 학생들과 교직원이 명상을 통해 정신적 피로를 떨쳐내고 스스로 행복해 질 수 있음을 자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모임을 지도하는 켈상 곰람(Kelsang Gomlam) 스님은 "학생들이 학업 등에서 비롯된 과도한 집착을 털어버릴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캠퍼스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쁜 삶을 한숨 돌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라며 학생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학생들 또한 수업을 통해 명상을 접한 뒤 긍정적인 반응이다. 뉴 멕시코 대 3학년 스테판 갈빙 밀러 군은 "명상은 하루 중에서 휴식을 취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점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준다는데 있죠"라고 명상수업을 극찬한다.

이처럼 서구의 학교에서 명상 등 불교강의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이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데 있다. 몸과 마음이 피로한 그들에게 불교의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을 올바로 닦는 법을 지도해 예민한 시기의 사춘기 학생들이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 지는 불교수업은 청소년의 탈선을 막아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데도 효과적이라고 분석한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서양 종교 위기

'뉴욕 타임즈' 13일 보도
유럽 상대 기독교세 분석

지난 수세기 동안 세계 발전에 영향을 미친 서양 종교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뉴욕타임즈>가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때 번성했던 서양 종교의 쇠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재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에서 약화되고 있는 기독교세를 분석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매주 일요일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도는 프랑스에서는 20명에 1명 꼴이며, 영국에서는 2천 5백만 명의 기독교신자 중 1백 20만 명만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교회연합 영국지부의 서기장 데이비드 콜닉 목사는 "서구 유럽에서 가톨릭의 교세는 매우 약화됐다"며 "사실상 유럽에는 기독교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이탈리아의 신학자 엔조 비아니 목사는 "불교, 힌두교, 뉴에이지 정신, 소비정신 등의 경쟁대상들로 인해 교회는 더욱 설자리를 잃어간다"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 '현자위' 구성 제안

달라이 라마는 10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철학자 · 종교지도자 회의'에서 국제위기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현자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달라이 라마는 "전쟁 등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일어나는 대규모 평화시위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는 또 "하벨 전 체코대통령과 같은 분들과 노벨 평화상 수상자, 철학자 등 이해관계가 없는 세계 지도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폭력과 전쟁을 막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달라이 라마는 지난 7일부터 보름여의 일정으로 유럽 순회길에 올라 스페인, 프랑스, 독일, 체코 등을 방문했다.

쉬린 에바디 노벨 평화상 수상



이란의 작가 겸 여성 인권변호사인 쉬린 에바디(Shirin Ebadi, 56 · 사진)가 민주주의와 인권운동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에바디는 이란의 첫 노벨평화상 수상자이며 역사상 11번째 여성 수상자이다.

'이란 여성들의 비공식 대변인', '이란의 강철 여인' 등의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 그는 독실한 이슬람 교도로 이슬람의 근본정신과 인간의 기본권 사이에는 충돌지점이 없다는 믿음으로 인권운동을 전개해 왔다.

세계의 불교학 연구현장

④ 컬럼비아 대학 종교학과

"이 경전은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는 경우에 재산 상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 재산 소유는 종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종교가 물질에 좌우된다는 뜻인가요? 종교의 영성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10월 15일 미국 컬럼비아대학 해밀턴 홀에서 열린 데이빗 바이스 할리브니 교수의 종교학 강의 시간. 이슬람 전통 의상을 입은 여학생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유태인 남학생은 곧바로 소유 문제에 대한 유대교의 의견을 제시하자 토론은 더욱 뜨거워진다.

올해로 개교 250주년을 맞은 미 동부의 명문사학인 컬럼비아대학(www.columbia.edu).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 맨하탄의 업타운에 위치한 이 대학은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한편 언론, 법학, 의학 등 개성이 강한 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티베트 불교 연구 권위, 로버트 써만교수 대표
종교-언론 과정 편성 등 실용 측면 돋보여

이중 불교학을 중심으로 한 이 대학 종교학과는 아이비리그 소속 대학으로 알려진 컬럼비아 대학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전통이다. 티베트 불교 연구가 강점인 종교학과는 1754년 대학 설립 이후 신학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컬럼비아 대학의 인문학을 한층 돋보이게 만들고 있다.

특히 로버트 써만(Robert Thurman) 교수는 컬럼비아 대학 불교학의 발전을 상징하는 인물. 98년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5명에 선정된 그는 티베트 불교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이밖에도 일본 및 중국 종교학 연구자인 류이치 아베(Ryuichi Abe) 교수, 산스크리트 연구자인 캐리 튜브(Gary Tubb) 교수 등도 컬럼비아 대학 종교학과 소속 불교학자들이다.

학부 과정에서 불교학은 종교학과의 한 분야로 취급되며, 본격적인 불교학의 연구는 대학원 석, 박사 이상의 과정에서 시작된다. 기독교학, 이슬람교학, 유대교학 등 종교학과 함께 연구되기 때문에 불교학 연구는 비교종교학적 성격을 띠며 역사, 문화, 문화, 비평 등과 관련된 학제간 연구도 활성화되어 있다. 최근에는 이 대학 퓰리쳐 언론대학원과 함께 종교-언론학 석사 과정 프로그램이 편성되는 등 종교학을 보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종교와 미국 문화 △종교와 현대사회 △종교와 포스트모더니즘 △종교의 사회학 △미국 종교 연구의 주제들 △불교 문헌 등 개설된 여러 강좌에서도 실용적이면서도 다양한 접근 태도가 엿보인다.

종교학과장 류이치 아베 교수는 "컬럼비아대 종교학과는 동서양의 문화, 언어, 철학, 역사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종교들의 서로 다른 전통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뉴욕= 강유신 특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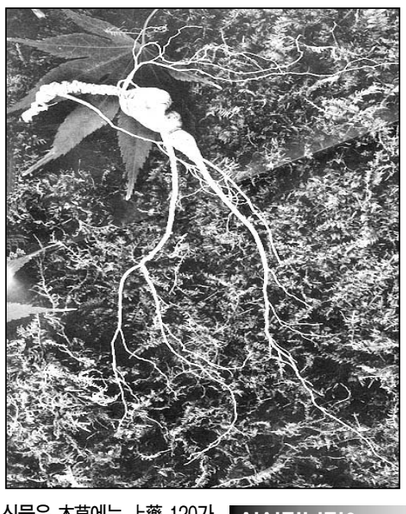
◇컬럼비아대 종교학과 학생들이 데이빗 할리브니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다.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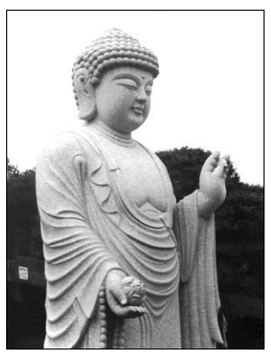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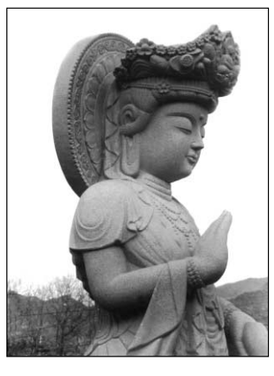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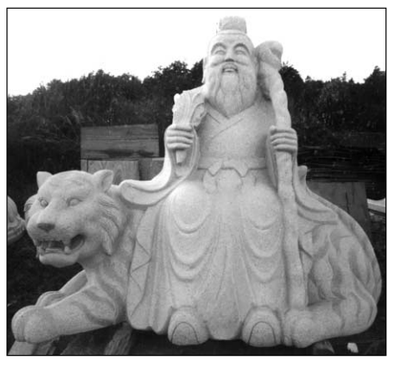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사자상과(15×21cm) 초전법륜상(22×30cm).

진리의 숲에 펼쳐진 '中道'

대탑 사이로 온갖 유물 산재
정작 주인인 사슴들은 사육장 신세
붓다의 첫 설법지, 최초 승가 형성된 곳

옛적 사르나트(Samath) 숲 속에 두 우두머리 사슴이 각기 사슴 500마리씩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곳을 통치하던 왕이 한꺼번에 서너 마리씩의 사슴을 잡아가자 한 사슴왕은 왕을 찾아가 조아렸다.

"왕께서 너무 많은 사슴을 사냥하시면 한꺼번에 먹기 어려워 썩게 되고 반찬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즉 저희가 사슴 한 마리씩을 매일 바치면 신선한 사슴을 드실 수 있고 저희의 생명들도 연장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사슴들은 순서를 정해 매일 한 마리씩 목숨을 내놓게 되었는데, 어느 날 새끼를 밴 사슴 차례가 되자 그 사슴은 한 사슴왕(데바녹왕)을 찾아가 "제가 죽으면 제 뱃속의 새끼도 함께 죽습니다. 비록 이번이 저의 차례이오나 뱃속의 새끼는 죽을 차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원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또 다른 사슴왕(보살녹왕)을 찾아가 사정하였더니 사슴왕은 크게 감동하며 "오, 이것이 어미의 자비심이로구나. 어미의 은혜가 뱃속의 새끼까지 미치고 있다니. 내가 오늘 너 대신 목숨을 내 놓겠노라"고 하며 바라나시왕을 찾아갔다.

왕은 순서도 아닌 사슴왕이 스스로 찾아온 사정을 묻고 그 사유를 알게된 바. "오, 훌륭한 자비로구나! 너는 비록 사슴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 하지만 나는 사람의 행색으로 너희보다 자비심이 없었음을 깨달았노라." 이리하여 이후로는 왕이 사슴사냥이나 사슴제물을 멀리하여 동산에서 사슴들이 행복하게 뛰놀 수 있게 되었다.(인도와 네팔의 불교성지, 정각, 불광출판사)

전해오는 위의 이야기는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요, 자비로운 죽음은 도리어 소생한다"는 아름다운 교훈이다. 이렇듯 사르나트는 '사슴의 왕'을 뜻하는 명칭인데 바라나시 북쪽 8㎞ 지점에 위치한 마을로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후 첫 설법을 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붓다가 예전 자신을 따르던 다섯 수행자에게 마침내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 만

인도그림기행 21

그림·글 이호신

사슴과 함께 듣는 붓다의 법문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났다는 곳에 챠우칸티(chaukhandi)스투파가 우뚝하니, 일명 영불탑(迎佛塔)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 우뚝 솟은 다메크(Dhamekh)스투파. 사슴동산으로 부르는 녹야원(鹿野苑)의 중심이 되는 대탑(직경 28.5m, 높이 42m) 주변엔 탑돌이가 한창이다. 다메크란 '진리를 본다'는 뜻으로 무명(無明)에서 깨어나려는 중생들의 발길로 만원인데, 순례객은 거반 한국인으로 반갑게 눈인사를 나눈다.

부러진 아쇼카석주가 서 있는 녹야원 풍광은 사슴 동산에 우뚝 솟은 대탑 사이로 온갖 유물들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정작 녹야원의 주인이어야 할 사슴은 인간들의 발길로 철망의 경계를 넘지 못하고 사육되고 있는 현상이 안타깝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사르나트는 붓다의 최초설법으로 불(佛), 법(法), 승(僧) 삼보(三寶)와 함께 최초의 승가(僧伽)가 형성된 곳으로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증거로 맞은편 사르나트 고고학 박물관 유물은 빛을 발한다.

즉 인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상중에 하나라는 '초전법륜상(初轉法輪像)'은 해맑은 청년의 모습으로 법륜을 굴리는 모습(說法印)인데 탄력적인 육감과 잔잔한 미소를 머금었다. 굽타시대(5세기경)에 조성된 불상으로 우리 석굴암처럼 제작자는 당시 최고의 돌을 고른 안목의 소유자였을 것이다. 특히 불상하단엔 두 마리의 사슴이 제자들과 함께 법문을 듣고 있는 조각은 이곳의 출토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주목할만한 또 하나의 유물은 현재 인도 정부의 국장(國章)으로 쓰고 있는 아쇼카석주의 사자머리이다. 4마리의 사자가 사방으로 왕의 권능을 나타내고, 그 밑의 바퀴는 법륜(法輪)을, 그 사이에는 4마리의 짐승(코끼리, 흰소, 말, 사자)이 조각되었는데 모두 붓다와의 인연을 상징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 돌기둥을 받쳐주는 주름치마같이 흘러내린 연화대는 이후 많은 불교조각에 응용되는 초기 문양의 사례로 돋보인다.

신라의 혜초스님은 이것을 보고 "위에 사자상(獅子像)이 있는 석주당(石柱幢)은 다섯 아름이나 되며, 거기에 새긴 무늬가 매우 아름다웠다"(<왕오천축국전>)고 전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행해진 붓다의 최초설법은 <전법륜경(轉法輪經)>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세상에는 두개의 치우친 길이 있다. 수행자는 그 어느 쪽에 기울어져도 안된다. 하나는 관능이 이끄는 대로 욕망과 쾌락에 빠지는 일인데, 이것은 천하고 저속하며 어리석고도 무익하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일에 열중하는 고행인데, 이 또한 괴롭기만 할뿐 천하고 무익하기는 마찬가지다. 수행자들이여, 나는 이 두개의 치우진 길을 버리고 올바른 길, 중도(中道)를 깨쳤노라. 이 중도에 의해서 통찰과 인식을 얻었고, 평안과 깨달음과 눈뜸, 그리고 열반에 이르렀노라."

'중도의 길'을 설파한 붓다의 설법은 오늘의 삶에 있어 얼마나 유익한가. 아니 하루를 살아도 집착과 고뇌에서 일탈할 수 있게 하는 명백한 삶의 진리가 아닌가.

이 같은 진리의 샘터, 녹야원 주변엔 오늘날 버마, 스리랑카, 중국 절과 티베트 사원이 들어섰고 자이나교 사원까지 등장했으니 새삼 '진리의 숲'을 떠올린다. 길을 떠나기 전 다시 다메크 대탑주변을 돌아보는데, 벽돌사이로 수많은 불상조각과 문양들이 세월의 잔영을 머금고 햇살에 반짝인다.

어느새 사슴들이 철망 너머 숲 아래 서성이고 새떼들이 무리를 지어 허공을 날아간다. 한 순간, 진리의 말씀 아래 온 세상이 안녕하다.

lhs1957@lycos.co.kr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화제의 염주 북한염주
합격의행운을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합격의 행운을 안겨주는 신비와 영험의 必勝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2가지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며 세계 유일의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 힘으로 합격의 행운을
2문제 맞추지 못해 낙방하는 수험생이 50%이상 된다는 통계를 보면 이것은 실력의 문제 보다 마음의 안정이다 그러므로 금강염주를 수험생 방에 걸어 놓으면 밝은 지혜와 금강의 강한 힘으로 시험 준비를 방해하는 모든 잡귀들을 다 쫓고 마음의 안정을 주며 합격의 행운을 안겨주는 영험의 필승 염주입니다.
시험당일 수험생은 금강 108염주를 몸에 꼭 지니고 가야합니다.

걱정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폴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 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금강염주는 수천 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력한 氣가 발산되며 정진 발원시 일념무아 되는 세계유일의 염주입니다.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 하실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사찰에서는 부터님 앞에 놓으시며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기원하며 3배 하신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3일간은 높은 곳에 올려놓고 3일후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195,000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2)723-0909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406호

연꽃축제기념 행사기간 동안 전화 주시면 3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핫~이슈! 세계최초 24시간 대화하는 영어선생
영어로 말하는 로봇
뉴 ~ 지니컴

스님, 불자님 영어회화 이제 걱정 끝!

스님, 불자님께서 영어를 배우고자 해도 지리적, 환경적, 시간적, 여건등으로 영어를 배우기란 참으로 어렵다. 또한 학원에서는 직접 말해볼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외국인들은 우리 불교문화를 보고 배우려고 몰려오고 있으며 국제 공용어인 영어는 사찰내 스님은 물론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필수어다. 위더스에서는 영어로 말하는 로봇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음성 인식 기술을 응용한 말하는 영어로봇의 인기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영어는 영어로 대화 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빠르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사찰에서 할 수 있는 학습법이라고는 거의 듣기위주 혹은 듣고 그대로 따라하기 위주의 CD, 테이프 등 모든 것을 동원 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만다. 가장 중요한 "말하기"를 하지 못하면서 반쪽 공부에 만족해야 했는데 영어로봇 뉴지니컴의 보급으로 1:1쌍방향 대화 학습이 가능해졌다. 영어 학습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청취력" 훈련이다. 청취력을 위해서 라도 가장 중요한 영어학습 법으로 로봇 뉴지니컴이 영어로 한마디 하면 스님께서 영어로 대답해야 하고 스님께서



한번 말하는 영어가 백번 듣는 영어보다 낫다 !

로봇이 사찰에서 스님과 대화하는
뉴 지니컴

발음이 틀리고 화법이 틀리면 뉴지니컴은 말을 안 하든가 수정해준다. 영어에 기초가 전혀 없어도 뉴지니컴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칩만 바꾸면 누구라도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귀부터 트이지 않고는 어떤 단어나 문장을 들어도 자기만의 데이터로 전환시키지 못한다. 영어로 대화하는 로봇 이름이 뉴지니컴으로 뉴지니컴은 스님께서 1:1로 재미있게 영어로 대화 할 수 있는 미국 친구와 같다. 영어로 말하는 뉴지니컴은 전면에 LCD창을 통해 에니메이션 동영상 영어 한글자막을 자세히 보여줘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도우며 언어 감각과 함께 문자 감각까지 동시에 키울 수 있다. 사찰에 하나만 있으면 모든 스님께서 재미있게 영어를 마스터 할 수 있다. 이제 말하는 로봇 뉴지니컴의 출시로 누구나 3개월이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 할 것이다. 신청하면 전국 어디든 받으실 수 있으며 카드분할도 할 수 있다.

몸체 전면에 설치된 LCD창을 통해 애니메이션 동영상 영 / 한글 자막을 자세히 보여주어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돕는다.
LCD형 영어로봇 '지니컴'
학습 문의 전화 (02)3210~3178,9